

대구 기업 73.8% “작년 설보다 어렵다”

지역 경제 지표·체감 ‘꽁꽁’

대구 6000명·경북 1만3000명

실업자 수도 1년 새 큰 폭 증가

대한상의 “저성장 고착화 원년”

올해 대구경북 경제 흐름이 첨첩산중이다. 지표와 체감도 모두 꽁꽁 얼어붙어 당분간 지역 경제가 침체의 터널 속에 빠질 수도 있다는 어두운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연말 고용 실적이 1년 6개월 만에 최저

치를 기록한 데 이어 설을 앞둔 기업들의 경제 전망이 어두워져 예년의 설 특수 분위기는 사그라질 것으로 우려된다.

11일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12월 및 연간 대구경북 고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대구의 실업률은 3.9%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0.4%포인트(p) 상승했다.

같은 기간 실업자가 6천 명 늘어난 5만 명으로 집계된 것으로, 지난 2021년 6월(5만 명) 이후 최대 수준이다. 전월(2만8명)보다는 1.7배 뛴었다.

경북도 지난해 12월 실업률이 전년

동기 대비 0.8%p 오른 3.6%로 집계됐다. 실업자는 1만3천 명 증가해 5만3천 명에 달했다. 직전 실업자 최대치는 11개월 전인 지난해 1월 6만1천 명이었다. 지역 노동시장이 세계 경제 한파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의 설 계획을 맞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의 설

경기 전망도 어느 때보다 어두웠다. 대구상공회의소가 4, 5일 대구 기업 274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3년 설 경기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구 기업 10곳 중 7곳이 ‘지난해 설 경기보다 더 악화됐다’고 답했다. ‘악화됐다’는 기업 비중은 73.8%로 지난해(53.7%) 대

비 16.1%p 상승한 것.

‘악화됐다’(복수 응답)고 답한 기업의 55.0%는 ‘고급리’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고 ‘물류비 상승’(50.5%)이 그 뒤를 이었다.

이런 가운데 전국적인 경제 상황도 나빠질 것이라는 정부 예측이 나오면서 침체된 지역 경제계는 더욱 긴장하는 분위기이다. 대한상의 조사에서 기업들은 ‘올해가 저성장이 고착화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는 데 76.2%가 동의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국내 경기

전망에 대해 지난해 11월 ‘경기둔화 가능성 있다’로 발표했다가 12월 ‘가능성이 높다’로 정정하더니 ‘1월 경제동향’을 통해서는 ‘경기둔화가 가시화됐다’고 못 박았다.

대구상의 관계자는 “고급리와 인플레 이션, 새로운 수출 환경 등 기존 경제 방식과 전략이 통하지 않는 형국이어서 지역 기업이 힘겹다”며 “규제 개선, 차세대 기술개발 지원, 인력 양성 등 기초 체력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상전 기자 psj@imaeil.com

서문시장 온 김건희 여사 尹대통령 때보다 더 들썩

갑작스러운 등장에 상인들 ‘깜짝’
시민들 몰려들면서 금세 북새통
“설 앞두고 소상공인 격려차 찾아”

“진짜 김건희 여사다.” “너무 예뻐요!”

11일 낮 12시 18분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대구 중구 서문시장 입구에 들어서자 이곳저곳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김 여사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상인들과 시민들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김 여사는 설을 앞두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격려하기 위한 민생 행보에 나섰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달서구 성서종합사회복지관에서 대학생 봉사단과 급식봉사활동을 한 뒤 서문시장에서 상인들을 만났다.

김 여사가 인사를 하며 시장 안으로 들어서자 상인들은 박수를 치고 이름을 부르며 열렬히 환대했다. 김 여사의 소식을 접한 시민들이 몰려들면서 통로는 순식간에 몸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로 북새통을 이뤘다.

김 여사는 입구 쪽에 있는 대구서문카페라 점포에 들러 10여 팩을 구매한 이후 부산어묵장돌이 점포에서 어묵 국물과 고야을 맷고 시민들과 사진 촬영을 했다.

한 상인이 “이런데 서너 처음 드시는 것 아녜요”라고 묻자, 김 여사는 “아니에요, 제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라고 답했다. 김 여사는 시민들을 향해 양손으로 하트 모양을 만들어 인사하기도 했다.

이곳에서 일하는 남영숙(59)씨는 “김 여사가 시장에 와서 깜짝 놀랐다”며 “아침에 누가 온다는 소식을 듣긴 했지만 대통령 부인이 올 줄은 상상도 못 했다”고 했다.

김 여사가 시장 안으로 이동하자 가게 안에 있던 상인들은 밖으로 나와 밭 디딜 틈 없이 줄지어 섰다. 김혜진(35)씨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오셨을 때보다 시장이 더 들썩이는 것 같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서문시장 방문 배경에 대해 “대구의 가장 큰 시장이자 설 명절을 앞두고 고물가 등으로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 상황을 좀 살펴보고 싶어 찾은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여사는 오전에 대구성서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새마을운동중앙회 소속 대학생 봉사자 등과 급식 봉사를 했다. 김 여사는 어르신 120여 명에게 배식하며 겨울철 건강관리를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앞줄 맨 오른쪽) 여사가 11일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떡볶이, 낙작만두 등을 맛보며 상인과 다시 방문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또 새해 인사를 나누며 목도리·덧신 등 방한용품 등을 전달했다.

김 여사는 “새마을운동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회원들

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새마을운동중앙회와 전국을 돌며 봉사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

했다.

김 여사가 혼자서 민생 현장을 찾아 시민들과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수현 기자 sonstag@imaeil.com

‘대구로 택시’ 앱 카카오 맹추격

洪시장 “가입률 100% 늘려라”

상반기 PnP 지사 설립도 추진
대표 입국하는 대로 실무 회의

홍준표 대구시장이 현재 30% 수준인 대구형 택시 앱 ‘대구로 택시’ 가입률을 100%까지 끌어올리는 목표를 제시했다.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에 맞서 ‘대구로’를 보다 활성화하려면 택시 가입률 확대가 관건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홍 시장은 또 세계 최대 규모의 글로벌 창업 지원 기관인 플리그앤플레이(PnP) 대구지사 설립도 올 상반기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홍 시장은 11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간부회의를 열고 “대구로 택시 가입률이 100%가 되도록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라”고 지시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11일 현재 ‘대구로 택시’ 가입 택시는 5천988대로 집계됐다. 시에 등록된 택시 1만5천 674대 가운데 38%가 가입한 셈이다. 실제 운행 중인 택시가 1만4천 대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가입률은 42% 수준이다.

가입률 증가의 관건은 앱을 통해 운행하는 하루 평균 ‘호출 건수’다. 대구로 가입 택시의 하루 평균 호출 건수는 1.5건, 시는 호출 건수가 하루 평균 5건을 넘어가면 가입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호출 건수가 늘어나면 4천 700대가 운행 중인 카카오 가맹 택시(카카오 블루)의 대구로 택시 전환도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홍 시장은 이날 “올 상반기 내에 PnP 대구지사를 설립하도록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5~7일 세계 최대 정보기술(IT) 박람회인 CES(미래전자제품박람회)를 참관한 홍 시장은 PnP 측과 글로벌 벤처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대구지사 설립에 합의했다.

시는 조만간 PnP 코리아 대표이사가 입국하는 대로 실무 회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의 창업지원기관 12곳과 엔젤투자자 13곳 등 창업 지원 및 투자 현황을 파악해 PnP 측과 연계되도록 할 계획이다.

장성현 기자 shjang@imaeil.com

성주군 공식 운영

성주참외공식쇼핑몰

www.sjchamoe.com

A QR code is located in the bottom left corner of the advertisement.

누가누가 잘 그리나



11일 대구 남구 계명대학교 대명캠퍼스에서 열린 2023학년도 편입학 모집 미술 실기고사에서 회화전공에 응시한 수험생들이 유화 실기 시험을 치르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maeil.com

칠곡할매들尹 대통령 만난다

총장 때 SNS서 글꼴 사용
새해 연하장에 애정 과시
오늘 서울 나들이에 나서



'칠곡할매글꼴'로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고 있는 일명 칠곡할매들이 12일 서울 나들이에 나선다. 이번 나들이 이에선 할매글꼴로 새해 연하장을 만든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도 예정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쏠린다.

칠곡할매들 주변 지인과 지역 관계자 등에 따르면 칠곡할매들은 이날 단체로 서울에서 대통령을 만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우 칠곡군수도 지난 7일 열린 국민의힘 고령성주칠곡 당원협의회 신년인사회 자리에서 이를 가볍게 언급한 바 있다.

실제로 만남이 성사되면 자신들에게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온 대통령께 이들 할매들이 어떤 메시지를 각자의 이름 글씨체로 손수 써서 전할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과 칠곡할매들의 인연은 2020년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짧은 세대와 소통하기 위해 소셜

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칠곡할매 글꼴을 사용하면서 시작됐다.

특히 윤 대통령은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아 각계각층에 보낸 연하장 글씨를 칠곡할매 중 한 분인 권안자체로 만들어 전국적인 이슈를 불러일으키며, 또 한 번 애정을 과시하기도 했다.

할매들과 대통령의 만남이 이뤄지면 SNS로 인연을 맺은 2년 만에 감격스러운 대면을 하게 되는 것이다.

칠곡할매들은 글꼴을 만들고자 4개 월간 각자 2천 장에 달하는 손글씨를 써가며 연습했다. 할머니들의 이름을 따 권안자체, 추유을체, 이종희체, 김영분체, 이원순체로 빛을 보게 됐다.

이후 글꼴은 한컴오피스·MS워드·파워포인트 등에 정식 글씨체로 등록됐고, 국립한글박물관은 칠곡할매글꼴 5종을 문화유산으로 등재했다.

한 칠곡 군민은 "칠곡할매와 윤 대통령의 만남이 이뤄지면 칠곡군의 평생교육과 인문학의 힘이자 승리이고, 우리의 자랑이다. 또한 작은 것이라도 끗음을 쟁고 소통하는 윤 대통령의 애민 리더십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숙 기자 hello@maeil.com

제44회 세계양봉대회 대상수상



전국택배 080.999.9898 | 안상규벌꿀

안상규 | 양봉신자식인 1호/이동양봉 경력 41년 / 청와대 최초 벌꿀 공식 공급/ 벌수염 기네스북 기록 보유자
제44회 세계양봉대회 대상수상/2020~2022국회양봉환경프로젝트 총괄 www.beeman.co.kr

안상규벌꿀은 시중유통을 하지 않으며 직영점(고산점, 동명점, 수성못점, 성서점, 구미점, 여의도점)에서만 판매 합니다

우동기 “4월쯤 지방정부 조직·인사권 대폭 풀 것”

“경험해보지 못한 자치제 시작”

우동기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 위원회 위원장은 11일 “4월쯤 지방정부에 자치조직권과 자치인사권을 대폭 풀 것 같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부산에서 열린 부산연구원 개원 30주년 기념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환경청, 노동청, 중소기업청 등 특별행정기관의 지방이양과 무너만 자치경찰제인 자치경찰제를 이원적 자치경찰제로 바꾸는 등 지금 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자치제를 시작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계획과 관련해선 이르면 연말부터 이전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했다.

우 위원장은 “이번에는 법률에 명시된 대로 혁신도시로 이전한다”며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기관은 2단계로 지방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했다.

광역단체장-교육감 라닝 메이트제도입과 특별회계 등으로 교육재정을 확충하는 방안 등 지방과 관련된 교육정책도 언급했다.

지방대학에 유학하는 외국인 학생의 부모에게 비자를 줘 그 지역에서 번 돈으로 유학시기는 새로운 형태의 신이민정책도 제안했다.

지방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기회발전특구,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도 거론했다.

우 위원장은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도입했는데 민간자본이 장기간, 10년 간 투자했을 때 소득세를 완전히 감면해준다든지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이런 것을 가상한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면서 “기업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할 때 기업승계 상속세를 감면하는 정책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했다.

이호준 기자 hoper@maeil.com

범어에일린의뜰 5억 떨어져 (85m²) 신저가 하락액 전국 최대 폭

대구 부동산 침체 현실 반영
10위에 ‘남산역화성파크드림’
신고가 상승액 50위엔 없어

전국 아파트 신저가 하락액이 가장 큰 곳은 대구 ‘범어에일린의뜰’ 전용 면적 85m²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부동산 시장 침체 상황이 반영된 것이 린 분석이 나온다.

11일 부동산 중개 플랫폼 (주)직방은 전국 아파트 매매 실거래기를 분석한 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체 기간 및 최근 1년 신고가와 신저가 자료를 내놨다. 전체 기간은 2006년 이후 아파트 준공 및 입주 후 거래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전국 아파트 신저가 하락액 1위는 대구 수성구 범어동 ‘범어에일린의뜰’ 전용면적 85m²였다. 지난해 12월 19일 6억7천만원에 거래됐는데 직접 거래 때인 2021년 7월 24일엔 매매가가 11억7천220만원이었다. 5억2천220만원 하락한 가격에 거래가 이뤄진 것이다.

전국 아파트 신저가 하락액 상위 50위권에는 대구 아파트 한 곳이 더

이름을 올렸다. 중구 남산동의 ‘남산역화성파크드림’ 전용면적 74.2m²는 2018년 12월 21일 4억9천200만원에 거래됐는데 이후 거래가 성사된 2022년 12월 20일에는 매매가가 2억8천만원으로 2억1천200만원 떨어졌다. 하락액 순위로는 전국 10위를 기록했다.

전체 기간 하락률로 따져도 하락액 1위인 ‘범어에일린의뜰’ 전용면적 85m²가 -44.5%로 1위였다. 2위는 하락액 10위였던 ‘남산역화성파크드림’ 전용면적 74.2m²(-43.1%). 대구 아파트가 하락률 1, 2위를 차지한 것이다. 3위는 부산의 ‘비룡밸로스텔라’ 53.0m²로 -42.1%로 집계됐다.

반면 전체 기간 신고가 상승액을 기준으로 상위 50위권에는 대구 아파트가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지역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신저가 하락 부문에서 대구 아파트가 상위권에 있다는 건 대구 부동산 시장이 그만큼 침체됐다는 현실이 반영된 것이다. 가뜩이나 높은 금리가 더 오를 조짐이어서 당분간 시장이 활기를 띠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채정민 기자 cwoll@maeil.com

“통합형 수능 우려 난이도 조절할 것”

이주호 ‘문과 침공’ 해소안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이과생들이 문과에 지원하는 ‘문과 침공’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대학교육 협의회(대교협)-대학 입학처장 간담회를 열고, “수능 과목으로 인해 임시에 불리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험 난이도를 적절하게 조절하고 대학 등과 소통해 개선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최근 문·이과 통합형 수능을 둘러싸고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것 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2년째를 맞은 문·이과 통합형 수능 체제와 관련해 입시 전형 운영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문·이과 통합형 수능은 학생의 선택권 확대와 융합형 인재 교육이라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에 맞게 2022학년도부터 도입됐다. 이에 따라 수험생들은 국어, 수학은 물론 탐구에서도 계열 구분 없이 선택 과목을 골라 응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학들은 학과에 인문·자연 계열 구분을 그대로 두고, 자연 계열 학과의 경우 수학 영역에서 미적분이나 기하, 과학 탐구에서는 2과목을 선택하게 하고 있다. 윤정훈 기자 hoony@maeil.com

포스코홀딩스 실리콘밸리 진출 사무소 열고 벤처기업 발굴 시작

포스코홀딩스가 미국 실리콘밸리에 ‘체인지업그라운드 실리콘밸리’ 사무소를 개소했다.

11일 포스코홀딩스에 따르면 10일(현지시간) 실리콘밸리 산호세에서 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벤처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활동을 본격 시작했다.

포스코 측은 이번 사무소 개소에 대해 포항·광양·서울에서 운영 중인 스타트업 공간 체인지업그라운드가 다양한 성과를 내면서 미국으로 확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승혁 기자 psh@maeil.com

폐짓값 폭락에 우는 노인들 “종일 주워 1만5천원”

불황에 수요 급감 생계 막막
1년새 kg당 153→84원 하락

“한달 꼬박 일해 30만~40만원
국수 한 그릇 사먹기 힘들어”

“폐짓값이 떨어졌다고 못 그만두지,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고 생각
하니까.”

지난 6일 오후 4시쯤 대구 서구 월대
동 한 고물상 바닥에 매립된 대형저울이
A(71) 씨가 모아온 폐지 더미를 207kg
으로 측정했다. 고물상은 폐지 1kg당
70원으로 계산해 A씨에게 1만5천원을
건넸다.

돈을 받아든 A씨의 징검은 검은 때가
타 새까맸다. A씨가 이날 집을 나선 시
간은 오전 5시. 장장 11시간을 일해 점
심도 빵으로 끼우면서 번 돈은 1만5천
원이었다. 시급으로 따지면 1천300원
인 셈이다. 그나마 이날은 수레에 고철
과 책이 섞여 있어 가격을 더 받은 ‘운
수 좋은 날’이었다.

A씨는 항상 오전 5시면 집을 나선다.
전날 모아둔 폐지나 플라스틱, 고철 등
을 수레에 실은 뒤 서문시장 등 중구 일
대를 쉼 없이 누빈다. 더 이상 쌓을 수

없을 만큼 수레를 채우고 나서야 그는
서구 원대동에 있는 고물상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A씨가 더우나 추우나 폐지를 수집하
지는 벌써 10년째다. 하루 1만원, 일주
일에 6일을 일하면 한 달에 손에 쥐는
돈은 30만~40만원 남짓이다. 최근 폐
짓값은 폭락한 반면 물가가 너무 올라
생활은 급격히 힘들어졌다. 그는 “너무
힘들게 번 돈이라 막상 쓰려면 아깝다.
요즘 물가도 많이 올라서 국수 한 그릇
먹기도 버겁다”고 토로했다.

2023년 새해, 폐지 수집 노인들이 어
느 때보다 춥고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
다. 경기 침체로 종이 수요가 급감하면
서 폐짓값이 폭락하기 때문이다. 2020
년 3월 kg당 55.6원으로 최저치를 찍은
폐짓값은 지난 2021년 12월 kg당 153
원까지 올랐으나 이후 꾸준히 하락해 지
난해 말 기준 84원으로 반토막이 났다.

폐짓값 폭락의 여파로 압축장과 제지
공장에도 폐지가 쌓이고 있다. 환경부
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국내 제지
회사의 폐지 재고량은 14만4천톤(t)에
이른다. 폐지 재고는 지난 2021년 평균
10만1천t이었으나 지난해 연말 20t까
지 늘었다.

업계는 폐짓값 하락세가 당분간 계속
될 것으로 전망한다. 글로벌 경기침체
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새 학
기와 이사철이 몰린 봄에는 폐지 공급
이 더욱 늘기 때문이다. 중구 한 고물상



폐지가격이 폭락하는 가운데 11일 대구 북구 칠성시장 인근 도로에서 한 노인이 폐지를 쌓은 수레를 끌고 이동하고 있다. 안성완 기자

업주는 “일주일에 2~3번 정도 압축장
에 폐지를 넘기는데 거기서도 재고가
너무 많다고 양이나 횟수를 제한한다”

며 “폐지는 1kg당 마진이 10~20원밖

에 안 된다. 그렇다고 어렵게 수집해 온
분들을 돌려보낼 수도 없다”고 했다.

채원영 기자 chae10@maeil.com
김주원 수습기자 kjw@maeil.com

동급생 괴롭히고 생중계…처음 아니다

“PC방에서 옷 벗기고 댄스 강요”
가해 중학생 관련해 추가 증언
아동·청소년 성범죄 수사 확대

대구 한 모텔에서 동급생의 옷을 벗기고
SNS 라이브 방송을 한 중학생들에
대한 경찰 수사(매일신문 1월 10일 보
도)가 아동·청소년 성범죄 혐의로도 확
대되고 있다. 과거에도 피해 학생을 성
추행하고 괴롭혔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가해 학생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혐의를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

동급생을 모델로 불러 옷을 벗기는
장면을 SNS로 생중계한 중학생 2명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정보통신망법 위
반 혐의에 집중됐던 수사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공동폭행 등으

로 넓히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동부경
찰서 관계자는 “최초 신고 내용을 바탕
으로 어떤 행동들이 죄가 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일 오후 11시 10

분쯤 동구 한 모텔에서 동급생을 성추행
하는 장면을 SNS에 생중계한 혐의(정
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로 중학생 3
학년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괴롭힘은 없었다’는 초기 진술
과 달리 폭력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가해 학생 2명은 라이브 방송 당시
피해 학생의 옷을 모두 벗기고 성적인 행
동을 강요했다. 욕설을 하며 뺨을 때리고
노래를 강제로 시키기도 했다.

채원영 기자



‘위국헌신’故 심정민 소령 1주기 추모식

“국민 안전 위한 선택 본 받아야”
능인고 내일 흥상제막식 열어

화성시 관왕리 주민들과 학생들의
목숨을 살린 고(故) 심정민 소령의 1주
기 추모식이 11일 서울 전쟁기념관에
서 열렸다. 1년 전 오늘, 심 소령은 수
원 제10전투비행단 활주로를 이륙했으
나 곧 전투기의 엔진 고장을 직감했다.
탈출할 수 있었으나, 바로 앞에 수원과
학대학교와 민가가 있음을 재차 확인
하고 기수를 태봉산 끝짜기로 돌린 후
전투기와 함께 산화했다.

● 19면

신평 추모사업회 이사장은 “위국헌
신 군인의 명예를 선택한 심 소령의 정
신은 군인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각인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화가 진행되던 1시 40분쯤부터 약
15분간 추락자점이 보이는 태봉산 상

공에서는 선후배 조종사들의 추모 비
행이 시작됐고 이 영상이 정면에 있는
스크린에 공개됐다.

추모회 참석자들, 특히 유족들은 국
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에 목숨을 바친
영웅에 대한 국가의 정성에 고마움을
표시하고 눈시울을 적시기도 했다.

심 소령의 큰 누나인 심정희 씨는 유
족을 대표한 인사말에서 “동생의 몸은
이승을 떠났지만, 그 정신만은 국민의
가슴에 영원히 살아있기를 간구한다”
고 말했다.

추모식이 끝난 후 유족과 심 소령의
일부 동료들은 공군이 준비한 버스 편
으로 대전 현충원 제7묘역을 찾아 심
소령의 큰 뜻을 표한 번 기렸다.

한편 오는 13일 오전 대구 능인고 교
정에서는 심 소령의 흥상제막식이 열
릴 예정이다.

이우호 기자

1조원대 가상화폐 환치기
주범 3명 징역 3~4년 실형

은행 지점장까지 가담한 1조원대 ‘김
치 프리미엄’ 환치기 사건으로 재판에 넘
겨진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김치
프리미엄은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
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현상을 말한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이영숙 부장판
사)은 11일 외국환거래법 및 은행법 위
반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전 지점장
A(53)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천500
만원, 추징금 2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유령 법인 설립으로 불법 외화 송금
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계 한국
인 B씨에게는 징역 4년에 추징금 14억
4천200만원, C씨에게는 징역 3년에 추
징금 8억1천7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D씨, E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
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국내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팔아 얻은 현금을 차명계좌로 세탁했고,
미리 만들어 둔 다수의 페이퍼컴퍼니(유
령회사)를 활용, 해외로 재자 송금했다.

김윤기 기자 yoonki@maeil.com

경산시의회 의장 선거 담합 前現시의원 3명 별금형 확정

경북 경산시의회 의장 선거에서 특정
의원을 선출하려고 담합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돼 재판에 넘
겨진 3명의 경산시의회 전·현직 의원들
에게 별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지방의원은 공직선거법 이외의 법으
로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별금 100만원 이상 형을 받으면 의원직
을 상실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최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재영·이경원·경산시
의원과 남광택 당시 시의원 등 3명이
낸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
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제8대 경산시의회 전·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선출하려
고 담합해 무기명 비밀투표의 사무를 방
해한 혐의(매일신문 2020년 7월 28일
보도)로 200만~500만원의 벌금형으로
액수 기록됐다. 이들은 이에 불복해 정
식 재판을 청구해 1심과 2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진만 기자

매일안내

1등광고
매일안내

광고문의 및 접수
T.(053)251-1234, 080-711-2001
F.(053)255-7886
광고료 입금계좌
대구은행 069-05-138135-001
농협 703-01-341142
예금주 : 매일신문사



**포항북구일반상업
바다근접**
대160㎡ 건115㎡
2층 8x8m 매2억
(시세반. 재개발) 010-5523-3641

대지/임야/공장

비산동 땅
1,136㎡(344)
10m도로 21억

이현
동 준공업지역 462㎡(140)
12억5천 청비공장 가능, 공
장·창고 신축자리 010-3225-1189
№ 27170-18-00043 서구 뉴성장부동산 김정현

※ 성서공장 매매
대지 500 · 1000
581-7733
№ 27290-17-00023 달서호림 청원부동산 인증석

※ 병원 상가 신축
부동산 구비금
1,360㎡(450)
10m도로 21억

골프장 매매
대지450 당2500만 전수증개물건
(사전내사 예약필) 053 521-0418
№ 27170-20-00012 서구 은리부동산 양현석

창녕 춘집 급매
919㎡
1,360㎡(450)
10m도로 21억

모 텔
모텔매매 15억
인수 대110㎡
객49 (승·보별) 월매 9천만원 이상/
매매 6억인수 대340㎡ 각30
월매 4500(단독위치) 053) 521-4949
№ 27170-19-00025 서구 대농부동산 김영기

기타 부동산
상인동 커피숍
264㎡
보2천 월100/골프장 매매 타석9개
룸2개 보5천 월330 가격절충
010-9294-9006

대구 죄고 스크린
역세권 위치
최고
스타벅스 신축매매
627-5002
№ 27170-17-00049 달서호림 청원부동산 인증석

부동산 교환
율하, 신기, 안심
963-7355

배달원모집 안심1·2동
일대
남녀노소 가능 962-3290

대명4동 일대 남녀노소, 오토바이 소지자
서대명지국 010-3511-0195

배달원모집 용산동
남여노소, 주부우대010-2534-5529

배달원모집 성당/두류동
일대 남여노소
감삼두류지국 010-3071-3529

배달원모집 대신동일대
남녀노소 최고대우 010-3513-0826

배달원급구 범어4동일대
업계최고대우 010-3515-6388

상속한정승인공고
사건번호 : 2022느단11736 대구기정법원
파상속인 : 양 김대중 (1934.06.11. 생)
사망일 : 2022.10.31.
최후주소 : 대구 달서구 한실로 29, 802동 1804호
(도원동, 나래마을)
민법 제1032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에 의거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체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23. 1. 12.

판 결 공 시
제1심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2021고정994
폭행
피고인 권우률
위 피고인은 폭행죄로 기소되었으나 증거없
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
을 공시함.
2023. 1. 10.

대구지방법원 판사 김지나

매일안내
광고문의
080-711-211-2034
매일신문



경북 경주 보문관광단지에 있는 한 호텔 건물이 군데군데 도색이 벗겨진 채 수년 동안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

설 앞두고…찾아가는 백신 접종·온누리상품권 할인 판매

대구시 4대 분야 시민안전 대책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400억원

일상 회복 후 처음 맞는 설 명절을 앞두고 대구시가 연휴에 대비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대구시는 오는 27일까지 ▶격정없는 '시민안전' ▶부담없는 '민생안정' ▶불편없는 '시민편의' ▶소외없는 '온기나눔' 등 4대 분야, 17개 세부 대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민 안전 분야에서는 재난·재해와 감염병 확산 저지에 집중한다.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는 한편, 자연 재해 위험지역과 다중집합시설 등 580여 곳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에 나선다.

화재에 대비해 쪽방촌, 고시원 등 취약 현장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을 강화하고, 산불 방지 비상근무를 할 계획이다.

또한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을 이용하는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코로나19 주가 백신 접종을 진행하고 비상방역상황반도 운영해 감염병 확산을 막을 방침이다.

연휴 기간 동안 의료 공백을 최소화

하고자 휴일에도 문을 여는 원스톱진료 기관 180여곳을 확보하고, 각 구·군 보건소 등 선별진료소 12곳을 운영한다.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은 120달구 별관센터와 대구시 및 중앙응급의료센터 홈페이지, 응급의료정보제공 모바일 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물가 관리 등 민생 안정 대책도 마련했다. 물가 대책상황실을 운영해 전통 시장과 대형마트 24곳, 33개 상수품 가격 동향을 매일 관리한다. 지역 소비를 활성화하고자 이달 말까지 온누리 상품권을 할인 판매하고, 14~24일에

는 전통시장 주변도로 24곳의 주차를 협용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400억원 규모의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시민 불편을 자아내는 교통 혼잡 및 생활 쓰레기 수거 대책도 마련했다.

연휴 기간 교통증합상황실을 통해 혼잡 예상 구간 116곳을 집중 관리해 교통 체증에 대비한다. 공공기관 등 주차장 650여곳, 3만7천여면은 무료 개방 할 예정이다. 공공 폐기물처리시설은 22일 설 당일 외에는 정상 운영된다.

장성현 기자 shjang@maeil.com

신규사업 지지부진 찾지않는 보문단지

호텔·신라밀레니엄파크 방치
민간 사업자 부지 매입 후
수년간 착공 않고 하세월
부동산 투기 악용 우려도

11일 경북 경주 보문관광단지에 있는 한 호텔 건물. 건물은 군데군데 도색이 벗겨진 채 방치돼 있다. 마당 구석엔 한 때 보문호를 운항했던 넓은 유람선 2척도 흉물스런 모습으로 놓여 있었다.

1979년 개장해 특급호텔로 이름을 떨쳤던 이곳은 2015년 모기업의 부도로 폐업한 뒤 9년째 방치되고 있다.

2016년 부산의 건설업체(㈜유림이엔씨)가 이곳을 인수한 뒤 리모델링해 다시 문을 열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지금껏 손을 대지 않고 있다.

이처럼 보문관광단지 내 민간 사업자

의 신규 사업이 지지부진해 단지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단지 내 핵심 상업시설인 보문상가(2만5천여㎡)나 드라마 '선덕여왕' 촬영지로 유명한 신라밀레니엄파크(17만4천여㎡)도 비슷한 상황이다.

보문상가는 2019년 ㈜모다이노칩이 매입했다. 모다이노칩은 의류아울렛인 '모다이울렛'을 운영하는 업체다. 모다이노칩은 앞서 2013년 매입한 상가 인근 땅(1만5천여㎡)을 함께 활용해 대형 복합아울렛을 조성하려 했으나 아직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신라밀레니엄파크는 2016년 모기업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파산절차를 밟으

며 방치돼 왔다. 이후 2020년 2월 경주 힐튼호텔 운영사인 우양산업개발이 경매로 낙찰 받았다. 당초 우양산업개발은 기존 시설을 업그레이드하고 편의시설을 추가해 다시 관광 명소로 부활시키겠다고 밝혔으나 만 3년이 되도록 별 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보문관광단지를 관리·운영하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이하 공사)가 이를 강제할 마땅한 방법은 없다. 공사는 지난달 22일 해당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업체의 애로 사항을 듣고 사업 쟁취를 호소한 게 전부다.

일각에선 이 같은 제도적 허점이 부동산 투기로 약용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사업자가 부지만 매입해 놓고 시간을 끌며 거액의 대출을 받거나 훗날 되팔아 이득을 챙기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사업자의 빠른 착공을 유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2000년대 초반까지는 공사가 사업자와의 계약서에 착공 기한을 특약으로 명시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유권 이전을 해주지 않았다. 이후 국민권익위가 '우월적 지위에 의한 불합리한 계약'이라는 이유로 시정권고 지침을 내리면서 사라지게 됐다.

경주지역 한 인사는 "계약이란 것 자체가 쌍방 합의에 의한 것이고 약용될 우려가 있는 만큼 사업자의 사업 이행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절실히"이라고 말했다. 김도훈 기자 hoon@maeil.com



큰고니 무리 유유자적 11일 대구 동구 신서혁신도시에 위치한 신지 연못에서 멀리 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인 '큰고니'가 무리지어 물살을 가르고 있다. 해마다 이맘때쯤 월동 중인 큰고니 무리를 볼 수 있는 안심습지로부터 5km 가량 떨어진 이곳에서도 큰고니 50여 마리가 목격돼 눈길을 끈다.

우태욱 기자 woo@maeil.com

경북 '워라밸' 전국 꼴찌, 대구는 평균 턱걸이

일·생활·제도 모든 분야 불만족

경북 지역 근로자들의 '일·생활 균형'이 전국에서 가장 낮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의미하는 이른바 '워라밸 지수'다. 대구 지역 근로자들의 일·생활 균형 수준도 전국 평균을 겨우 넘는 수준에 그쳤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17개 시도별 '2021년 지역별 일·생활 균형지수'를 11일 발표했다.

노동부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위탁해 일과 생활, 제도, 지자체 관심도 등 4개 영역, 24개 지표를 통해 각 지역 근로자들의 일·생활 균형 수준을 조사해 2017년부터 매년 발표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 평균 일·생활 균형지수는 100점 만점에서 54.7점으로, 전년 (53.4점)보다 1.3점 높아졌다.

시도별로는 부산이 64.1점으로 가장 높고 서울(62.0점), 세종(60.8점)이 뒤를 이었다.

경북(47.3점)은 하위권인 울산(47.3점), 강원(48.9점)보다 낮은 점수를 받아 전국 꼴찌를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경북은 ▶일(12.7점) ▶생활(15.1점) ▶제도(14.6점) ▶관심도(4.9점) 등 모든 분야에서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은 지난 2020년 전국 16위(47.9점)에서 더 하락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대구(54.8점)는 전국 10위로 중위권에 들어가긴 했으나 전국 평균(54.7점)을 겨우 넘는 수준에 불과했다. 대구는 ▶일(13.5점) ▶생활(15.1점) ▶제도(16.6점) ▶관심도(9.5점) 등을 기록했다.

강은경 기자 ekkang@maeil.com

조계종 사찰 관람료 감면 결정

대한불교조계종이 사찰 방문객에게 받는 관람료를 감면하기로 공식 발표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불편을 없애고 문화재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사찰 문화재 구역 입장료 징수 제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재 관람료 감면 관련 지원 예산이 정부 예산에 반영됐다"며 "국가가 지정한 문화재 관리 비용을 사찰이 관람료 징수로 중당해온 잘못된 관행이 바로 잡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방식은 연구 용역이나 당국과의 협의 등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진우 스님은 정부 예산이 한정된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 "전면적인 폐지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종이 말하는 정부 지원은 '개정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것이다. 국가지정문화재 민간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할 경우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 문화재보호법이 올해 5월 4일 시행된다. 이를 뒷받침할 사업비 419억원이 올해 정부 예산에 반영됐다.

심현재 기자 gjswo0302@maeil.com

1 · 등 · 광 · 고

매 일 안 내

광고문의 및 접수
Tel.(053)251-1234, 080-711-2001
Fax.(053)255-7886

광고료 입금계좌
▶대구은행: 069-05-138135-001
▶농협: 703-01-341142
▶예금주: 매일신문사

행복한 미래가 있는

결·혼·정·보

초·재혼 국제결혼, 결혼정보회사 개인, 웨딩샵, 스튜디오

광고문의: 251-1234



유익한
생활정보

광고문의: 251-1234



파산 면책 / 개인회생
신용불량 탈출!!

세계법무사 사무소
법무사 김대봉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90, 범어타워 1804호

010-6429-3814

병원·의원·약국 개원
컨설팅전문 임대/매입/양도양수

金興助 김홍조 상무이사

010-7317-4579

진산철학관

사주·작명·궁합·결혼·부모운·강간운·

사운운·취직·승진·자랑·시험운·이사·

매매운·택풀·사랑·병명운이 고생하시는분·

즉석신사·한국인·생활학역학·기기출입

장소: 자하동 28선 내지역·연·중·죽·(월사)·파도·고개로 207

피도·2개 방정 250m 우측(미용실 2층)

전화 654-7145, 010-8566-8497

33년 전통을 이어온

청구도시락은
자연과 사람을
이어줍니다.

대표이사 권오섭

청구도시락
출장뷔페 사업부
(주)청구푸드시스템

053)763-1009/214-8000

13인승 대형개인택시

골프·의전 및 관광도~!!

기족 및 계모임·단체는

13인승

슬라티 택시로!

010-5877-3336 / 010-3824-5775

훈기나는

조립식 전기온돌판넬
건식 온수온돌

바·닥·난·방

■누수가 생기는 곳, 당일시공·당일사용·

연료비 약 40% 절약, 품질은 Y-파이프 수명과 동일

W 우진산업 www.woojinmondol.com

40년 전통의 바닥난방 전문 생산공장 053)581-0111~2

중고피아노
매입·판매

(운반·조율)

고객님의 신뢰와 믿음으로
39년을 지켜온 세광피아노사.
항상 고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세광피아노사

010-4802-0541

대구 중구 남산동 2112-2(명덕역·변출구)

가발은 역시 가발명장 셀모로

* 당일내 가발 티나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100% 환불 *

[편·본드 없이 편한 특허가발]

Hello. 2023

행복한
건강한 해

복

2023년 계묘년(癸卯年), 더욱 행복하고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앞으로도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은
환자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DCMC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DAEGU CATHOLIC UNIV. MEDICAL CENTER

등산복 / 작업복 / 골프웨어 / 남성복 / 여성복 / 상품 다양

매스컴에서 극찬한 바로 그곳~ KY어패럴

생산원가이하 최저가 공장형 상설매장!

(국내 유명브랜드)

(KY 어패럴 본사 1층 800평)

(매주 수시 신상품)



전품목 매장 방문시 추가할인

2015년 9월 1일 KBS2 「생생정보」
(불황타파! 최저렴의류 할인매장)2017년 4월 14일 TV조선 「행복한 저녁」
(봄맞이 최저가 창고 대방출!)2016년 6월 8일 MBC 생방송 「오늘 저녁」
(가격파괴 창고형 의류 판매장!)2015년 7월 16일 MBN 「리얼다큐 숨」
(대한민국 최저가를 찾아라)2015년 5월 6일 채널A 「관찰카메라24시」
(창고 대개방~! 쇼핑V특구)

2015년 5월 06일
채널A '초특가로 모십니다'
2015년 7월 17일
MBN '리얼다큐 숨'
2015년 9월 01일
KBS2 '생생정보'

생산원가이하 최저가 공장형 상설매장!

매스컴에서 극찬한 바로 그곳~ KY어패럴

2016년 6월 08일
MBC '생방송 오늘 저녁'
2017년 4월 14일
TV조선 '행복한 저녁'

정상 판매가격에서
최대 90%
할인판매

이월 제품
오버 생산 제품
수시 입고

단체복 주문 가능
소매·도매 판매
대량구매 문의 가능

2015년 5월 6일
'초특가로 모십니다'2015년 7월 17일
MBN '리얼다큐 숨'2015년 9월 1일
KBS2 '생생정보'2016년 6월 8일
MBC '생방송 오늘 저녁'2017년 4월 14일
TV조선 '행복한 저녁'
KY KY어패럴
문의
전화

053)591-6328

· 영업시간 : 오전 10시 ~ 오후 7시까지

· 주소 : 대구 달서구 갈산동 산 57-1

KY어패럴은 연중 무휴이며 설, 추석 당일 및 매달 마지막주 일요일 휴무합니다.

 성서공단네거리
대구 비즈니스센터
뒷편
KY(케이와이)
어패럴

성서로 45길

성서복합
유통단지비즈니스센터
대구 은행

성서공단네거리

소득 요건 없는 '4%대 고정금리' 대출 나온다

특례보금자리론 30일 출시

우대조건 충족 시 3% 중후반
주택 가격 9억, 한도는 5억원
DSR 미적용…갈아타기 가능

시장금리가 빠르게 오르는 가운데 주택 구입이나 '대출 갈아타기'가 필요한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이 오는 30일 출시된다.

최대 관심사였던 금리는 시장 예상대로 연 4%대로 책정됐지만, 소득이나 신혼 가구 등 일정 우대 조건 충족 시 3% 대 중후반 금리도 가능한 구조다.

금융위원회는 기준 보금자리론에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 정책 모기지를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오는 30일부터 신청받는다고 11일 밝혔다.

급격한 금리 인상기에 시중금리보다 0.4~0.9%포인트 저렴한 고정금리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기준 정책 모기지보다 지원 대상을 크게 넓힌 게 특징이다.

무엇보다 기존 보금자리론(소득 7천만원 이하)과 달리 소득 요건이 없다는

점에서 파격적이라 평가를 받고 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가격 상한은 기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늘렸으며, 대출 한도는 3억6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대출 한도를 늘리는 데 유리하다. 현재 1억원 초과 대출자에게는 DSR 40% 규제가 적용되는데, 특례보금자리론에는 이런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준 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각각 70%(생애 최초 구매자 80%), 60%가 적용된다.

신규 구매를 비롯해 기존 대출에서 갈아타려는 상황 용도,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보전 용도 등 총 3가지 목적 모두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무주택자뿐 아니라 대출 갈아타기 등이 필요한 1주택자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2년 이내)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는 차주 특성별로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구분돼 적용된다.

'주택가격 6억 이하'면서 '부부 합산



리퍼브 가구 최대 70% 할인

대구 신세계백화점이 오는 26일까지 8층 문화홀에서 신세계 리빙·라이프 스타일 브랜드 '까사미아 클리어런스' 할인 행사를 연다. 대구점 단독 행사로 진행하며 소파, 주방용, 침실용 상품을 최대 50%, 리퍼브 상품을 최대 70% 할인한 가격에 판매한다.

| DGB Index | | (11일) |
|----------------------|----------|-----------|
| ↑ 코스피 | 2,359.53 | (+8.22P) |
| ↑ 코스닥 | 709.77 | (+13.72P) |
| ↑ 국고채금리 (3년물, 연%) | 3,472 | (-0.084P) |
| ↑ 환율 (원·달러) | 1,246.2 | (+1.5W) |
| ↑ 금값 (1g) | 75,490 | (+110원) |



대구청년, 실리콘밸리를 만나다

글로벌기업 엔지니어들과 멘토링

"기다리지만 말고, 목표 갖고 앞으로"

"개발자 되려면" "사업 확장하려면"
2기 출신 CES혁신상 창업자 만나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떠난 제5기 대구 4차 산업혁명 청년체험단(이하 청년체험단)은 10일(현지시각) 실리콘밸리 글로벌 기업을 둘러보고 이곳에서 전 세계 첨단산업을 이끄는 멘토들의 시각을 묻고 듣는 시간을 가졌다.

청년체험단은 이날 실리콘밸리 산타클라라에 있는 엔비디아 본사를 방문하는 것으로 하루 일정을 시작했다. 엔비디아는 미국의 컴퓨터 GPU 설계 회사로 독립형(외장) GPU 시장 점유율 80%를 넘는 압도적 1위자 자율주행 자동차 부분 그래픽 칩셋 1위 기업이다.

청년체험단은 이곳에 근무하는 한국인 폴 신 박사를 만나, 그의 소개로 엔비디아 업무 공간을 직접 둘러봤다.

질의응답에서 전자공학을 전공 중인 하동균 씨가 "엔비디아가 사업 영역을 확장 중인데 특히 눈여겨볼 분야는 어떤가요?"라고 묻는 등 컴퓨터공학 전공자들의 질문이 주를 이뤘다. 컴퓨터 관련 학문을 공부 중인 배지연 씨도 "실리콘밸리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취업하는 방법"을 물었다.

창업자 단원들은 "엔비디아는 어떤



제5기 대구 4차 산업혁명 청년체험단은 10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에 있는 글로벌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를 방문했다. 이곳에서 한인 엔지니어와 만나 평소 궁금했던 실리콘밸리의 업무 환경과 글로벌 기업이 바라보는 미래 등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흥준표 기자

방법으로 사업 확장을 해나가는지", "조직 운영을 어떻게 해나가는지" 등을 중심으로 평소 고민에 대한 답을 찾으려 애했다.

오후에는 로스알토스의 커뮤니티 시설로 이동해 이베이, 인텔, 링크드인 등 글로벌 기업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다가 1인 기업을 위한 툴을 제공하는 씨야(CEEYA) 창업자 박기상 대표를 만났다.

박 대표는 단원들에게 "기다리면 늘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며 ▶뚜렷한 목적의식 ▶확고한 정체성 ▶협동성을 갖고 앞으로 나아갈 것을 조언했다.

이어 애드테크 분야 유니콘 기업 몰로코의 이충구 부장이 닐슨, 링크드인, 넷플릭스 등에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개발 과정에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저녁 시간에는 이준호 플라스크(Plask) 대표가 청년단을 방문했다. 그는 포항공대 2학년이던 2019년 2기 청년체험단에 참여했다. 이듬해 2월 포항에서 플라스크를 세웠다. 플라스크는 CES 2023에 삼성전자 C-Lab 지원을 통해 참가, 혁신상을 받았다.

홍준표 기자 pyoya@maeil.com

남선알미늄, 방화용 단창 개발 성공

이중창에 비해 저렴한 가격
숙박시설·물류센터 등 활용

SM그룹 제조 계열사인 남선알미늄이 알루미늄 방화용 단창 개발에 성공했다. 남선알미늄은 11일 알루미늄 방화용 단창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방화창 성능 시험 기준인 '20분 이상 비자열(연기·화염 차단)'을 내·외측 모두 통과했다. 낮을수록 우수하게 여기는 열관류율(열통과율) 시험도 1,442로 통과해 에너지 절감 측면에서 합격점을 받았다.

남선알미늄은 내구성이 강한 알루미늄 소재 제품으로 균형생활시설, 숙박시설, 물류센터 등 방화창이 필수인 현장에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조립 부문이 깔끔하고, 대형 규격 방화창 제품을 포함해 다양한 크기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남선알미늄 관계자는 "기존 이중창에 비해 저렴한 단창을 출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제품 선택 폭을 넓혔다"며 "올해 다양하고 차별화된 제품을 출시해 알루미늄 방화창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했다.

정은빈 기자 bean@maeil.com

네이버 '유럽 당근마켓' 최대 주주

네이버가 '스페인판 당근마켓'인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왈라ප'의 최대 주주가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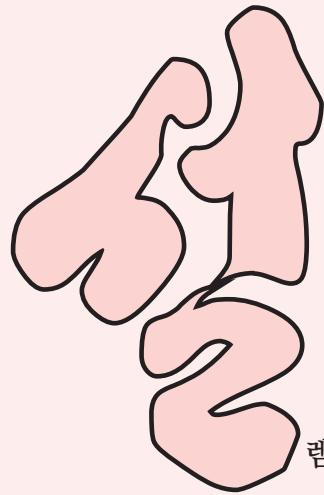
11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최근 왈라ප에 7천500만 유로(약 1천3억 원)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집행을 마쳤다.

앞서 네이버는 2021년 2월 1억1천500만 유로(약 1천550억 원)를 투입해 10여%의 지분을 매입했고, 약 2년 만에 추가 투자를 하며 총 지분 30.5%를 확보했다. 이로써 네이버는 종전 최대 주주인 왈라ප 창업자·경영진을 넘어 단일 투자자 기준으로 최대 주주에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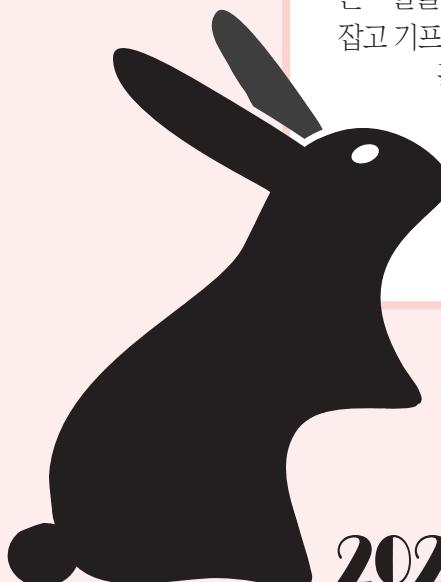


24시간 전문의 5인이 진료하는 병원





웹 가득한 생활

2023년 1월 12일 목요일
毎日新聞 12알뜰한 가격
실속 살리고!

2023

올해는 양극화 뚜렷

올해 설 명절 선물은 양극화 현상이 눈에 띈다.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 좋은 중저가 제품과 고급스러움을 내세운 '가심비(가격 대비 만족도)' 제품군으로 소비가 쏠리는 경향이 뚜렷하다.

유통 업계는 설 명절 기간을 앞두고 실속형 혹은 프리미엄을 강조한 선물세트를 대거 출시했다. 가격을 중시하는 소비층과 차별성 있는 상품을 찾는 이들을 각각 겨냥한 '투트랙' 전략이다.

설 선물세트 판매에 돌입한 백화점 업계는 10만원대부터 100만원 이상까지 다양한 상품군을 선보였다. 더현대 대구는 한우 선물세트를 역대 최대 물량(1만5천세트)으로 준비했다. 100만 원 이상 초프리미엄 선물세트 물량은 지난해보다 50% 늘리고, 품목 수도 기존 40종에서 80종으로 늘렸다.

더현대 대구 관계자는 "최근 프리미엄 선물을 찾는 고객 수요가 늘었다. 선물세트 예약 판매 기간 상당 건수도 지난해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며 "고물 가·고금리 상황에 실속 있는 선물을 찾는 소비자와 고급 선물을 찾는 소비자가 동시에 들어난 추세"라고 했다.

친환경 마케팅도 계속됐다. 유통·식품 업계는 MZ세대를 중심으로 윤리적·가치 소비를 지향하는 분위기가 일자 친환경 포장재를 속속 도입했다.

가장 적극적인 곳은 신세계그룹 계열사다. 신세계백화점은 한우·과일 등 선물세트 85%를 재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포장으로 기획했다. 지난해 일부 점포에 도입한 종이로 만든 과일 바구니도 이번에는 전 점포에서 만날 수 있다.

대구 신세계 관계자는 "선물 수요가 많은 명절에 지속 가능한 소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친환경 패키지를 확대 도입했다. 재생 소재 사용을 확대해 '작한 소비'를 위한 환경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했다.

명절 선물을 '기프티콘(모바일 상품권)'으로 주고받는 이들도 늘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국내 모바일 상품권 거래액 규모는 2019년 3조3천200억원에서 지난해 5조9천500억원으로 84.2% 성장했다.

이 같은 추세에 이마트는 지난해 12월 과일 선물세트 2종을 '키카오톡 선물하기'로 출시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알뜰 소비"가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고 기프티콘 마케팅을 펼치는 기업이

늘면서 모바일 거래 시장이 더욱 커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고 전했다.

정은빈 기자
bean@maeil.com

상품 차별화
품격 높이고!최고급 수제 청주
고구마 증류 소주

경주법주 & 금복주

경주법주(?)는 설을 맞아 대표명주 '경주법주', 은은한 향과 깊고 풍부한 맛의 '화랑', 세계 최고 79% 도정율의 최고급 수제 청주 '경주법주 초특선'을 선보인다.

'경주법주'는 100% 우리쌀과 우리밀 누룩으로 장기간 저온 발효, 숙성해 턱월한 맛과 깊은 향을 자랑한다. 술이 돼 나오기까지 100일이나 걸려 '백일주'라 불리기도 한다. 700㎖ 유리병, 900㎖ 도자기, 선물용 백호세트(700㎖ 2병, 원컵 1병 포함) 등이 있다. 외국 국가원수의 방문과 각종 국가 차원 행사에 만찬용, 선물용으로 제공되는 등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명주로 자리 매김했다.

'화랑'은 국내산 찹쌀(100%), 자체 생산한 누룩으로 150일 간 저온 장기 숙성, 향이 은은하고 맛이 풍부하다. 다양한 음식과 잘 어울려 일상적으로 즐기기 좋다. 375㎖ 낱병 또는 세트로 구입할 수 있다. 3분입 세트(375㎖ 3병, 전용잔 2개 포함)는 선물용으로 적합하다. 패키지 디자인은 꽃잎 이미지와 화(花)자를 모티브로 했다.

국내 최고급 청주 '경주법주 초특선'은 몽드 스텔렉션에서 7년 연속 금상을 받았다.

연간 한정 수량으로 생산되며 쌀알을 79%까지 깎아내는, 고도의 정미 과정을 통해 남은 21%의 쌀알로 만든다. 이는 세계 어디에서도 예를 찾아보기 어려운 고도의 정미율. 국내 최초로 1분에 3천회 이상 회전하는 원심분리 시스템 공정을 도입, 깔끔하고 부드러우며 은은한 과일향이 감돈다. 전국 백화점 및 일부 호텔 내 식당과 고급 일식점에서 판매된다.

금복주의 프리미엄 증류주 '백로(白露)'는 국내산 고구마를 원료로 사용한 증류소주다. 전통 흑국(검은 누룩) 발효와 장기 숙성, 냉동여과 공법 등의 현대적 증류 기술을 접목해 하얀 이슬 방울처럼 맑고 깨끗한 주질을 자랑한다. 은은한 향과 부드러운 감칠맛이 특징이다.

'제로 투'는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소주다. 국내 최초로 찹쌀과 백미, 2가지 증류 원액 블랜딩으로 맛이 부드럽고, 과당제로로 칼로리가 낮은 것이 특징이다.

정은빈 기자

한율 오복 컬렉션
행운 추첨 이벤트AMORE PACIFIC
CORPORATION

아모레퍼시픽이 2023년 계묘년 '검은 토끼의 해'를 맞아 한정판 '한율 오복 컬렉션' 세트를 출시했다. 한율은 한국의 이로움으로 균형 잡힌 아름다움을 전한다는 의미가 담긴 브랜드다.

브랜드 대표 제품을 다섯 가지로 구성한 이번 컬렉션은 자연 원료의 이로움을 쌓아 건강한 피부 균형을 전달한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한율 오복 컬렉션은 ▷ 촉촉한 복 '빨간 복' ▷ 진정한 복 '어린 쪽' ▷ 환하게 밝히는 복 '달빛유자' ▷ 차 오르는 복 '험진광' ▷ 꽉 잡은 복 '부들빔' 등 한율의 다섯 가지 복(福)으로 나눠 각각 화장품 세트를 구성했다.

제품 패키지에는 한국 전통 매듭 기법인 도래매듭을 다섯 번 지어 만든 '도래매듭 참'을 달아 오복의 기운을 전달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이 매듭은 패키지에서 분리해 가방이나 소지품에 매달아 연출할 수 있게 제작, 소장 및 선물 가치를 높였다.

한정판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은 동봉된 내지를 통해 행운 추첨 이벤트에도 참여할 수 있다. 스테이플리오 숙박권, 브랜드 프루아와 함께 제작한 오복 담은 에코백 등을 경품으로 제공한다. 전국의 아리따움 매장과 대형 마트, 온라인 아모레몰, 한율 네이버 공식 스토어, 올리브영 등에서 만나볼 수 있다.

전 세계 고객에게 사랑을 받아온 라네즈 '크림 스킨'은 높은 보습력과 산뜻한 사용감을 바탕으로 한 저자극 스킨케어 제품, 이번에 한 단계 더 발전했다.

'라네즈 크림 스킨 세라펩타이드TM 리파이너'는 기존 제품에 '세라펩타이드TM' 성분을 추가로 담았다. 이는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 세라마이드와 피부 지방력을 높여주는 펩타이드를 결합한 성분. 보습 효과와 더불어 피부의 수분 유지 능력을 키워준다.

또 라네즈만의 고압 블렌딩 기술(Micro Blending Technology™)을 적용해 피부에 깊고 빠르게 흡수된다. 사용 즉시 피부 수분량이 8배 증가하고, 120시간 피부 속보습 효과를 선사한다. 새 패키지에는 전용 미스트 펌프를 개발해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리필용 제품도 함께 출시해 지속 가능성도 강화했다.

김세연 기자 ksy121@maeil.com

양질의 젖산 칼슘
건강 지키는 핵심이신화 칼슘
Yisinhwa Calcium

'새로운 칼슘의 세계를 만날 기회' 이신화칼슘이 설을 맞아 칼슘 보충제 '이신화 락틱애씨드 칼슘 골드'로 가족의 건강을 지키라고 강조한다.

'이신화 락틱애씨드 칼슘 골드'의 원료로 사용되는 젖산 칼슘(Calcium Lactate)은 FAO(국제연합 식량농업 기구)와 WHO(세계보건기구)도 섭취량의 제한을 가급적 두지 않는 고품질의 칼슘 원료다. 마그네슘 락레이트(Magnesium Lactate)와 'Dsm 비타민 D', 아연 글루코네이트, 다양한 유산균(probiotics)이 제품에 함유돼 있다.

이 제품의 주성분인 칼슘은 뼈와 치아 형성, 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 정상적인 혈액 응고에 필요할 뿐 아니라 골다공증 발생 위험을 감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영양소. 특히 비트(beet)에서 추출한 당질을 발효해 얻는 식물성 젖산 칼슘이어서 흡수가 매우 쉽다. 젖산은 인체 내에서도 자연스럽게 생산되는 영양소이기도 하다.

칼슘은 위장에서 산(酸)을 강화해 염기와의 균형을 조절, 건강을 증진시켜 준다. 혈액 속에서도 칼슘은 건강을 지키는 핵심. 양질의 칼슘을 찾아 매일 적극적으로 섭취할 것을 권하는 이유다.

밥을 짓거나 요리할 때, 음료나 커피 등에 넣어 먹을 수 있는 제품이다. 식생활은 풍으로워졌으나 고르게 영양 섭취를 하지 못한다는 말이 많은 게 요즘이다. 인체에 미네랄 부족 현상도 심각, 흡수가 쉬운 칼슘을 챙기는 게 중요하다.

스티 분말로 만들어져 하루 2포 섭취하면 된다. 가급적 온수에 탄 뒤 저어 섭취하라는 게 이신화칼슘 즉 조언이다.

이신화칼슘 관계자는 "코로나19 시대에 양질의 칼슘은 꼭 필요하다. 바이러스, 박테리아, 각종 변원체와 싸울 수 있게 강력한 면역 체계가 필요한 때"라며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단과 함께 쟁길 게 칼슘이다. 편리하게 칼슘을 보충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간단히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을 내놨다. 미네랄을 보충하는 데도 '이신화 락틱애씨드 칼슘 골드'가 좋다"고 했다. 김세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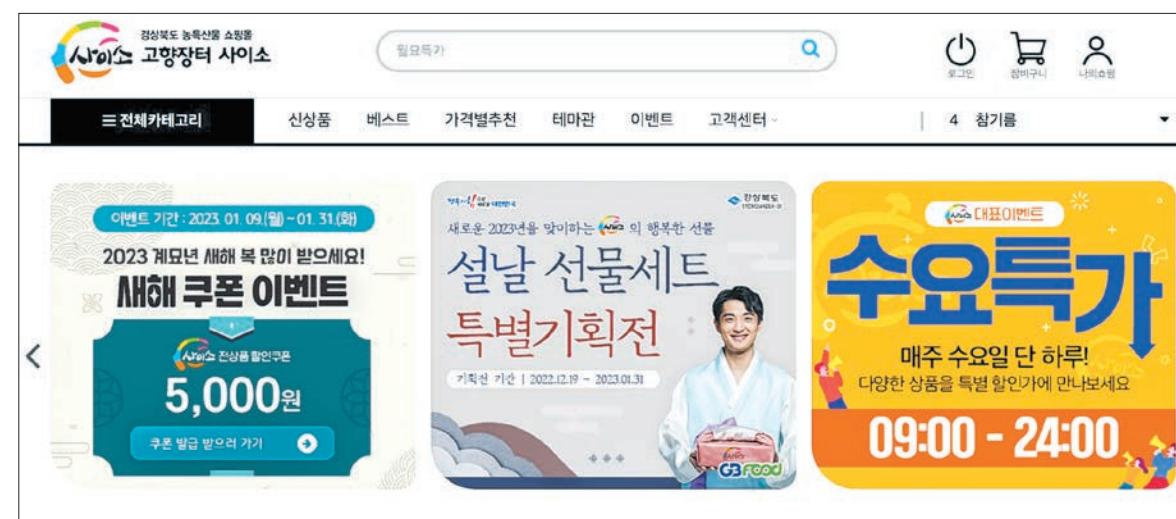
경북 1700여 농가 1만여종 농식품, 한 곳에서 골라 사이소~



쇼핑몰 '사이소' 농·특산물 풍성
이달 말까지 할인 쿠폰 4종 제공

경상북도 대표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사이소'가 명절 선물을 쇼핑하기 좋은 플랫폼으로 자리잡고 있다. 안동 '하회탕'이나 신라 '천년의 미소'를 담은 떡과에다, 이름 또한 경상북도 느낌이 물씬 나는 '사이소'('사세오')의 경상도 사투리는 2007년 4월 문을 열었다.

경북 1천700여 농가 및 농식품업체에서 생산하는 1만여 종 농식품을 판매한다. 친환경 인증 농산물, 경북 우수 농산물, 6차 산업 인증제품 등 각종 인증제품관, 전통주 특별관, 통합과수브랜드 데일리관 등 다양한 기획관이 있다.



사이소 홈페이지 갈무리

설날·추석 명절 선물세트 기획전, 가정의 달 특판전, 매주 수요(일) 특가 이벤트 등 시기별·테마별 이벤트로 고객을 모으고 있다. 올해 설 선물세트 기획전 경우

이달 말까지 회원을 대상으로 '설 선물 할인 쿠폰' 4종을 각 1천장 씩 모두 4천장 나눠주며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

일반 소비자 인지도가 높은 우체국쇼핑몰, 네이버, 카카오톡, SSG닷컴, 11번가, 롯데온, 쿠팡 등과도 제휴해 소비자 판매 경로를 확대해 왔다.

'사이소 모바일 쇼핑몰'을 구축하고 제로페이와 N페이를 도입하는 등 온라인 쇼핑몰 환경 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자체 쇼핑몰 최초로 적립포인트 제도를 도입, 지속적인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 메타버스 플랫폼에 '제페토 사이소월드'를 개설해 '메타버스 수도 경북' 입지도 키운다.

사이소는 오픈 첫해인 2007년 매출액 1억9천만원에서 2022년 389억원으로 200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회원도 2천500여 명에서 8만여 명으로 늘었다.

경북도는 사이소를 통해 농업인 소득을 늘리고 생산자와 소비자, 농촌과 도시를 이어줄 방침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고향사랑 기부제" 담배품으로 사이소 상품권을 제공해 매출 확대를 꾀하고 비교적 취약하던 수산물·수산식품 입점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준현 기자 hjh@imaeil.com

100% 사탕수수 포장지, 가치 소비 선도



자연 생분해 되는 햄퍼박스
감각적 디자인 더해 특별함



신세계백화점이 설을 맞아 친환경 선물세트를 기획, '제로 웨이스트' 백화점으로 도약 중이다.

신세계백화점 제공

신세계백화점이 친환경 패키지를 확대하면서 이번 설, 제품이 재사용될 수 있도록 해 폐기물을 방지하는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실천에 앞장선다.

신세계는 설을 맞이해 100% 사탕수수로 제작, 자연 생분해되는 햄퍼박스를 선보인다. 와인부터 신선, 가공식품까지 식품관의 모든 상품을 고객이 취향껏 포장할 수 있는 박스로 신세계 디자인팀이 직접 제작에 참여, 친환경 소비 실천은 물론 디자인의 특별함까지 더했다. 전 점포 식품관 내에서 구매 후 직접 포장할 수 있다. 가격은 3만원.

신세계백화점은 재생 소재와 재활용 가능율을 높인 포장재를 사용한다. 한우, 과일 등 선물세트 전체의 85%를 재사용이 가능한 친환경 선물세트로 기획했다.

전 점포에서 종이로 만든 과일 바구니를 만나볼 수 있다. 평소엔 가벼운 손가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용성에다 감각적 디자인을 더했다. 사과, 배 등 과일 선물세트와 와인을 담는 종이 박스를 제작했다. 축산과 수산 선물세트를 담는 친환경 보냉백도 확대 도입한다. 2021년 추석, 업계 최초로 페페트병을 재활용해 선보인 친환경 보냉백을 기준 75%에서 전 상품(100%)으로 확대 도입했다.

'제로 웨이스트' 백화점으로 도약 중인 신세계는 업계 최초로 종이 전단지(2011년)와 쇼핑백(DM, 2016년)를 없애고, 전자영수증을 도입(2017년)했다. 2020년에는 연간 약 2천400만장이 사용되던 비닐봉투를 없앴다.

최원준 신세계백화점 식품담당은 "선물 수요가 많은 시기에 맞춰 지속 가능한 소비 문화를 고객에게 알리기 위해 친환경 패키지를 확대 도입하게 됐다"고 했다.

정은빈 기자 bean@imaeil.com

100만원 이상 '초프리미엄' 한우 날개



프랑스 5대 와인 컬렉션 세트
특대만 선별·염장 명품 참굴비



더현대대구가 가성비와 가치를 모두 잡는 설 선물세트를 선보인다.

더현대대구 제공

더현대대구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첫 설을 맞아 20일까지 설 선물세트 판매에 돌입했다. 실속을 찾는 소비자와 고급 선물을 찾는 소비자가 함께 늘고 있어 '가심비, 가성비 투트랙 전략'으로 고객을 동시에 잡겠다는 구상이다.

Tasty Daegu(B1)식품관과 온라인몰인 더현대닷컴·현대식품관 투홈·현대H몰에서 '설 선물세트 본 판매'를 진행한다. 지난 추석 선물세트 판매 기간 선보인 100만원 이상 초(超)프리미엄 한우 선물세트는 대부분 상품이 조기 완판되는 등 프리미엄 선물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수요에 맞춰 더현대대구는 명절 대표 프리미엄 선물로 불리는 한우 선물세트를 역대 최대 물량인 1만5천세트 가량 선보인다. 100만원 이상 초프리미엄 선물세트 물량은 지난해보다 50% 늘리고, 품목 수도 기존 40종에서 80종으로 늘렸다. 최고가 한우 세트로 1++등급 한우 중에서도 마블링 최고 등급(No.9)만 사용한 '현대명품 한우 넘버나인(250만원)'이 대표적이다.

증가하는 와인 수요에 맞춰 초프리미엄 와인 컬렉션 세트도 선보인다. 프랑스 5대 와인인 샤토 무통로칠드 버티컬(5병, 1천만원), 샤토 오브리옹 버티컬(5병, 800만원) 등 20여 종의 프리미엄 세트가 준비돼 있다.

수산물 세트 경우 특대 크기 최상위 등급 참조기민을 선별해 전통 섭간 방식으로 염장한 '현대명품 참굴비 10마리 수(秀)세트(350만원, 35cm 이상)'와 마리당 1.6kg 이상인 특대 크기만 선별한 '현대명품 특대갈치세트(65만원, 5.6kg)' 등이 있다. 또 명절 대표 과일인 사과, 배는 물론 최근 새로운 흐름으로 떠오른 프리미엄 디저트 선물세트 물량도 지난해보다 50% 이상 확대해 내놓는다.

정은빈 기자

품평회 거친 최고의 상품만 고집



5만원 실속형 '굿프라이스'
지역 친화 '로컬 그린푸드'



대백프라자가 맞춤형 설 선물세트로 실속과 가치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섰다. 대구백화점 제공

한우 등급 올리고~ 청과 당도 올리고~



한우 1+ 이상 품목 40% 늘려
사과·배 등 달콤함 10% 높여



롯데백화점 대구점과 상인점이 설 명절을 맞아 다양한 선물세트를 마련 했다.

롯데백화점 제공

대구 롯데백화점(대구점, 상인점)이 설 명절을 맞아 20일까지 본격적인 선물세트 본 판매에 나선다.

롯데 백화점은 이번 설은 지난 설보다도 직접 고향을 찾는 귀성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프리미엄' 선물에 대한 수요가 더욱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프리미엄 명절 선물로 꼽히는 '한우' 세트 경우 2022년 추석에 판매된 매출이 2021년 추석 때보다 20% 이상 증가했다. 이에 대구지역 롯데백화점은 주요 선물 카테고리별 프리미엄 상품을 더욱 강화하면서 가치소비 흐름에 맞는 친환경 콘텐츠도 다양하게 준비했다.

먼저 한우 등급과 청과 당도를 상향하고 인증 수산물을 확대 도입하는 등 선물의 품질을 더욱 높였다. 지난해 판매된 전체 한우 선물세트 중 1+ 등급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70%로 코로나19 사태 이전(2019년) 대비 약 30%포인트 증가한 점을 감안해 올해는 1+ 등급 이상의 프리미엄 한우 선물 세트 품목 수를 40% 이상 늘렸다.

대표 상품은 ▷안성맞춤 한우 구이용 업선 세트(129만5천원) ▷의성마늘한우 프레스티지 4호 세트(110만원) ▷안성맞춤한우 로얄 GIFT(57만원) ▷의성마늘한우 프레스티지 7호 세트(75만원) 등이 있다. 또한 청과 선물 세트는 ▷프레스티지 샐러드·사과·배 GIFT(18만 5천원) ▷푸드에비뉴 특선 한라봉·사과·배 GIFT(14만원) 등으로 과일의 평균 당도를 기준보다 약 10% 높여 선물세트의 품격을 더욱 높였다.

특히 지난 추석 때 처음으로 도입해 큰 호응을 얻었던 '보냉가방 회수' 친환경 프로모션은 '곶감'과 '정육' 세트뿐 아니라 '선어' 선물세트로까지 확대해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지역별 특화 상품 및 매장 미입점 상품에 대한 구매도 상담을 통해 언제든지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정은빈 기자

대백프라자가 설을 맞아 선물의 고급화와 중저가 확대를 통한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시행한다.

고급품으로 개발된 '더 프라임(The-PRIME)', 지역친화 선물상품으로 선보이는 '로컬 그린푸드', 5만원 이하 실속형 가격 만족 선물 상품인 '굿프라이스(Good Price)' 등을 기획해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안했다.

대백프라자가 이번 설 명절을 준비하는 마음은 남다르다. 지역 백화점 중에서는 유일하게 명절 선물 상품 품평회를 진행, 과일부터 정육, 수산물 등에서 최고의 상품을 고집한다. 유일하게 남은 지역 백화점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대백프라자의 대표 명절 인기 선물은 청과와 정육이다. 최고의 품질을 지향하는 대백프라자의 고유한 청과·브랜드 '아름다운 과수원'은 더프라임 사과·배세트를 13~15만원, 더프라임 샐러드·마늘·제주향기세트를 10~11만원에 판매한다. 정육 분야에서는 안창살, 업진살, 제비추리 등 한우 특수부위로 이뤄진 '더 프라임 한우 특별한 구이세트'(150만원)를 비롯해 즐거운 명절 기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20~30만 원대의 짐용 갈비 선물세트를 준비했다.

대백프라자 설탕회 식품팀장은 "매장에서 만난 고객으로부터 명절 선물의 질이 정말 좋다는 얘기를 듣는 게 고객에게서 듣는 최고의 새해 덕담"이라며 "이번 설 명절에도 고객들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고 했다.

한편 대구백화점은 2023년 새해를 맞이해 직원 참여형 사회기부 프로그램 '대백 한마음 플리마켓'을 9일 대백프라자 12층 문화센터에서 진행했다. 1998년 시작된 이후 올해까지 26년째 지속해온 행사다. 마련된 성금은 지역 내 사회복지사업과 저소득 가정 지원을 위해 사용한다.

정은빈 기자

굴비도 생필품도 지갑 걱정마세요

이마트&홈플러스

고물가에 지친 고객들 위해
가격 동결·최저가 구매 보장



이마트는 오는 22일까지 굴비 선물세트를 지난 명절 가격으로 판매한다. 이마트 제공

고물가가 행진이 지속되면서 대형마트는 제각각 가격 경쟁력을 내세우며 소비심리를 끌어올리는 데 주력하는 분위기다.

먼저 이마트는 이번 설 굴비 선물세트 판매가 동결을 결정했다. 이마트는 오는 22일까지 굴비 선물세트를 지난 명절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밝혔다. 굴비 원재료인 참조기 산지 시세는 지난해 10월 급등한 상황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1월 참조기 어획량은 2021년 같은 기간보다 40%, 25% 각각 줄었다. 이 기간 참조기 산지 시세는 15.2%, 20.8% 올랐다. 더해서 이마트는 제주 대왕갈치, 옥돔, 금태 등으로 구성한 인기 프리미엄 세트 판매가도 동결했다.

이상훈 이마트 수산물세트 담당 바이어는 “프리미엄 세트 수요를 고려해 고급 어종으로 구성한 선물세트 가격 역시 동결해 선택 폭을 넓혔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할인 혜택과 PB(자체 상표) 상품으로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는 물가 안정 프로젝트를 이어간다. 이른바 ‘2023 위풍당당 프로젝트’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물가안정 프로젝트’를 전개해 수요가 높은 먹거리, 생필품 등을 최저가로 선보였다. 적용 품목은 행사를 시작한 지난해 2월 우유, 두부, 계란, 콩나물 등 12개 품목에서 연말 41개로 확대했다. 또 홈플러스는 빅데이터 기술로 ‘AI 최저가격’ 상품을 선정하고, 이를 상품을 매장에서 이마트를 가격보다 비싸게 구매하면 차액 만큼 포인트 ‘홈플러니’를 적립해 주는 ‘물가안정 최저가 보상제’를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조도연 홈플러스 브랜드본부장은 “고물가·고금리에 지친 고객을 응원하기 위해 위풍당당 프로젝트를 연중 전개할 방침이다”고 했다.

정은빈 기자 bean@maeil.com

1+등급 85%…한우 최대 20% 저렴

(주)민속

군위군에 있는 (주)민속은 친한우 사육부터 도축·가공·유통 시스템을 갖춘 국내 최대 축산 전문 기업이다.

민속그룹은 ▷농업회사법인으로 판매 인터넷 쇼핑 전문회사인 (주)민속친한우 ▷도축·가공 전문 법인(주)민속엘피시 ▷가공, 한우 유통 전문 (주)민속한우 ▷한우 사료 텁텁 무역 전문인 (주)우호카마스 ▷식당 (주)민속한우갈비 등이 있다.

민속은 경북 북부지역에 있는 직영 및 위탁농장 50여 곳에서 한우를 사육해 도축 및 가공을 하고, 이를 자체 물류시스템을 통해 국내 대형 유통업체와 생협, 육가공회사, 식육점, 식당 등에 공급한다. 해외시장도 개척, 홍콩에도 수출되고 있다.

2019년에는 자체 브랜드인 ‘민속친한우’를 설립했다. ‘민속친한우’는 시중에 유통되는 일반 한우보다 유통 단계를 대폭 줄인 데다 최상의 신선도와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가격 경쟁력까지 갖춘 최고급 한우다. 1등급 90% 이상, 1+는 85%에 달하는 등 품질의 상향 평준화를 이루면서도 같은 등급의 한우라면 소매가 기준으로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20%까지 저렴하다.

‘민속친한우’는 (사)소비자시민모임이 주관한 우수축산물인증위원회로부터 2년 연속 ‘우수 축산물 브랜드’로 선정됐다. 우수 축산물 브랜드는 전문평가단이 품질, 위생, 안전성, 브랜드 관리 등을 심사해 선정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상이다.

지난해에는 ‘민속친한우’가 생산되는 도축·가공 전문회사인 (주)민속엘피시에 20억을 투자해 도축 라인 시설을 교체했다. 이런 투자에 힘입어 (주)민속한우는 농장 부문에서 2022년 HACCP 우수 작업장상을, (주)민속엘피씨는 2022 소비자가 뽑은 베스트 도축장 우수상을 수상했다.

권혁수 (주)민속 대표는 “품질에 있어서는 어디 내놔도 자신이 있다”며 “앞으로 ‘민속친한우’를 대한민국 최고의 한우 브랜드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이희대 기자 hdelee11@maeil.com

2년 연속 우수 축산브랜드 최상 신선도·품질 자랑거리



민속친한우

전국 최고 품질 경산대추로 면역력 강화

경산시

경북 경산시는 온라인 공식 쇼핑몰인 ‘경산몰(gsmall.cysco.co.kr)’을 통해 소비자들이 신선하고 맛있는 먹거리를 정직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경산몰은 유통단계 없이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직거래 장터다.

설명절 차례상이나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면 ‘경산몰’을 방문해 보자. 경산몰에는 쌀과 잡곡, 과일류, 재소류, 축산물, 가공식품(과일즙, 원액·청·음료등), 꿀·홍삼, 김치·장류·참기름, 한과·떡·빵류, 전통주 등 600개 이상의 농특산물 및 가공품을 판매하고 있다. 차례상과 명절 선물로 손색 없는 우수한 지역의 농특산물들을 판매한다.

전국 최대 생산량과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경산대추는 풍부한 일조량으로 알이 굽고 당도와 무기질이 풍부하다.

대추는 영양가가 풍부한 건강식품이다. 대추에 함유된 비타민과 플라보노이드, 베타카로틴 성분은 노화 방지와 항암 효과가 있다. 숙면과 신경 안정에 도움이 된다. 대추를 먹으면 몸이 따뜻해지고 체온이 상승해 소화 기능과 면역력이 강화된다.

현재 경산몰에서는 주로 견대추와 대추로 가공한 대추차, 슬라이스 등을 판매하고 있다.

경산몰에서는 이달 30일까지(예산소진시 까지) 2023 설맞이 전품목 30% 할인 이벤트와 신규 가입회원에게는 5천원 쿠폰발급(선착순1천명) 이벤트를 진행한다.

다만 이 쿠폰은 1만5천원 이상 구매시 사용 가능하고 사용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다.

경산시는 오는 19,20일 시청 주차장에서 사과, 배, 만감류 등 과일과 버섯류, 장류, 가공식품 등 59개 품목을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설맞이 농·특산물 판매전을 연다.

김진만 기자 factk@maeil.com

차·슬라이스 가공품도 차례상·선물 저렴하게



경산 대추

현재 경산몰에서는 주로 견대추와 대추로 가공한 대추차, 슬라이스 등을 판매하고 있다.

경산몰에서는 이달 30일까지(예산소진시 까지) 2023 설맞이 전품목 30% 할인 이벤트와 신규 가입회원에게는 5천원 쿠폰발급(선착순1천명) 이벤트를 진행한다.

다만 이 쿠폰은 1만5천원 이상 구매시 사용 가능하고 사용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다.

경산시는 오는 19,20일 시청 주차장에서 사과, 배, 만감류 등 과일과 버섯류, 장류, 가공식품 등 59개 품목을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설맞이 농·특산물 판매전을 연다.

김진만 기자 factk@maeil.com

10+1·모두 무료배송…많이 살수록 이득

구미시

경북 구미시는 설을 앞두고 온라인 공식 쇼핑몰인 ‘구미팜’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눈과 입이 즐거운 건강 먹거리를 실속있는 가격으로 풍성하게 제공한다.

구미 대표 농·특산물쇼핑몰 구미팜은 20일까지 설 맞이 할인 이벤트를 갖고 우량의 구미 농특산물들을 판매할 예정이다. ‘구미는 산업도시라서 특산물이 없다’는 오해를 불식 시키듯 구미팜에는 쌀·잡곡, 과일·과채, 채소·버섯, 가공·장류, 건강식품, 정육 등이 있어 폭넓게 명절 선물을 고를 수 있다.

판매 품목은 합쌀 같이 담백하고 차진 밥맛이 나는 ‘일선정품’ 쌀, 제초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조생 재배한 신고배, 사과, 골든기위 등이 있다. 또한 깨끗한 물에서 수경재배한 뿌리채 배송되는 채소, 친환경 무농약으로 재배된 표고버섯 등이 있으며 자연 백련 연잎을 담은 연잎차, 목장에서 아침에 짠 1등급 우유로 만든 요구르트, 건강보조식품인 사과즙과 홍삼액스, 아카시아 꿀 등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다.

구미시는 설 맞이 행사로 ‘구미팜’을 통해 1만원 이상 구매시 2천원, 3만원 이상 구매시 5천원 상당의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 또한, 10여개 업체 품목에 한해서는 10%할인 및 ‘10+1’ 행사도 함께 진행, 대량 구매시 유익하다. 특히 구미팜을 통해 구매하는 모든 상품은 무료배송이다.

설 명절 이후에는 온라인 쇼핑몰 뿐만 아니라 금오산 일대에 구미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의 직거래도 가능해질 예정이다. 구미시는 19억원을 투입해 구미 금오산도립공원 대주차장 예갤러리 옆 부지에 연면적 566.9m², 2층 규모의 ‘구미 로컬푸드 직매장 금오산점’을 오는 4월에 개장한다.

지난해에 직매장 출하농가 조직화를 위해 출하농가 인증제도를 실시했고, 430여 농가는 농산물 안전성 교육을 이수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새해 설 명절 선물은 우수한 구미 농특산물들이 많이 입점해 있는 구미팜을 통해 실속있는 가격으로 행복과 진심을 전달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광 기자 kwang623@maeil.com

농특산물 온라인몰 ‘구미팜’ 1만원 이상 구매 할인쿠폰



구미시는 구미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불 필요한 유통과정 없이 온라인 공식 판매처 구미팜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우직하고 뚝심있는 한우, 상표도 등록

김천시

경북 김천시의 자체 한우 브랜드 ‘우뚝’은 공기 좋고, 물 좋은 김천의 자연 속에서 자라고 인정받은 1등급 이상 한우에만 허락된 프리미엄 한우브랜드다. 육질등급 1+ 이상 등급 출현율 51.8%로 전국평균 보다 높은 명품 한우다.

김천 한우 ‘우뚝’은 우수한 유품질을 타고난 암소와 최상의 보증 씨수소의 뛰어난 우량 품질을 이어받고, 겸증된 고품질 사료와 양질의 건초만을 먹여 높은 등급의 육질 좋은 한우로 최고의 품질과 최고의 맛을 보장한다.

또 김천 한우 ‘우뚝’을 위한 전용 동물병원 운영과 무항생제 사료공급, 친환경 및 HACCP 인증제, 청결하고 깨끗한 사육환경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만들어 가고 있다.

더불어 김천 한우 전자경매 시장 운영으로 우수한 개량형질의 소를 확보해 출생부터 도축까지 직접 관리·감독하고 런던통 관리와 이력제 시스템을 통한 철저한 관리로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다.

‘우뚝’은 ‘우직하고 뚝심 있게 최고의 자리에 도달하여 대한민국 명품한우로 우뚝 솟아나라!’는 의미로 공기 좋고 물 맑은 삼산이수의 고장 김천 한우만의 특성을 담은 상표다.

김천시는 지난 2020년 한우 브랜드 개발 용역을 끝내고 2021년 3월 특허청에 ‘김천 한우 우뚝’을 출원했으며 같은 해 9월 29일 상표등록을 마쳤다.

김천 한우 ‘우뚝’은 김천 지역에서 혈통(고등 포함) 등록된 한우로 지역 내 사육장에 16개월 이상을 사육하고 1등급 이상의 한우에게만 붙여지는 브랜드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김천한우의 품질 우수성을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지역 브랜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적 체인망을 갖춘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통한 유통을 진행하면서 서울과 수도권 소재 김천한우브랜드 전문판매장 설립해 전국 최고 한우브랜드로 만들겠다”고 했다.

신현일 기자 hyunil@maeil.com

1+이상 등급 출현율 51.8% 지역 혈통 우수한우만 판매



김천한우 우뚝

찰떡 양쪽에 고물 듬뿍 ‘엄마 손맛’

안동 버버리찰떡

100년 전통의 ‘안동 버버리찰떡’(www.buburi.com)은 전국적인 먹거리로 자리 잡고 있다. 수작업으로 직접 만들기 때문에 어머니의 정성과 손맛이 고스란히 배어 있다. 버버리찰떡은 고두밥으로 찐 찹쌀을 떡메로 쳐 찰떡을 만들고 정성껏 고물을 묻히거나 깔아둔다. 찰떡 1개당 무게는 80g 정도. 세 번 정도로 베어먹기 좋도록 만들어 낸다. 40g 정도의 찰떡에다 10g의 고물을 밑에 깔고 30g의 고물을 위에다 얹어 낸다.

오랜 세월 숙련된 손으로 만들어 내기에 떡이 들쭉날쭉하지 않고 가지런하다. 버버리찰떡은 1922년 안동에 처음 등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2001년 한 차례 명맥이 끊어졌다가 2004년 들어 새롭게 부활했다.

이 떡은 일제시대 때부터 안동지역 인근에서 새벽에 출발해 안동장으로 몰려들었던 장꾼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었던 한끼 대용식이었다.

안동지방 전통한례에도 등장한다. 페백 때 며느리를 덜 나무라라는 뜻에서 ‘버버리 찰떡’을 사다 시어머니 입에다 얹기로 물리는 풍습은 아직도 안동에서 이어진다.

이렇게 명맥이 끊겼던 버버리 찰떡은 2004년 10월 ‘안동 버버리 찰떡’(대표 이보랑)으로 다시 살아났다. 이 대표와 남편 신현서씨는 옛날 버버리 찰떡을 만들어 팔았던 할머니들을 찾아 비법을 배우고 현대화해 상품화시켰다. 제조 방식은 기피(팥 껌질 벗기기)와 포장을 제외하고 대부분 전통 방식 그대로 수작업을 고집하고 있다. 떡메치기와 베무리기, 고물 압기와 떡 만들기 등 일련의 과정을 옛 그대로 재현, 할머니들의 손맛을 이어가려고 애쓰고 있다. 상품은 50개들이 1 세트에 6만5천원, 70개들이 8만9천원, 100개들이 12만5천원, 150개들이 18만4천원에 판매된다.

임재진 기자 jinee@maeil.com

1개당 80g 세 번 베어먹기 한끼 식사로도 안성맞춤



안동 버버리 찰떡이 100년 전통을 이어가면서 국민 먹거리로 자리잡고 있다. 매일신문 DB

시·군 최초 스마트 HACCP 안전 먹거리

달성군

대구 달성군 농·특산물 핵심 브랜드 ‘참달성’은 2006년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참달성 쇼핑몰’을 구축해 277명의 조합원이 참여하고 있다. 쌀, 칩쌀, 한우 및 농산물 가공 제품 등 70여종의 다양한 달성군 농·특산물을 판매. 매년 20% 이상 높은 신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 2021년에는 52억원의 판매고를 올려 누적매출액 200억원을 돌파했다.

‘참달성 쇼핑몰’은 롯데닷컴, 네이버마트스토어 등 온라인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농협하나로마트 달성유통센터를 비롯해 성서점, 지역 로컬푸드, 송해기념관 판매장 등 오프라인 판매망을 확대 중이다.

달성군 농산물가공의 또 다른 핵심 브랜드 ‘마스터파미’는 2018년 6명의 농업인이 가공 법인을 설립한 이래 2022년까지 총 59명의 농업인이 가공창업에 참여하고 있다.

2019년 2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후 2천900만원의 매출을 시작으로 지난해 1억9천만원 등 농산물 가공을 통한 소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는 건강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해 2020년 5월 HACCP 인증을 취득했고, 2022년에는 전국 시·군 최초로 스마트 HACCP를 인증 받아 안전한 먹거리 생산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마스터파미’는 지역 로컬푸드 및 농협유통센터,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등을 비롯 인터넷쇼핑몰, 서울 상생상회 등 전국적으로 가공제품 판매를 활성화하고 있다. 특히 롯데백화점 대구점 입점과 온라인 쇼핑몰 판매를 통해 매출을 향상시키고 있다. 2022년에는 신세계백화점 대구점도 입점해 달성 농·특산물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다.

앞으로도 참달성 쇼핑몰과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는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 및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지속적인 상품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정육진 기자 penchok@maeil.com

참달성, 판매망 본격 확대 마스터파미, 백화점 입점

홍도라지 조청으로 ‘목 건강’ 선물

봉화군

봉화군 공식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인 ‘봉화장터’가 설맞이 농특산물 특별 할인행사에 나선다. 봉화장터는 24일까지 전상품을 대상으로 3만원이상, 5만원이상 구매 시 각 7천500원, 1만2천500원의 쿠폰을 지급한다. 10만원 이상 구매 시 25% 할인이 적용된다. 또 신규회원 가입시 5천원 쿠폰도 지급한다. 쿠폰은 결제 시 자동 적용되며 1인당 1일 1회, 최대 50만 원까지 할인된다.

봉화장터는 2007년 다양한 소비처 확대와 판로확대를 통해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돼 운영되고 있는 봉화지역 대표 온라인 쇼핑몰이다.

이번 할인행사는 봉화에서 생산된 농·특산물 77개 품목을 선보인다. 명절 선물세트 상품도 판매한다. 현재 봉화장터에는 92개의 업체가 입점해 지역에서 생산된 잡곡과 사과, 송이, 한우, 장류, 참기름 등 다양한 농특산물을 판매하고 있다.

봉화지역 대표 농산물인 ‘봉화사과’는 씨앗 주위에 노란색 꿀 층이 있어 속침 꿀과과로 불린다. 공기가 맑고 밤낮 기온 차가 큰 고랭지에서 자라 육질이 단단하고 당도가 높은데다 색깔이 선명해 소비자들의 인기가 높다. 3kg, 5kg, 10kg, 15kg, 고급선물세트로 나눠 판매한다.

기관지와 호흡기에 탁월한 효능을 자랑하는 ‘도라지 조청’도 설 선물로는 안성맞춤이다. 봉화장터에서 지난해 매출 3위를 기록할 만큼

큼 효가가 입증된 인기 상품. 조기 품절이 우려된다.

다. 합리적 소비를 위해서는 예약 주문도 가능 봉화에

서 재배한 참깨·들깨로 정성껏 짠 ‘참기름과 들기름’도 설 선물로 준비중이다. 손으로 여벌 세척 과정을 거쳐 불순물을 최대한 걷어내 생산했다. 깔끔한 맛이 특징이다. 세트 구성이라 선물용으로 좋다.

소비자들이 믿고 찾는 봉화장터의 농특산물은 농가 직배송 시스템을 통해 빠르고 안전하게 구매가 가능하다. 봉화군 관계자는 “코로나와 물가상승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는 소비자들에게 설 선물용으로 최고의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어 장바구니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다”고 말했다.

장터 할인쿠폰 대방출 92개 업체 품목도 다양



마경대 기자 kdma@maeil.com

‘백진주 쌀’ 서두르지 않으면 품절

안동농협의 경영방침은 ‘경’(敬)이다. 진실된 마음으로 작은 일에도 지극한 정성을 다한다는 의미다.

안동농협은 대표 상품으로 ‘밥이 다르다 백진주 쌀’을 판매하고 있다. ‘안동생명 콩두부’, ‘생강이 다르다 명품안동생강’, ‘하이진저’, ‘하이진저 레몬생강청’, ‘아이풀 사과’, ‘미강마스크팩’, ‘헴프씨드’, ‘헴프씨드 오일’, ‘단백한 험프씨 단백질바’ 등 상품을 개발해 판매하고 있다.

대표 상품인 ‘백진주 쌀’은 서두르지 않으면 구입할 수 없는 품절 대란 상품이다. 2002년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품종으로 2011년 전국 최초 약정조합원 제도 도입으로 관리, 안정성을 확보했다. 2016년에는 ‘밥맛이 남다른 미스 토리야’를 수상하기도 했다.

‘안동생명콩두부’는 콩으로 만드는 건강한 세상, 우리농산물의 가치를 높여 농업인의 땀과 정성의 가치를 보장한다는 의미를 담아 가공, 생산해내고 있다. 100% 안동생명콩을 원료로 사용하고, 잔류 농약검사와 GMO 분석등을 통한 안전한 제품이다. 온두부제조방식으로 두부전통의 맛을 유지해 전통식품 품질인증, HACCP증정으로 더욱 위생적이고 안전한 제품이다.

‘하이진저’는 안동농협의 주력 농산물인 명품 안동생강을 가공한 음료다. 70Kcal(1병기준)의 저칼로리 음료로 ‘무알콜 하이엔드 진저비어’다. 맥주는 아니지만 맥주처럼 발효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비아라고 이름 붙였다. ‘하이진저 레몬생강청’은 ‘하이진저’의 베이스가 되는 생강청으로 아린 맛을 없애고 레몬을 더해 상큼하게 만들었다. 탄산과의 환상적 궁합에다 125kcal 저칼로리로 설탕을 줄인 건강한 생강청이다.

‘아이풀 사과’는 영국여왕과 영국왕실이 인정한 고품격 사과다. 1999년 영국 엘리자베스2세 여왕의 안동농협 공관장 방문을 기념해 만들었다.

제품 구입은 안동농협(<https://www.eandong.com>), 안동농협 인터넷쇼핑몰인 ‘경이로운 물’(<https://n-hwondermall.com>)에서 할 수 있다.

임재진 기자

안동농협

영국여왕이 인정한 사과 콩두부·생강음료도 주목



오미자·버섯·약돌한우 주문 쇄도

문경시

경북 문경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인 ‘문경사랑새재장터’ 특별 할인행사를 27일까지 진행한다.

또 새로 오픈한 쇼핑몰 ‘문경 새재의 아침’과 경북 농특산물 쇼핑몰 ‘사이소’ 통합 플랫폼구축을 기념하기 위한 설맞이 할인 이벤트도 31일까지 함께 진행한다.

문경 하면 떠오르는 오미자(전국 생산량 45%)와 사과(전국 생산량 6위)와 관련된 다양한 가공상품을 비롯해 약돌한우세트, 표고버섯 등 200종류의 우수한 농축산물을 평소보다 4~25%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문경새재의 아침은 전 상품 30% 할인해주며 신규 회원에게는 5천원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고물가로 어려운 시기에 생산자에게 판로의 기회를 주고 소비자들은 설 선물 부담을 덜어 주는 실속형 행사를 주목받고 있다.

문화특산품 최고의 온라인 직매장으로 자리 잡은 이 쇼핑몰 2곳은 농가와 생산현장을 방문해 확인하거나 인증기관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 건강한 먹거리를 내놓은 결과 지난해 약 39억원의 매출실적을 올려 전년 대비 15% 늘어난 성과를 내기도 했다.

설 선물용으로는 국내 최고 품질의 문경오미자로 만들어 새콤달콤하고 색깔까지 화려한 오미자청과 와인, 한과, 오미자김, 당도 높고 포장까지 예쁜 ‘백설공주’가 사랑한 문경사과즙·약돌한우세트 등의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 이외에도 문경사과와 증류주, 산양삼, 표고버섯, 송화고버섯, 맥화버섯, 아카시아꿀, 생강청, 곶감, 고랭지 덕장에서 맬린 황태포 등도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새재장터와 새재의 아침은 유통 단계가 없는 산지직송 서비스와 공모를 통해 결정한 세련된 포장과 빠른 배송도 장점이다. 5만원 이상 구입시 택배비는 무료다. 고도현 기자

곶감·한우 등 720개 모두 30% 할인

상주시

경북 최대 농업도시 상주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인 ‘명실상주몰’ 30% 할인전을 27일까지 진행한다.

상주 곶감(전국 생산량 60%)을 비롯해 한우, 쌀 등 720여개 전 품목에 걸쳐 30% 파격 할인 판매해 고물가로 어려운 시기에 설 선물 부담을 덜어 준다.

상주시 대한민국 최고의 농업도시다. 시설오이, 한우, 육계, 곶감, 쌀, 배, 양봉, 샤인마스켓 등 웬만한 농산물은 생산량과 품질 모두 전국 1, 2위를 오르내린다.

상주시가 보증하는 대표 브랜드 ‘명실상주’는 알려진 이름과 실제의 내용이 서로 꼭 맞는다는 의미의 명실 상부(名實相符)와 상주를 합성한 것으로, 최고 품질, 이름값하는 상주시를 나타낸다.

할인행사에선 명실상감한우 갈비세트, 곱탕, 곶감, 과일, 햄쌀, 사골, 유기농식품, 가공식품, 건강식품, 꿀, 칠세트, 전통주, 칩쌀 고추장, 수제식혜, 사과즙, 송화고버섯 등 720여개 전 품목이 대상이다.

할인행사 외에도 명실상주몰을 처음 이용하는 고객이 회원가입을 하면 5천원 할인쿠폰을 지급하는데, 즉시 사용이 가능하다(1만5천원 이상 구입시). 또 우수후기를 남기면 매주 5명을 추첨해 2만원의 할인쿠폰도 지급한다.

상주시는 ‘명실상주몰’을 이용하는 소비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매년 판매 상품의 철저한 품질 관리와 배송, 품목별 매출 분석 등 고객 응대와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박호진 상주시 유통마케팅과장은 “치솟은 물가를 고려해 명절 선물 부담은 덜고 마음은 풍족하도록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행복한 다양한 상품과 예쁜 포장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상주시는 ‘명실상주몰’ 입점 농가도 연중 모집하고 있다. 각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명실상주몰’을 검색하면 사이트로 이동된다.

상주시 유통마케팅과 명실상주몰 담당자(054-537-7508)에게 문의를 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고도현 기자 dory@maeil.com

전국 최고 당도와 식감 샤인머스켓

영천시

“설 명절 선물, 여기 다있어요!”

경북 영천시와 영천축협은 농특산물 쇼핑몰 별빛촌장터(01000.yc.go.kr)와 영천와인(www.ycwine.or.kr), 영천별빛한우(ycstarhanwoo.com)에서 설맞이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별빛촌장터는 영천시가 2002년 개설했다. ‘별이 많이 뜨는 맑은 지역에서 생산된 믿을 수 있는 농특산물 장터’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현재 170여 개 농가(업체)가 입점해 전국 최고 당도와 식감을 자랑하는 샤인머스켓, 사과 등 과일류와 함께 전통장류, 양념류, 양자·한방제품 등 640여 종의 우수 농특산물을 최대 20% 할인 가격에 판매한다.

또 경상북도 농특산물 쇼핑몰인 사이소와 통합플랫폼 구축을 통해 하나의 화면에서 다양한 상품 주문과 관리를 할 수 있다. 신규 가입 회원에게는 할인쿠폰을 발급하고 구입금액의 5%를 적립금으로 준다.

국내 최대 포도 주산지에서 생산된 영천와인은 연간 27만병을 생산하며 국내 와인시장의 30%를 점유하고 있다. 베를린와인트로피 등 국내·외 와인품평회에서 매년 수상자를 내며 품질도 인정받았다.

지역 10여 개 와이너리에서 생산하는 레드와인 10종, 화이트와인 13종, 로제와인 8종을 비롯한 50여 종의 와인을 20% 할인 가격에 제공한다.

영천별빛한우는 고기의 마블링이 별빛을 닮아 ‘최고의 맛이 쏟아진다’는 지역 한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며 경북 최고 품질의 한우로 각광받고 있다.

연간 1천두 이상의 출하(도축) 물량 중 △1+등급 28.6% △1+등급 36.7% △1등급 28.8%의 우수한 출현율을 기록하며 매년 100억원이 넘는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다.

한우 선물세트를 비롯해 사골곰탕, 고기곰탕 등 간편 파우치 형태의 상품을 최대 30% 할인 가격에 판매한다.

영천시 관계자는 “각종 선물과 제수용품 구입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우수한 농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했다.

640여종 최대 20% 할인 한우·와인도 특가 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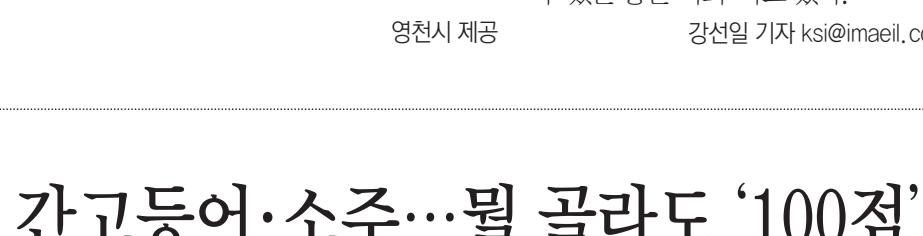


Young Cheon Wine

영천 와인.

영천시 제공

강선일 기자 ksl@maeil.com



간고등어·소주…뭘 골라도 ‘100점’

안동시

안동 청정 자연의 신선한 숨결을 머금은 농·축·특산물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청탁금지법이 일부 개정돼 농축산물에 한해 20만 원까지 선물이 가능해지며 선물세트 판매에 탄력이 붙었다.

안동 특산품 쇼핑몰인 ‘안동장터’(https://andongjiang.andong.gr.kr)는 설 맞이 2~15%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안동한우’는 특유의 깊은 맛을 간직하면서도 부드러운 식감을 자랑한다. 2022 국가소비자중심 브랜드 대상을 비롯한 각종 평가에서 최고의 품질로 인정받았다. ‘안동한우’는 양질의 사료로 평균 30개월, 800kg 이상의 소만 출하한다.

안동소주는 대한민국 대표 전통주로 위상을 굳건히 하고 있다. 안동소주는 최근 전통주 트렌드를 주도하는 MZ세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장해가며 매출이 상승 흐름에 있다. 안동264와인은 ‘베를린 와인 트로피’ 금상을 수상하며 타월한 맛과 우수한 품질을 국제적으로 공인 받으며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안동사과는 비옥한 토질과 큰 일교차, 풍부한 일조량때문에 당도가 높고 과즙이 풍부하며 식감이 우수하다. 2018년부터 매년 엘리자베스 2세 영국여왕의 생일상에 오르며 높은 품질과 맛을 인정받고 있다.

안동간고등어는 단일 생선 브랜드로는 독보적인 브랜드 가치를 쌓아왔다. 산악온산에서 나는 장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몸에 보약이다. 안동의 800여 농가가 연간

시 쇼핑몰 ‘안동장터’ 등록상품만 3,930개



설 명절을 앞두고 안동지역 농특산품 쇼핑몰인 ‘사이버 안동장터’에서는 2~15%의 할인행사에 나서고 있다.

7천 톤, 전국 산야 생산량의 약 70%를 생산한다.

안동생강을 활용한 가공품도 큰 인기다. 최근 미식의 본고장인 프랑스 파리의 명품 백화점에 납품되어 고급 식자재로 입지를 다지고 있다. 안동은 경북 지역 최대 생강 주산지로서, 생강알이 굵고 단단하며 향이 깊은 최고 품질의 생강을 생산하고 있다.

안동시 대표 농·축 특산물 쇼핑몰인 ‘사이버 안동장터’는 안동에서 생산되는 110여 가지 농·축·특산물을 산지가로 직거래하는 믿을 수 있는 온라인 쇼핑몰이다. 안동시가 2004년 4월 구축한 등록상품이 3천930여개 이른다.

매일신문 DB
엄재진 기자 jinee@maeil.com

‘1등 품질’ 영양사과·버섯·꽃차

경북 영양군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영양온심마켓’에서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영양지역의 특산물을 한자리에 모았다.

영양지역은 일교차가 크고 지대가 높은 곳이 많아 이곳 특산물은 식감과 당도가 좋은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

영양온심마켓에서 인기를 끄는 설 선물로 영양사과와 버섯, 꽃차 등이 있다. 영양온심마켓에서는 여려 농가의 영양사과가 판매되고 있지만, 고급 설 선물로는 두아농장(F&S)이 출하하는 ‘범등사과’가 유명하다. 두아농장은 영양지역 해발 450m 고랭지에서 화학비료와 제초제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단맛과 새콤한 맛의 어우러짐이 일품인 ‘로열풀종 미안마 부사’를 재배하고 있다. 범등사과는 이런 사과 중에 크고 상처 없이 자란 특품만 선별해 붙이는 고급 브랜드다.

여성농부 박영희 씨가 재배하는 ‘착한송이버섯’도 눈여겨볼 만 하다. 착한송이버섯은 송이버섯과 표고버섯의 장점이 합쳐져 쫄깃한 식감과 향이 일품인 버섯 품종이다. 줄기까지 먹을 수 있다는 특징과 특유의 맛과 향으로 저렴하게 고급 버섯 요리를 즐길 수 있다.

추운 계절날 눈과 코, 입까지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꽃차도 영양온심마켓의 인기 품목 중 하나다. 꽃차 소믈리에이자 약선차 지도사인 윤동희 대표가 직접 재배하는 ‘송이꽃 꽃차’는 종류도 다양하다. 구

절초, 국화, 당아우, 맨드라미, 메리끌드, 백목련, 벚꽃, 장미, 팬지 등 종류만 9가지다. 각 꽃차들은 색깔과 향, 효능까지 각각이라 선물 받는 이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우리 영양군은 지역 내 특산물이 좀 더 좋은 품질로 재배되고 출하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양군

큰 일교차 높은 지대 식감·당도 특히 좋아



영양 두아농원에서 재배·출하되는 범등사과 브랜드의 모습.

영양군 제공

‘달콤 아삭’ 올해 첫 참외 어때요?

성주군

달콤하고 아삭아삭한 경북 ‘성주 참외’가 지난 6일 첫 출하되면서 올해 참외 조수입 6천억원 시대를 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성주군 월향면 이원식(64)씨 시설하우스 10동에서 참외 40상자(10kg)를 출하, 한 상자당 평균 15만원에 성주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납품돼 전국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성주군은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참외 조수입 5천억원대 기록을 세웠다. 성주군은 지난해 참외 조수입 5천763억원, 2021년 5천534억원, 2020년 5천19억원, 2019년 5천50억원을 올렸다.

억대 농가도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억대 농가는 2021년보다 101호 증가한 1천713호로 나타났다. 참외 조수입 증가는 참외 당도가 우수해 첫 출하부터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것으로 성주군은 파악했다.

성주군은 고품질 참외생산 기반조성을 위해 ▷시설현대화를 위한 자동개폐기, PO장기성필름 등 지원 ▷인력 수급문제 해결을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및 농촌인력 중개센터 운영 ▷참외 품질 고급화를 위한 토양환경개선 지원, 친환경 농자재 재료비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해 참외산업 경쟁력을 강화했다.

또한 참외 산업의 스마트 전환을 위해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스마트 장비 보급사업으로 무인방제기, 자동관수관비 시스템 지원 ▷스마트농업 보급사업으로 참외수경재배 기술 농가보급 ▷빅데이터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 참외 생산량 예측 모델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했다.

이 밖에 ▷수출국 다변화를 위한 태국, 호주 등 신규 시장 개척 ▷온라인 유통 확대를 위한 쇼핑몰, 라이브커머스, 꾸러미 사업 지원 ▷유통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사업 지원 등 참외 유통의 변화를 모색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4년 연속 성주 참외 조수입이 5천억원을 달성했다. 올해는 참외 조수입 6천억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병용 기자 yong126@maeil.com



이병환 성주군수(왼쪽)가 올해 명품 성주 참외 첫 출하를 위한 참외 수확을 하고 있다.

성주군 제공

소백산 정기 받은 웰빙 농특산물

영주시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돋고, 소비자들에게는 우수 농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영주시 공식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영주장날’을 통해 인삼과 한우, 사과, 쌀, 가공 제품 등을 판매하고 있다. 설 맞이 할인 행사도 벌인다.

‘영주장날’은 소백산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인삼, 사과, 한우 등 고품질 농특산물을 판매하고 있다. 120여 개 농가와 업체에서 2천700여개의 품목을 판매 중이다. 매출액 55억 원으로 경북 온라인 농특산물 쇼핑몰 고향장터 사이소 내 매출액 1위다. 설맞이 할인 행사로 수삼 32%, 가공제품 최대 51% 할인판매하고 있다.

풍기인삼은 대한민국 대표 특산품이다. 우리나라 최초로 인삼 시배지에서 자란 풍기인삼은 소백산 자락의 깨끗한 환경과 비옥한 토질에서 자라 조직이 충실했고 향이 강한데 아니라 사포닌 함량이 높고 면역력을 높여 건강식품으로는 단연 최고다. 판매중인 인삼제품은 수삼과 쪄서 말린 흥삼, 흥삼농축액, 흥삼을 벌꿀에 담근 흥삼정과 흥삼절편, 흥삼액기스, 흥삼뿌리제품 등이다.

한국능률협회 인증원으로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웰빙인증을 획득한 영주사과 역시 최고의 설 선물이다. 청정한 소백산의 풍부한 일조량과 깨끗한 공기,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자라 맛과 향이 뛰어나며 일교차가 커 당도가 높고 육질이 조밀, 전국 소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영주한우는 소백산의 큰 일교차로 마블링이 잘 이루

어져 있고, 불포화 지방산과 오메가3가 많아 육질이 부드럽고 풍미가 좋아 인기가 높다. 2008~2020년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13년 연속 웰빙 인증을 획득, (사)소비자시민모임이 주관한 우수축산물

브랜드로 14년 연속 선정돼 전국 최고 품질을 자랑하고 있다. 영주한우는 소백산의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속에서 한우고기육 표준화양관리프로그램에 따라 사육된다. 고급육 출하 실적도 92%에 달해 1등급 한우 출현율이 전국 최고다.

마경대 기자 kdma@maeil.com



건강에 으뜸 풍기인삼
한우·사과도 최고 선물

명품 영주한우. 영주시 제공

알싸

마늘 먹인 최고 한우, 주문 당일 포장

'2023년 새해에는 '의성장날' 선물세트로 행복과 진심을 선물하세요'.

경북 의성군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의성장날'이 설을 앞두고 오는 20일까지 '설 선물 특별 기획전'을 마련했다.

'의성장날'이 취급하는 품목은 의성마늘과 마늘 가공품(흑마늘 등), 의성진(眞)쌀, 각종 과일, 의성마늘소, 고추, 장류, 가공식품, 특용작물 등 의성 농특산물 70여 개다. 의성군에서 생산된 농특산물만 소비자에게 직거래로 판매하는 만큼 가격이 시중가보다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더해 이번 설 기획전에서는 전 품목 10% 할인 판매, 쇼핑몰 신규 회원가입 시 5천원 쿠폰 지급, 전 품목 무료 배송 등의 이벤트를 진행한다.

의성군에 따르면 현재 설 선물로 인기가 가장 좋은 품목은 의성사과와 의성마늘소, 의성마늘 및 마늘 가공품, 의성진(眞)쌀 등이다.

'의성사과'는 껍질이 얇고 단단하면서 과즙이 많아 맛과 향이 좋고 당도가 높은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다른 지역보다 일교차가 심하고 일조량이 풍부하며 여름철 평균기온이 24°C로 사과 재배에 적합한 기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지형 토종마늘인 '의성마늘'은 즙액이 많고 독특한 향기와 매운맛이 감돌며 저장성까지 강해 전국 농산물 시장에서 인기가 가장 높다. 의성은 국내 한지마늘 최대 생산지다.

'의성마늘소'는 마늘경작 농가에서 직접 수매한 의성마늘만 먹임으로써 최고의 한우 등급을 자랑한다. 신선도를 높이기 위해 주문 당일 산소포장기를 이용해 포장, 배송한다.

의성장날은 2019년과 2020년 연속 국가브랜드 대상, 2019년 소비자 선정 최고 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의성장날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의성군이 보증하는 우수 농특산물인데다 가격까지 저렴해 구매 매력이 있다"며 "이번 설 선물을 의성장날에서 믿고 장만해보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현주 기자 lily@imaeil.com



의성군이 마련한 '의성장날' 선물세트.

알뜰

포항마켓 농특산품 최대 30% 할인

경북 포항시는 설 명절 물가안정을 위해 온라인 쇼핑몰 '포항마켓'과 지역 농특산물판매장에서 우수 농특산품을 최대 30% 할인 판매하는 이벤트를 마련했다. 행사 기간은 9일부터 오는 31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모션에는 35개 업체에서 250개 품목으로 참여했다. 포항시의 대표 브랜드 '영일만찬구' 인증을 받은 제품들이다.

지난 2013년 상표 등록된 '영일만찬구'는 지난 2013년, 2014년과 2016년부터 2019년 4년 연속 등 총 6회에 걸쳐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번 행사의 주요 품목은 쌀, 한과, 사과 선물 세트, 견오징어, 꿀, 조청, 버섯, 고추장, 젓갈, 해물탕·물회(밀키트), 칠보리빵 등이다.

포털사이트에 '포항마켓(<http://pohangmarket.pohang.go.kr>)'을 검색하거나 플레이스토어에서 포항마켓 앱을 다운받아 회원가입 후 제품을 구매하면 된다.

결제 시 페이북에서 모바일 포항사랑카드를 등록하면 지역사랑 카드로도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다.

온라인 할인행사와 함께 포항마켓에 신규로 회원가입 하면 선착순 200명에게 5천원을 적립해 준다.

상품구매 후 SNS(인스타그램)에 후기를 작성하면 선착순 100명에게 1만원 쿠폰 까지 지급된다.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포항농특산물 판매장에서도 20일까지 30개 업체 전 품목에 대해 10~30%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주요 판매 품목은 지역에서 생산된 식재료로 만든 밭효식품을 비롯해 한과류, 전통주, 건강식품 등이다. 손님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공영주차장 1시간 무료 주차권도 배부한다.

배성규 포항시 농식품유통과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생산제품 우선구매로 지역 농가와 가공업체의 매출 증가에 따른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동우 기자 sdw@imaeil.com



포항마켓 최대 30% 할인 프로모션 이벤트.

상큼

청송군

명품 사과 5kg·8kg 최고 7만9천원

'청송사과'라는 이름이 브랜드가 된 자는 오래됐다. 10년 넘게 대한민국 사과 시세의 기준이 된 청송사과는 맛과 품질, 가격 등 전국 모든 사과 중 가장 우위에 있다.

청송사과의 상품성은 지리적 자연조건과 농업 기술력에 있다. 청송군은 해발 250m 이상의 산간지형이다 고지형 분지이며 생육 기간에 일교차가 13.4°C로 커서 사과재배에 아주 적합한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다. 또 대륙성 기후와 해양성 기후가 교차하는 등의 날씨 여건 또한 맛있는 사과를 탄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청송군은 다른 지역에 비해 고도의 사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 데다가 새로운 품종으로 간신하고 있다. 관수 및 지주시설 등에 대한 투자도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품질 좋은 퇴비를 사용한다. 이런 여러 조건이 맞아 들어가 명품 청송사과를 탄생시켰다.

청송사과의 탁월한 상품성은 이미 시장에서 입증돼 있다. 지난 2019년부터 동일 원산지 단일 품목으로는 드물게 전국 146개 이마트에 청송사과가 특판 행사를 하고 있다. 이밖에도 국내 최대 농산물 도소매 매장인 서울 하나로클럽(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매년 판촉 행사를 갖고 있으며 전국 대형 상점에서도 판매를 위해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최근 청송사과는 동남아 시장까지 진출했다. 청송사과가 대한민국 최초로 인도네시아 사과 수출 300t 퀴터 승인과 함께 청송사과주스 5년간 무제한 수출 승인을 받기도 했다.

청송군은 이번 명절 청송사과유통센터와 연계해 산지에서 가장 저렴하고 품질 좋은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후지(부사)와 시나노골드(황금사과), 앤부(속빨간사과) 품목을 5kg과 8kg으로 나눠 사과 크기별로 4만2천원~7만9천원 사이로 판매하고 있다. 자세한 판매정보는 청송사과유통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전종훈 기자 apple@imaeil.com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청송사과.

달콤

칠곡군

고향장터서 1+등급 프리미엄 벌꿀

경북 칠곡군 인터넷쇼핑몰 '칠곡몰'은 오는 27일까지 농특산물 등 설맞이 전품목 30% 할인 판매를 한다. 품목 할인은 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되며, 택배비를 일부 지원한다. 칠곡몰 신규 가입 회원에게는 5천원 할인쿠폰이 지급된다.

칠곡몰은 인터넷포털사이트 또는 고향장터 사이소 모바일앱을 통해 이용 가능하며 벌꿀, 표고버섯, 쌀, 참기름, 들기름, 김, 버섯, 조청, 가공품 선물세트 등 280여 품목 상품을 판매한다.

전국 유일의 양봉특구에 걸맞게 프리미엄 벌꿀만을 취급하며, 대표 브랜드는 '허니밤'이 있다. 농산물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탄소동위원소비, 농약 및 항생제 검사 등 25가지 검사를 통해 1+등급 이상의 벌꿀을 믿고 구입할 수 있다. 특히 양봉산물 생산시스템을 표준화해 고품질화를 고집하고 있다.

국내산 통참깨, 통들깨를 한번만 냉압착해 짠 생참기름, 생들기름도 있다. 참깨와 들깨는 농가가 직접 또는 계약재배로 생산한다. 냉압착 생들기름에는 오메가3가 72%이상 함유되어 있어 매일 섭취하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

영 40도 진공상태에서 동결시킨 뒤 저온건조해 영양소나 색상의 파괴를 최소화해 고유의 맛과 향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동결건조 땅기, 참외, 사과는 어린이 간식으로 인기가 높다.

동결건조된 과립으로 생난또의 효소와 영양성분을 그대로 담은 생생난또는 국내산 콩 100%에 특허 균주로 유산균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 요쿠르트, 샐러드, 뒤궁국 등 다양한 레시피로 즐길 수 있다.

김재숙 칠곡군수는 "신선·저렴한 가성비 높은 설선물을 구입은 칠곡몰이 제격이다"며, "농가소득 증대와 칠곡몰을 통한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영욱 기자 hello@imaeil.com



1+등급 이상의 칠곡 천연벌꿀.

뜨끈

영덕군

바다 내음 물씬 해풍미·대게 어묵 국물

"2023년 설날, 바다 내음 물씬 영덕을 선물하세요!" 영덕군의 인터넷 쇼핑몰 '영덕장터'가 설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최대 30% 할인판매하는 이벤트를 준비했다. 영덕장터는 경상북도 농특산물 오는 쇼핑몰인 '사이' 소와 연계해 운영되고 있다. 주소는 <https://ydmall.cysyo.co.kr>이다.

영덕장터는 다른 육지 지역과 달리 바다와 관련된 상품들이 많다. 영덕에서 생산되는 쌀 '해풍미'는 말 그대로 바닷바람을 맞으며 미네랄과 철분 함량이 높은 청정 영덕의 비옥한 토질에서 생산된 쌀로 밥맛이 구수하다. 좋은 원료만을 선별 건조해 15~16%의 적정한 수분율을 유지해 당일 가공 당일 출고한다.

영덕 강구항에서 직송되는 영덕박달홍게도 인기다. 박달은 삶이 꽉찬 홍게로 면 바다 조업을 통해 가까운 바다에서 잡힌 놈들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 판매자의 설명이다.

얼리지 않은 신선한 게장을 간편하게 짜먹는 '영덕붉은 대게장'도 눈에 띠는 상품. 100% 자연산 게장으로 먹기 쉬운 파우치형으로 만들어져 다양한 음식으로 입맛을 돋운다.

게살과 함께 비빔밥으로 탄생하기도 하고 연어와 어우러져 초밥으로도 즐길 수 있다. 크래커와 상추, 방울토마토의 맨 위에 살포시 내려 앓은 카나페 레시피도 있다.

홍게 대게 어묵도 영덕 장터에서만 맛 볼 수 있는 제품이다. 추운 날씨 뜨끈한 국물이 그립다면 홍게 대게 어묵을 선택해 볼만하다.

이밖에 간편 손질 반찬조 오징어, 해풍은 복숭아 병조림, 수제강정 선물세트, 영덕사과, 동물복지 계란 등도 인기가 높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영덕의 산물은 독특한 품성을 자랑한다. 이번 설 명절, 가족과 함께 영덕의 맛을 함께 즐기거나 영덕의 맛을 선물해 보시기를 권한다"고 했다.

김대호 기자 dhkim@imaeil.com

쫄깃

예천군

눈 내린 듯 하얀 분·달콤한 식감 곶감

경북 예천군이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4일까지 직영 온라인 쇼핑몰인 '예천장터'를 통해 농특산물 특별판매 행사를 한다.

이번 특별판매 행사기간 동안 군은 예천장터 신규가입 고객에게 4천원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또 구매 금액별로 즉시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10+1 덤 행사 등 다채로운 이벤트도 진행한다.

예천장터는 참기름·들기름, 한과·떡국·잡곡세트, 건강식품, 사과·배·은풍준시 등 다양한 농특산물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좋은 품질의 농특산물을 쌈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 설을 앞두고 가족과 지인들에게 맛집으로 명절 선물로 안성맞춤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예천 은풍면 동사리에서 생산되는 곶감인 '은풍준시'가 본격 출하돼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 은풍준시는 눈이 내린 듯한 하얀 분과 특유의 달콤하고 쫄깃한 식감을 자랑한다.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자연풍건조와 수작업 방식 제조과정 덕분에 전통의 곶감의 맛을 느낄 수 있다.

행운을 상징하는 네잎클로버 모양으로 감을 깎아 건조대에서 40~60일을 말린 후 2차로 2~3일마다 아침에 넣고 저녁에 거둬들이는 과정을 7번 정도 반복하면 '은풍준시'가 탄생한다.

예천장터에 입점한 은풍준시 영농조합법인 관계자는 "찬 바람과 건조한 날씨 덕분에 올해는 어느 때보다 품질이 좋아 예천장터를 통해 고객에게 좋은 제품을 선보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군은 입점 농가와 영농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선별 판매할 수 있도록 특별지도·점검을 진행하는 등 우수한 품질의 농특산물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천군 관계자는 "예천장터 이용 고객이 큰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우수한 품질의 농특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영민 기자 yun1011@imaeil.com



예천장터에서 판매하는 '은풍준시'.



이밖에 간편 손질 반찬조 오징어, 해풍은 복숭아 병조림, 수제강정 선물세트, 영덕사과, 동물복지 계란 등도 인기가 높다.

김대호 기자 dhkim@imaeil.com



노인영의 풍수이야기

<7> 대구 달성군 하빈면 묘골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다. 토끼는 다산(多產)과 지혜(知慧), 풍요(富)를 상징하는 동물이다. 이 기운을 받아 경제가 활성화되고 출산율이 높기를 기원한다. 달성군(達城郡) 하빈면(河濱面)에는 이러한 기운을 품고 있는 마을이 있다. 묘리(妙里)는 사육신(死六臣)의 한 분인 순천 박씨(順天 朴氏) 취금현(醉琴軒) 박팽년(朴彭年·1417~1456) 선생의 후손 '박일산'(朴一珊)이 멸문지화(滅門之禱)의 순간을 넘기고 우여곡절 끝에 대를 잊고 정착한 순천 박씨 집성촌(集姓村)이다. 마을 전체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나 외부에서는 안이 보이지 않는 지세이다. 토끼굴을 연상하게 하는 특이한 지형이다. 이곳 순천 박씨를 일명 '묘골 박씨'라고 한다. 묘골 마을 이름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다. 마을 터가 묘(妙)해서 묘골이라고 했다는 설, 마을의 유래가 묘해서 묘한 동네라는 의미, 하빈사(河濱祠), 낙빈(洛濱), 육신사(六臣祠) 사당이 있어 사당 묘(廟) 자를 써서 묘골이라 했다는 것이다.



순천 박씨 집성촌인 대구 달성군 하빈면 묘골마을

산으로 둘러싸인 마을…밖에선 안 보여 토끼굴 연상



청룡방 상계 묘소와 달



송산 박준규 전 국회의장 생가 표지석과 우물



삼성 이병철 회장 부인 박두을 여사 생가터

검은 털 가진 토끼가 달을 바라보는 형상

토끼 등에 해당하는 곳엔 묘소 줄이어…봉분 검은색
당초엔 '토끼 卵', 역사 의미 담아 '묘할 妙' 사용한 듯

묘골을 풍수학적으로 규명해 보자. 세간에서는 이곳 묘골을 회룡고조형(回龍顧祖形·용이 자신의 조상 산을 바라보는 혈), 또는 회룡고미혈(回龍顧尾穴·용이 머리를 돌려 자신의 꼬리를 바라보는 혈) 등으로 불리고 있으나 회룡과는 거리가 멀고 용형(龍形)은 더더욱 아니다.

용형으로 보라면 산세가 그에 걸맞어야 한다. 용은 신출귀몰하기 때문에 용택의 움직임이 변화무쌍하여야 하고, 용의 행도(行度)가 금·수형(金·水形)으로 행룡(行龍)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곳 산세는 용매의 변화가 크게 없고, 사신사(四神砂)가 평평한 토성체(土星體)이다. 토끼나 소, 말 등 네 발 달린 짐승의 등을 상징하는 것이 토성이다.

그럼 묘골의 산세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토끼 형상이다. 묘골 청룡방 산등성이에 오르면 검은 털을 가진 토끼가 달을 바라보는 형상이 눈에 들어온다. 이곳이 핵심 포인트이다. 토끼의 등에 해당하는 곳에 묘골 박씨 윗대의 묘소가 줄이어 있다. 겨울철 묘소 봉분 색깔이 희한하게도 새까맣다. 이곳 주혈의 좌향은 계좌정향(癸坐 丁向)이다. 별자리 오행으로 토성이며, 풍수 물형으로 보면 육토월령(玉兔望月形)이다.

동양철학에서 계(癸)는 수(水), 토끼 묘(卯)는 나무(木), 정(丁)은 달 속의 토끼와 계수나무'가 그려진다. 따라서 묘골의 당초 이름은 토끼 '묘'(卯) 자를 써서 묘골(卯谷)이라 했을 것이다. 마을 터가 특이하고 거기에 사육신과 같은 역사적 사건을 결부시켜 의미를 부여하다 보니 묘할 '묘'(妙) 자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9선 국회의원 역임한 송산 박준규 배출

최다선·국회의장 3번, 한국 의정 사상 초유의 기록
생가터에서 바로 보이는 천마사 기운 많이 받은 듯

지가서(地家書)에서 토끼형은 '자손이 번창하고, 지혜로운 인재를 배출하며, 부자가 출한다'라고 한다. 실제로 후손들도 번성하였고, 큰 부자와 인물도 배출하였다. 형상으로 보면 조산(朝山) 천마사(天馬砂)가 있으니 이따금씩 큰 귀인이 배출될 것을 예전하고 있다. 수려한 사격 하나가 그 역량을 발휘함이 정말로 지대하다.

근대에 들어 묘골이 배출한 대표적인 인물은 3번의 국회의장과 9선 국회의원을 역임한 송산(松山) 박준규(朴浚圭·1925~2014)이 있고, 부자로는 삼성 창업주 이병철(1910~1987) 회장의 배우자 박두을(1907~2000) 여사가 이곳의 지기를 받고 태어났다.

송산은 대한민국 정계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 김종필 전 국무총리와 함께 최다선 의원이며, 13~15대 국회에서는 잇달아 세 차례 국회의장을 역임했다. 지역구 9선과 세 번의 국회의장은 한국 의정 사상 초유의 기록이다.

그는 일제강점기 구마모토 의과대학 재학 중 8·15 광복을 맞아 귀국하여 서울대학교에 편입한 후 문리과대학 정치학과를 졸업하였다. 미국에 유학하여 컬럼비아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는 등 한·미·일 3국의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자유, 민주, 실용을 목소로 체험했다. 이러한 경험으로 독재와 산업구조 고도화라는 가치가 상충하던 시대에 공화당 정책위의장을 맡아 싱크탱크 역할을 한 지역의 거물 정치인이었다.

송정사(崇正祠) 앞에는 송산의 생가터임을 알리는 표지석과 우물이 있다. 생가터에서 보면 천마사가 뚜렷하게 보인다. 송산은 이 천마사의 기운을 많이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사육신 박팽년의 직계 18대손이고 박두을의 5촌 당질(堂姪)이다.

삼성 이병철 회장 부인 박두을 여사 생가터

박준규 부친 양조사 인수 후 '삼성상회' 간판 걸어
예의범절 밟고 검소했던 내조 덕분에 재벌로 성장

박두을은 아버지 박기동의 4녀로 태어났다. 유년 시절 여사의 관상을 본 한 스님이 "왕비가 아니면 거부의 아내가 될 것이다"라고 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다. 여사는 21세에 집안 어른들의 주선으로 이병철과 혼인한다.

이 회장의 집안도 경남(慶南) 의령(宜寧) 일대에서 일어나는 부잣집임에도 불구하고 "시집이라고 월더니 집도 좁고 그렇게 가난해 보일 수 없었다"라는 말을 자식들에게 자주 했었다고 한다. 이를 보면 친정집이 얼마나 부자인지 가능할 수 있다. 친정 생가터는 마을 중심 맥의 말락지(末落地)에 있는 양택지로 부자터이다.

이병철 회장이 1938년 '삼성상회'라는 간판을 걸고 대구 서문시장 인근에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차가와 연관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성공 신화를 만든 원천은 송산의 부친 취운(醉雲) 박노의(朴魯益·1888~1958)이 운영하는 양조사(饟造社)를 인수한 덕분이다. 이것이 큰 밑천이 되었다.

삼성이 재벌로 성장하기까지는 박두을 여사의 공이 지대하다. 박 여사는 "바깥 활동은 되도록 삼가고 집안일에만 전심전력을 다해 왔으며, 예의범절에 밖아 집안이 두루 화목하였고, 봄치장, 얼굴 치장 한 번 제대로 한 적이 없을 정도로 겸소하였다"라고 한다. 훌륭한 내조 덕분이라는 칭송이 늘 따라다닌다.

이렇듯 묘골의 출신 인물을 보면 지가서에서 말하는 토끼형의 발음과 일치하며, '인걸(人傑)은 지령(地靈)'임이 증명된다. 묘골은 생기가 모이고 앞과 뒤가 안 온하게 생긴 부자 터로, 영구한 양택지로 삼기에 부족함이 없는 곳이다. 어떻게 이런 자리와 인연이 되었을까? 참으로 묘하다.

대학생, 지역민, 예술가 '합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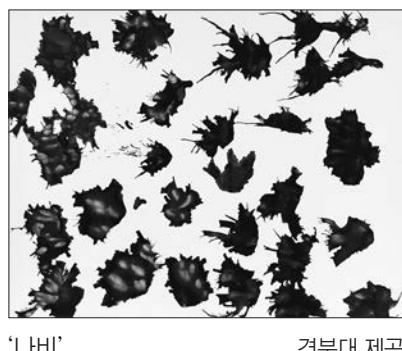
지역민 연계 미술 프로젝트
경북대 스페이스9 19일까지

경북대학교 대강당 전시실인 스페이스9에서 '우리의 호흡이 미술이 될 때' 전시가 열리고 있다. 이번 전시는 지역민 연계 미술 프로젝트 워크숍 '같이, 가치'의 결과 발표 전시다. 지난해 12월 한 달간 진행된 이 워크숍은 최선 작가가 주도했으며 경북대 재학생 11명, 산격3동 주민 18명이 참여했다. 공감과 소통을 핵심 키워드로, 낯선 소재와 기법을 활용한 미술작품을 함께 기획, 제작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워크숍에서 제작한 공공미술 작품 30점과 최선 작가의 작품 20점을 만나볼 수 있다.

공공미술 작품 중 '나비'는 산격동 주민들의 '삶'으로 만들어졌다. 파란색 잉크를 캔버스에 소량을 떨어내고, 그것을 입으로 물어 네 남겨진 잉크의 흔적들이다. 호흡하는 것, 즉 살아있는 자체가 예술임을 의미하면서도, 예술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에 서부터 시작될 수 있음을 관객에게 전달한다.

전시는 19일까지 053-950-2817. 이연경 기자 lyj@maeil.com



'나비' 경북대 제공

한 김치의 국물을 이용해 제작한 작품이다. 김치는 한국의 대표 음식이지만 지역마다 김장을 하는 방식이 다른 것처럼 집마다 다른 레시피가 존재한다. 산격동 주민 각각의 삶에 대한 작은 이야기가 이 작품을 통해 드러난다.

김영하 경북대 대외협력처장은 "지역사회 중심의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고, 대학 캠퍼스에 열린 문화공간을 구축하고자 이번 프로젝트를 마련했다. 기획부터 제작, 전시까지 대학생과 지역민, 예술가가 협업해 새로운 커뮤니티 아트를 선보였다. 예술 세계에서 나아가 지역민의 삶을 느낄 수 있는 이번 전시회에 많은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시는 19일까지 053-950-2817. 이연경 기자 lyj@maeil.com



'천년의 불꽃, 김유신' 공연 모습.

뮤지컬컴퍼니에이제공

뮤지컬 '천년의 불꽃, 김유신'

경북도청, 경주엑스포 개최 관객 호평
수익금, 故 심 소령 추모사업기금으로
14·15일 총 4회 대구오페라하우스서



열렸다.
이준욱 안무가는 "대구시립 무용단 출신 무용수들과 유자완 음악감독이 예술 수준이 높은 동유럽에서

이준욱 안무가 작 '아포칼립스' 슬로베니아 공연 큰 호평 받아

이준욱 안무가(사진·대구시립무용단 전 트레이너)가 이끄는 도도무브 댄스시어터와 대구시립무용단 3인방 무용수(김초율·박정은·도효연)가 지난달 23일 동유럽 슬로베니아 슈판스키 보루취극장에서 대구 무용의 위상을 드높이는 해외 공연을 했다.

이번에 슬로베니아에서 선보인 작품은 지난 세계안무축제에 선보였던 신작 '아포칼립스' (Apocalypse)로 '인간이 도래시킬 미래를 상상하며, 인간의 욕구와 이를 자연과 사회 속에서 어떤 조화로움으로 살아가야 할까'라는 물음표를 던져 큰 호평을 받았다.

인간의 대한 섬세하면서도 날카로운 표현이 내포된 이 작품은 대구문화재단과 슬로베니아의 예술단체 JSKD의 후원을 받아, 크리스마스 특별공연 형식으로 슬로베니아에서

인상깊은 공연을 마쳤다"며 "대구 무용이 세계로 뻗어가는 희열과 자부심을 느꼈다"고 공연 후 소회를 밝혔다.

니나 메스코 JSKD 대표는 "마치 인류에 대한 경고로 느껴졌다. 아름다움이 권력이 되어, 견갑을 수 없이 휘몰아쳐 우리의 마음을 지배했다"며 "기회가 된다면 또 초청하고 싶다"고 만족했다.

한편, 도도무브 댄스시어터는 이준

이준욱 안무가를 주축으로 활동하는 현대무용 단체로 '길 도(道), 이를 도(到)'를 써서 '움직임에 대한 갈증을 찾아길에 이르다'라는 이념을 가지고 있다.

심현재 기자

접적으로 흡수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뮤지컬 '천년의 불꽃, 김유신'은 지난해 크리스마스 경북 안동시 경북도청에서 초연한 이후, 지난달 29, 30일 경주엑스포에서 도 개최돼 관객들의 호평을 받은 바 있다.

김유신 역으로 출연하는 배우 서도진은 뮤지컬 '지킬앤하이드'와 '영웅' 등에 출연한 우리나라 뮤지컬계 중랑급 배우로 평가받고 있다. 또 KBS 드라마 '오케이광자매'에도 출연했다.

한편, 고 심 소령의 모교인 대구 능인고 측은 동창회를 중심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뮤지컬 관람을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 소령의 유가족은 14일 오후 2시30분에 있을 첫 공연을 관람할 예정이다.

정다미 연출가는 "고 심 소령을 이 시대의 화랑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배우들과 함께 혼신의 힘을 다한 연기로 심 소령의 추모 사업 기금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람은 VIP석 11만원, R석 9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초등학생 이상 관람 가능. 02-737-8485 심현재 기자 gjswo0302@maeil.com



故 심정민 소령

대구 무용에 동유럽이 열광

이준욱 안무가 작 '아포칼립스'
슬로베니아 공연 큰 호평 받아

이준욱 안무가(사진·대구시립무용단 전 트레이너)가 이끄는 도도무브 댄스시어터와 대구시립무용단 3인방 무용수(김초율·박정은·도효연)가 지난달 23일 동유럽 슬로베니아 슈판스키 보루취극장에서 대구 무용의 위상을 드높이는 해외 공연을 했다.

이번에 슬로베니아에서 선보인 작품은 지난 세계안무축제에 선보였던 신작 '아포칼립스' (Apocalypse)로 '인간이 도래시킬 미래를 상상하며, 인간의 욕구와 이를 자연과 사회 속에서 어떤 조화로움으로 살아가야 할까'라는 물음표를 던져 큰 호평을 받았다.

인간의 대한 섬세하면서도 날카로운 표현이 내포된 이 작품은 대구문화재단과 슬로베니아의 예술단체 JSKD의 후원을 받아, 크리스마스 특별공연 형식으로 슬로베니아에서

인상깊은 공연을 마쳤다"며 "대구 무용이 세계로 뻗어가는 희열과 자부심을 느꼈다"고 공연 후 소회를 밝혔다.

니나 메스코 JSKD 대표는 "마치

인류에 대한 경고로 느껴졌다. 아름다움이 권력이 되어, 견갑을 수 없이 휘몰아쳐 우리의 마음을 지배했다"며 "기회가 된다면 또 초청하고 싶다"고 만족했다.

한편, 도도무브 댄스시어터는 이준

이준욱 안무가를 주축으로 활동하는 현대무용 단체로 '길 도(道), 이를 도(到)'를 써서 '움직임에 대한 갈증을 찾아길에 이르다'라는 이념을 가지고 있다.

심현재 기자

인상깊은 공연을 마쳤다"며 "대구 무용이 세계로 뻗어가는 희열과 자부심을 느꼈다"고 공연 후 소회를 밝혔다.

니나 메스코 JSKD 대표는 "마치

인류에 대한 경고로 느껴졌다. 아름다움이 권력이 되어, 견갑을 수 없이 휘몰아쳐 우리의 마음을 지배했다"며 "기회가 된다면 또 초청하고 싶다"고 만족했다.

한편, 도도무브 댄스시어터는 이준

이준욱 안무가를 주축으로 활동하는 현대무용 단체로 '길 도(道), 이를 도(到)'를 써서 '움직임에 대한 갈증을 찾아길에 이르다'라는 이념을 가지고 있다.

심현재 기자

인상깊은 공연을 마쳤다"며 "대구 무용이 세계로 뻗어가는 희열과 자부심을 느꼈다"고 공연 후 소회를 밝혔다.

니나 메스코 JSKD 대표는 "마치

인류에 대한 경고로 느껴졌다. 아름다움이 권력이 되어, 견갑을 수 없이 휘몰아쳐 우리의 마음을 지배했다"며 "기회가 된다면 또 초청하고 싶다"고 만족했다.

한편, 도도무브 댄스시어터는 이준

이준욱 안무가를 주축으로 활동하는 현대무용 단체로 '길 도(道), 이를 도(到)'를 써서 '움직임에 대한 갈증을 찾아길에 이르다'라는 이념을 가지고 있다.

심현재 기자

인상깊은 공연을 마쳤다"며 "대구 무용이 세계로 뻗어가는 희열과 자부심을 느꼈다"고 공연 후 소회를 밝혔다.

니나 메스코 JSKD 대표는 "마치

인류에 대한 경고로 느껴졌다. 아름다움이 권력이 되어, 견갑을 수 없이 휘몰아쳐 우리의 마음을 지배했다"며 "기회가 된다면 또 초청하고 싶다"고 만족했다.

한편, 도도무브 댄스시어터는 이준

이준욱 안무가를 주축으로 활동하는 현대무용 단체로 '길 도(道), 이를 도(到)'를 써서 '움직임에 대한 갈증을 찾아길에 이르다'라는 이념을 가지고 있다.

심현재 기자

인상깊은 공연을 마쳤다"며 "대구 무용이 세계로 뻗어가는 희열과 자부심을 느꼈다"고 공연 후 소회를 밝혔다.

니나 메스코 JSKD 대표는 "마치

인류에 대한 경고로 느껴졌다. 아름다움이 권력이 되어, 견갑을 수 없이 휘몰아쳐 우리의 마음을 지배했다"며 "기회가 된다면 또 초청하고 싶다"고 만족했다.

한편, 도도무브 댄스시어터는 이준

이준욱 안무가를 주축으로 활동하는 현대무용 단체로 '길 도(道), 이를 도(到)'를 써서 '움직임에 대한 갈증을 찾아길에 이르다'라는 이념을 가지고 있다.

심현재 기자

인상깊은 공연을 마쳤다"며 "대구 무용이 세계로 뻗어가는 희열과 자부심을 느꼈다"고 공연 후 소회를 밝혔다.

니나 메스코 JSKD 대표는 "마치

인류에 대한 경고로 느껴졌다. 아름다움이 권력이 되어, 견갑을 수 없이 휘몰아쳐 우리의 마음을 지배했다"며 "기회가 된다면 또 초청하고 싶다"고 만족했다.

한편, 도도무브 댄스시어터는 이준

이준욱 안무가를 주축으로 활동하는 현대무용 단체로 '길 도(道), 이를 도(到)'를 써서 '움직임에 대한 갈증을 찾아길에 이르다'라는 이념을 가지고 있다.

심현재 기자

인상깊은 공연을 마쳤다"며 "대구 무용이 세계로 뻗어가는 희열과 자부심을 느꼈다"고 공연 후 소회를 밝혔다.

니나 메스코 JSKD 대표는 "마치

인류에 대한 경고로 느껴졌다. 아름다움이 권력이 되어, 견갑을 수 없이 휘몰아쳐 우리의 마음을 지배했다"며 "기회가 된다면 또 초청하고 싶다"고 만족했다.

한편, 도도무브 댄스시어터는 이준

이준욱 안무가를 주축으로 활동하는 현대무용 단체로 '길 도(道), 이를 도(到)'를 써서 '움직임에 대한 갈증을 찾아길에 이르다'라는 이념을 가지고 있다.

심현재 기자

인상깊은 공연을 마쳤다"며 "대구 무용이 세계로 뻗어가는 희열과 자부심을 느꼈다"고 공연 후 소회를 밝혔다.

니나 메스코 JSKD 대표는 "마치

인류에 대한 경고로 느껴졌다. 아름다움이 권력이 되어, 견갑을 수 없이 휘몰아쳐 우리의 마음을 지배했다"며 "기회가 된다면 또 초청하고 싶다"고 만족했다.

한편, 도도무브 댄스시어터는 이준

이준욱 안무가를 주축으로 활동하는 현대무용 단체로 '길 도(道), 이를 도(到)'를 써서 '움직임에 대한 갈증을 찾아길에 이르다'라는 이념을 가지고 있다.

심현재 기자

인상깊은 공연을 마쳤다"며 "대구 무용이 세계로 뻗어가는 희열과 자부심을 느꼈다"고 공연 후 소회를 밝혔다.

니나 메스코 JSKD 대표는 "마치

인류에 대한 경고로 느껴졌다. 아름다움이 권력이 되어, 견갑을 수 없이 휘몰아쳐 우리의 마음을 지배했다"며 "기회가 된다면 또 초청하고 싶다"고 만족했다.

한편, 도도무브 댄스시어터는 이준

이준욱 안무가를 주축으로 활동하는 현대무용 단체로 '길 도(道), 이를 도(到)'를 써서 '움직임에 대한 갈증을 찾아길에 이르다'라는 이념을 가지고 있다.

심현재 기자

인상깊은 공연을 마쳤다"며 "대구 무용이 세계로 뻗어가는 희열과 자부심을 느꼈다"고 공연 후 소회를 밝혔다.

니나 메스코 JSKD 대표는 "마치

인류에 대한 경고로 느껴졌다. 아름다움이 권력이 되어, 견갑을 수 없이 휘몰아쳐 우리의 마음을 지배했다"며 "기회가 된다면 또 초청하고 싶다"고 만족했다.

한편, 도도무브 댄스시어터는 이준

이준욱 안무가를 주축으로 활동하는 현대무용 단체로 '길 도(道), 이를 도(到)'를 써서 '움직임에 대한 갈증을 찾아길에 이르다'라는 이념을 가지고 있다.

심현재 기자

인상깊은 공연을 마쳤다"며 "대구 무용이 세계로 뻗어가는 희열과 자부심을 느꼈다"고 공연 후 소회를 밝혔다.

니나 메스코 JSKD 대표는 "마치

<p

“올해 세계 성장률 3.0%→1.7%…침체 위험 매우 크다”

세계은행 성장 둔화 경고

7개월 만에 1.3%p 낮춰 전망
긴축 정책·우크라 전쟁 영향
美 성장률 0.5%·유로존 정체

세계은행(WB)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큰 폭으로 하향 조정하며 침체 가능성에 경고했다.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투자 감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이 하향 조정 이유다.

세계은행은 10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1.7%로 전망했다.

작년 6월 보고서에서 전망한 3.0%보다 1.3%p인트 낮아진 것으로,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침체를 겪은 2009년과 2020년을 제외하면 지난 30년간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

세계은행은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질 위험이 매우 큼 정도로 세계 성장이 둔화했다”고 경고했다.

하향 이유로 주요 선진국이 고물가를 잡으려고 긴축 정책을 동시에 펼치면서 금융 환경이 악화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등 악영향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 유로존, 중국 모두 취약한 상태이며 이들 경제의 파급 효과가 신 흥 경제와 개도국이 직면한 어려움을 더 가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자산 가격이 동시에 하락

하고, 투자가 크게 위축됐으며, 다수 국가에서 주택시장이 매우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은행은 선진국 경제의 95%, 신흥 경제와 개발도상국의 거의 70% 대해 성장을 전망을 기준보다 낮췄다. 특히 선진국 경제 성장률이 작년 2.5%에서 올해 0.5%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침체 가능성도 경고했다.

세계은행은 “취약한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 물가를 잡기 위한 급격한 금리 인상, 코로나19 팬데믹 재확산이나 지정학적 긴장 고조 등 그 어떤 새로운 악조건이 세계 경제를 침체로 밀어 넣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성장률을 기준 전망보다 1.9%p인트 낮은 0.5%로 하향했다. 1970년 이후 공식 침체 기간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

유로존의 경우에도 1.9%p인트 하향하면서 성장이 정체될 것으로 예상했다.

작년 2.7% 성장률을 기록한 중국은 올해 4.3% 성장률로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과 외부 수요 약화를 반영해 작년 6월보다는 0.9%p인트 낮췄다.

중국을 제외한 신흥 경제와 개도국의 성장률은 작년 3.8%에서 올해 2.7%로 둔화할 것으로 봤다.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한 전망은 언급되지 않았다.

김봉이 기자 bom@imaeil.com

‘비자 받지 않고 여행’ 한국 여권 순위 올해도 2위

사전에 비자를 받지 않고 갈 수 있는 나라가 몇 개국인지를 따지는 글로벌 여권 순위에서 한국이 올해도 세계 199개국 가운데 2위를 차지했다.

10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영국 런던에 있는 국제교류 자문업체 ‘헨리앤드파트너스’는 이날 공개한 2023년 1분기 세계 이동성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해당 여권을 소지했을 때 비자가 필요하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간편한 입국 절차를 통해 방문할 수 있는 국가가 몇 개국인지를 지수화해 순위를 매긴 것이다.

이날 발표된 보고서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한 국가는 일본(193개국)이었다.

이어서는 한국(192개국)과 싱가포르

(192개국)가 공동 2위를 차지했다. 작년 1분기에는 일본과 싱가포르가 각각 192개국으로 공동 1위였고, 한국은 독일과 함께 공동 2위(190개국)를 기록했었다.

일본, 한국, 싱가포르에 이어서는 독일과 스페인이 190개국으로 올해 공동 3위에 올랐다. 이어서는 핀란드·이탈리아·룩셈부르크(189개국)와 오스트리아·덴마크·네덜란드·스웨덴(188개국)이 각각 공동 4위와 5위를 차지하는 등 대체로 유럽 국가들의 여권 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미국 여권은 186개국을 사전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어 세계 7위 수준으로 평가됐다. 러시아는 118개국으로 48위, 중국은 80개국으로 66위에 머물렀다. 연합뉴스



그리스 마지막 국왕 콘스탄티노스 2세(왼쪽)가 10일(현지시간) 아테네에서 82세로 별세했다. 1964년 즉위한 고인은 그리스가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정을 세택하면서 왕실이 해체된 1973년까지 국왕으로 군림했다. 사진은 2011년 10월 17일 영국 버크셔주 크로손 웰링턴 대학에서 열린 행사를 엘리자베스 2세 당시 영국 여왕과 대화를 나누는 콘스탄티노스 2세의 모습. 연합뉴스

美 가정집 뒷마당서 벌젓이 겨울잠에 빠진 흑곰

미국의 한 가정집 뒷마당에 흑곰이 들어와 겨울잠에 빠졌을지도 가족들이 그대로 두기로 결정한 사연이 알려졌다.

10일(현지시간) 영국 텔레그래프와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하트퍼드 카운티 플레이宁县에 거주하는 비니 디스코워치는 지난달 30일 집 뒷마당에서 펫볼테리어 품종의 반려견 칼리와 놀아주다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

평소 암전하던 칼리가 야외 마루를 향해 으르렁거리는 등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디스코워치는 의아한 마음에 마루 밑을 살펴봤고 그 순간 겨울잠에 취해 비몽사몽한 모습으로 자신을 쳐다보는 흑곰을 발견했다.

그는 “곰은 우리를 보고도 전혀 놀라지 않았다. 움직이지도, 반응하지도 않았다. 편안해 보였다”고 당시 상황



미국 가정집 뒷마당 마루 밑에서 겨울잠에 빠져든 흑곰 트위터 캡처

가족들 그대로 두기로 결정
SNS 영상 조회수 1500만회
코네티컷주 “알아서 떠날 것”

을 전했다.

그는 곰에게 ‘마티 베어나드’라는 이름을 지어준 뒤 그 이름을 딴 인스타그램 계정도 만들었다.

그러면서 잠든 곰의 모습을 촬영해 SNS에 게재했다. 영상의 조회수는 단숨에 1500만회까지 올라갔다.

신고를 받은 코네티컷주 환경보호국은 1월 말쯤 겨울잠에서 깐 곰이 알아서 떠날 거라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데크 아래 살게 내버려 둬도 된다고 말했다. 다만 곰에게 가까이 다가가거나 먹이를 주는 것은 금물이라는 당부를 남겼다.

코네티컷주에 따르면 흑곰은 북미에서 가장 크기가 작은 곰으로 식물 열매와 곤충을 주로 먹지만 때때로 새끼 사슴과 같은 작은 포유류를 공격할 때도 있다.

흑곰은 곰 가운데 완전히 동면을 취하는 종류는 아니지만 겨울철에는 체온과 심박수가 떨어지며 활동을 멈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지난 20년 동안 코네티컷주의 흑곰 개체수는 급속히 증가해 왔으며, 1000마리 이상이 이 지역에 머물고 있다. 김기원 기자 kiragu@imaeil.com

브랜드입점1층상가

보8천, 月320出

도점

태진동

대지권216㎡

건120㎡, 매11억5천원 010-6833-5433

금원가이하

공장매매/국가산단

대16000㎡, 건7300㎡

달성2차 010-4504-6532

경산시

물류 창고

혁신도시 2000"

와촌IC 대700'

9,000", 당88만

010-9468-5022/ 010-3502-0322

대형 스크린골프

신규 주차 150대

대출80%

초금마, 전용920㎡

전용테라스有

김천혁신 KTX 역세권, 1.3만세대

매25억(임대가능) 010-6833-5433

구미시

신축금매

대360.3㎡(109)

건657.86㎡(199)

15M x 8M 코너, 17가구(원5+미투

11+투1), 월세 550만원

인수가 7000만원 010-6522-9200

中 단기 비자 중단 정당화

자국민 처우 노골적 불만

관영지, 한국 입국 규제 맹비난

중국이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하며 한국의 입국 규제에 대한 보복 조치를 발동하자 중국 관영체가 정당한 조치라며 힘 실어주기로 나섰다.

중국 매체들은 특히 일부 중국인들이 한국 입국 과정에서 묘묘적인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한국 정부의 조치를 강하게 비난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 환구시보는 11일 영문판 글로벌타임스와 공동으로 ‘한국은 중국인 관광객의 폭로를 합리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신문은 자국 티켓 주장을 인용해 한국의 방역 조치가 중국인만 대상으로 한다거나 비용을 지불했음에도 격리시설에 침대가 없고 온수가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중국발 입국자를 식별하기 위해 노란색 카드를 사용하도록 한 조치에 대해서는 범죄자 취급했다며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신문은 “이 조치들이 중국인 관광객만 대상으로 한 것이냐”라거나 “한국은 중국인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일간지 대하보(大河報)는 최근 한국을 찾았다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사례를 소개하며 국민감정을 자극하기도 했다.

중국발 항공편 탑승자들은 비행기에서 내릴 때 노란색 카드를 목에 걸고 별도 통로로 이동하며 자비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고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 격리시설로 끌려간다고 신문은 전했다.

글로벌타임스는 또 다른 기사에서 전문가 발언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중국의 조치는 ‘정당한 방어’라는 주장을 했다.

리하이 등 중국외교학원 교수는 “한국과 미국 등 특정 국가는 중국의 감염병 조치를 비방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방안을 내놓았다”며 “중국의 비자 발급 대응은 합리적이고 우리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정당한 요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중국발 입국자 규제는 정치적 쇼라는 비난도 했다.

신문은 “미국과 일본은 새로운 감염병 상황을 겪고 있고, 한국 언론에도 미국서 확산하는 XBB 변이가 유럽으로 확산하려 한다는 보도가 많다. 한국은 입국 제한 정책에 호들갑을 떨었고, 그것은 사람들에게 정치적 쇼가 아닌지의 심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일반부동산

북 구

더블리치공인(김태동, 북구)가 15-2290
★창고, 공장★ 건83㎡

4억2천 층고6m, 최신축
검단동 도로변
준공22년11월 010-7437-5535

한백공인증개사(김성현, 북구)가 15-2624
★창고, 공장★ 건45

16억9000 농산물시장인근
칠곡중앙대로변 010-8588-7112

달 서 구

LG부동산(박종수, 달서) 27290-2022-0008

★이층 통상가★

대160㎡, 대도로코너
달서구 커피, 반점 등 적지
옹동12억3천, 초급매 053)643-8988

남 구

부자공인(최원정, 남구) 27200-2022-0002

※호텔 급매

20억인수 룸35
월1억, 장부공개 053)263-7101

동 구

모부동산(안근호, 동구) 27140-2020-0130

★평화시장대로변

상가 826㎡(250)
당2,300만, 금매 053)942-4080

금상동(김성현, 동구) 27140-2018-0049

모텔 동촌유원지</



경북지역 여성들이 계묘년 새해를 맞아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2023 경북여성 신년교례회'가 11일 경상북도 여성단체협의회 주최로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열렸다. 여성단체협의회 제공



(사)담수회(회장 박연탁)는 11일 담수회관에서 우종익 대구향교 전교를 비롯해 유관 유림단체장, 임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60주년 2023 계묘년 신년인사회를 가졌다.

"30만 여성리더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자"

경북여성 신년교례회 개최

23개 시군 600여명 참석
"지방시대 선도 역할 담당"

경북지역 여성들이 계묘년 새해를 맞아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2023 경북여성 신년교례회'가 11일 경상북도 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경애) 주최로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열렸다.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개최된 이 날 행사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임자국 회의원,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주낙영 경주시장, 도 및 시·군의원 등 정·재계 인사 및 도 단위 기관단체장과 경북의 여성 지도자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 여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난해 다양한 여성단체 활동을 돌아보고, 계묘년 새해 더 크게 더 새롭게 도약하는 경북을 만드는 데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마련했다.

행사는 새해 힘찬 출발을 기원하는 도립국악단의 대북공연을 시작으로 경북 여성단체 활동 영상을 상영과 축하공연, 시루떡 자르기 등 새해 인사와 덕담

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또 '새로운 시작 함께하는 여성' '지방시대 선도경북'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경북여성단체와 경북도의 새해 염원을 담은 메시지도 전달했다.

김경애 경북여성단체협의회장은 "여성단체의 최종 목표인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가고, 여성들의 힘을 모아 경북이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형 돌봄 보육사업으로 지역의 여성들이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도 언제든지 사회로 복귀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성평등 문화 확산을 통해 행복한 가정과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여성 지도자 여러분께서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행사 주관단체인 경북여성단체협의회는 현재 23개 도단위 회원단체와 23개 시군단체로 구성돼 있으며, 1980년 창립 이후 여성 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해오고 있다. 30만여 명의 회원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의 권리 신장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채근 기자 mincho@imaeil.com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공연예술경영대상' 등 7개 상 수상

대구오페라하우스 '심청' 제작
대구예술연습공간 60% 대관
"조직 안정화·도약 최선 노력"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 ▷공연예술 ▷시민문화향유 ▷문화예술교육 ▷관광 4개 부문에서 공연예술경영대상, 한국문화예술위원회장상, 교육부장관 표창 등 7개 상을 받았다.

대구오페라하우스는 지난해 누적 방문객 40만 명, 평균 84%의 좌석 점유율을 보였다. 이어 제19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에서 '니벨룽의 반지' 전편을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자체 제작 오페라 '심청'을 선보이며 '2022년 공연예술경영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구공연예술연습공간은 연평균 140여 개의 예술단체가 이용하고 있고 지난 10월까지 대관율이 60%를 넘으며 '공연예술연습공간 운영기관 평가 우수상'을



왼쪽부터 대구오페라하우스 공연예술경영대상, 대구공연예술연습공간 우수상, 관광본부 제12회 2022 대한민국 SNS 관광 분야 대상 수상 모습.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제공

수상했다. 문예진흥원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서도 ▷빵빵한 잔액 소진 이벤트 ▷가맹점 안내 책자 제작 ▷이용 편의를 위한 e그린우편 발송 등을 통해 문화 소외계층의 이용권 확대를 이끌고자 했다.

대구콘서트하우스는 대구시교육청과 연계한 'D-Art路(로) 프로젝트', 지역 초등학교 교사들과 협력한 '클래식 오아시스'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역 학생들의 진로 탐색 활동에 협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교육부장관 표장'을 수상했다.

관광본부의 대구 관광 공식 SNS(제명 대로 대구로드)는 '제12회 2022 대한민

국 SNS 시상식 관광 분야 대상'에 이어 '제15회 대한민국 소통 어워즈 지역 관광 부문 대상'을 받았다.

김정길 문예진흥원 원장은 "조직 안정화에 심혈을 기울여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배주현 기자 pearzoo@imaeil.com



재경영덕군향우회원 '설맞이 장보기 투어'

영해만세시장 100여명 방문

재경영덕군향우회 회원 100여 명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10일 영해만세시장을 찾아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투어를 진행했다.

이날 회원들은 군청 직원과 상인회장의 안내를 받아 물가자미, 농수산물, 홍계간장 등 고향의 특산물을 구입하고 현대화된 시장 시설을 둘러봤다.

남후식 재경영덕군향우회 회장은 "향우들을 따뜻하게 맞아준 영덕군과 군의회, 시장 관계자분께 감사한 마음"이라며 "이번 전통시장 장보기 투어를 통해 회원들의 애향심이 더욱 고취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올해부터 전통시장 러브투어 사업을 통해 대형버스 임차비 50만원을 지원하고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해 전통시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라며 "고향 영덕을 사랑해 주시는 마음에 보답하고자 영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영해만세시장은 1965년 개설돼 매월 5, 10일 열리는 5일장에 뿐만 아니라 상설시장이다. 예로부터 안동과 영양 등의 내륙지방에 수산물을 공급하는 관문 역할을 했으며, 일제강점기인 1919년 3월 18일 동해안 최대 규모의 만세운동이 거행된 장터로 역사와 전통이 깊은 시장이다.

김대호 기자 dhkim@imaeil.com

생동감 넘치는 화풍 김정기 대구미술협회장 별세

대구수채화협회장도 역임

김정기 대구미술협회 회장이 10일 별세했다. 향년 57세.

수채화와 유히로 우리에게 친숙한 자연의 모습을 그려온 그는 회화적 순수성이 돋보이고 생동감 넘치는 화풍으로 많은 이에게 사랑을 받아왔다.

고인은 계명대 미술대학 및 예술대학원을 졸업했으며 2011년 대구미술발전인상, 2016년 대구미술인상, 2019년 정수미술대전 초대작가상 등을 수상했다.

대구청년작가회 회장을 맡았을 당시 대한민국 청년비엔날레를 주관했으며 한유회 회장, 대구사생회 회장, 대구수

채화협회 회장도 역임했다.

지난해 2월 4년 임기의 제22대 대구 미술협회장에 당선돼 활동을 이어왔으나 지병이 악화돼 유명을 달리했다. 대구미술협회장의 남은 임기는 정관에 따라 수석부회장이 직무대행으로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빈소는 대구시민전문장례식장 VIP 301호이며 4일장으로 치러진다. 발인은 13일(금) 오전 6시 30분이다. 유족으로는 부인 정선하 씨와 아들 김동우·재훈씨가 있다. 이연정 기자 lyj@imaeil.com



안동JC 특우회 회장단 이·취임식

경북 안동JC 특우회는 10일 안동 북향 대회 의실에서 박대원 신임 회장 취임 등 회장단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주)비엔지평화상사(대표 남상식)는 10일 대구 남구자원봉사센터(센터장 김봉기)를 방문해 설맞이 사랑의 백미 10kg 417포(1천만원 상당)를 기부했다. 남구자원봉사센터는 이날 후원받은 백미를 설 명절 어려운 이웃을 위해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주)지오엠티에스(공동대표 표정엽·김민재)는 9일 경북 군위군(군수 김진열)에 마스크 10만 장을 기부했다. 마스크는 군위군 사회복지시설과 경로당에 전달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노재승 한국탄소학회장



노재승 금오공과대학교 신소재공학부 교수가 최근 (사) 한국탄소학회 제12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2년이다.

노 교수는 한국탄소학회 학술이사와 재무이사, 부회장, 선출직 수석부회장 등을 역임 했다. 또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 고부가 인조 흑연 기술개발, 탄소소재 자립화 기술개발, 탄소복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 다양한 정부 과제 수주를 통해 탄소소재 국산화에 기여하고 있다.

1999년 창립된 한국탄소학회는 1천6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탄소 분야 학회다. SCI급 국제 학술지인 'Carbon Letters', 기술지인 '탄소과학과 기술' 등을 발간하고 있다. 노 신임 회장은 "한국탄소학회 회원들이 탄소 분야에 새로운 영감과 비전을 제시하고, 세계 탄소 학문 발전과 산업을 선도하는 학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희 기자 lch888@maeil.com

박현철 영덕고향사랑기부 1호



포항시에 거주하는 영덕군 출신인 박현철(사진 왼쪽) STM 대표가 고향사랑기부제 영덕군 1호 기부자에 이름을 올렸다. 박 대표는 이날 최고한도액 500만원을 기부했다.

박 씨는 "내 고향 영덕의 발전에 힘을 보탤 수 있어서 뜻깊은 마음으로 기부하게 됐다"며, "더욱 많은 출향민께서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해 귀중한 담례품도 받고 고향 영덕을 위한 상생의 미덕을 실천해 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고향사랑을 실천해 주신 깊은 뜻에 큰 감명과 고마움을 느꼈다"며,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와 운영에 심혈을 기울여 지역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대호 기자 dhkim@maeil.com

장준용 김천고향사랑기부 500만원



장준용 부산시 동래구청장 이 김천시 고향사랑기부액 최고한도인 500만원 기부자로 이름을 올렸다.

11일 김천시에 따르면 김천 시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 한 기부자 중 지방자치단체장 은 장 구청장이 처음이다. 장 구청장은 별도의 연락 없이 온라인으로 기부금을 전해 왔다.

김천시 대덕면 출신인 장 구청장은 유년 시절 을 김천에서 보내고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제38대 동래구청장으로 재임 중이다.

장준용 구청장은 "고향인 김천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다"며 "이번 기부를 통해 고향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현일 기자 hyunil@maeil.com

“잘 가르치는 대학, 학생들 스스로 다니고 싶은 대학 만들 것”

**성한기 대구가톨릭대 총장 취임
조환길 대주교 등 500여명 참석
‘구성원들과 생산적인 소통 지속’**

대구가톨릭대 제28대 성한기 신임 총장 취임식이 11일 교내 종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취임식에는 조환길 학교법인 선목학원 이사장(천주교대구교구장)을 비롯해 학생, 교직원 등 대학 구성원 500여 명이 참석해 신임 총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축복 기도, 총장 약력 소개, 취임 선서, 임명장과 학교 열쇠 인계, 이사장 식사(式辭), 총장 취임사, 구성원들의 축하 영상 메시지 상영, 축가 등으로 진행됐다.

성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학생이 사랑받고, 교직원이 존중받고, 교수가 존경받는 문화를 정착시켜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대학을 이루는데 힘쓰고자 한다"며 "잘 가르치는 대학, 인성 교육, 비교과 시스템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해 학생들이 스스로 다니고 싶은 대학으로 만

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 "학교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통에 최역점을 두고, 구성원들과 진지하게 때로는 치열하게 생산적인 소통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 '소화(소통과 화합)가 잘 되는 대학'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취임 슬로건을 '함께 만드는 더 나은 미래, Together We Can'으로 제시했다.

대구가톨릭대는 이번 취임식을 코로나 등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대학 구성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하고 참석자들에게 담례품도 제공하지 않았다. 절감된 행사 운영비는 추후 학생들을 위한 교육 환경 개선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성총장은 성균관대 산업심리학과 경영 학사를 취득하고, 같은 대학에서 심리학과 석·박사를 수료했다. 1990년부터 대구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로 부임해 입학처장, 교무처장, 교학부총장 등을 역임하고 지난 1일 제28대 총장으로 취임했다. 서광호 기자 kozmo@maeil.com



11일 열린 취임식에서 성한기(오른쪽) 대구가톨릭대 신임 총장이 조환길 학교법인 선목학원 이사장으로부터 학교 열쇠를 인계받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구가톨릭대 제공

“나를 다시 일어서게 도와준 구미는 제2의 고향”

천하장사 이태현 교수 공무원 특강

“이종격투기 선수로 좌절 느낄 때
‘제2의 씨름’ 도전 제안 항상 감사”

천하장사 이태현 용인대 무도스포츠학과 교수가 11일 오전 구미시청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요특강을 했다.



이날 이 교수는 특강에서 씨름 선수 시절의 경험, 이종격투기 선수로서 도전과 실패, 구미에서 다시 일어선 과정 등 백두장사 최다승 타이틀을 가지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이야기로 풀어냈다.

이 교수는 '구미와의 인연은 초등학교 4학

년 시절 구미초등학교에 전학을 가면서 시작

됐다"며 "씨름을 그만두고 이종격투기 선수

생활을 하며 좌절을 느낄 때 다시 씨름으로 재

기할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준 곳이 구미다.

구미를 고향처럼 항상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시련을 겪는 기간도 있었지만 천하장사 3회, 지역장사 12회, 백두장사 20회, 기타 장사대회 5회 등을 포함해 최다 상금 대기록을 세웠다.

그는 "이종격투기 은퇴 후 좌절하고 있을 때 구미시청 팀으로부터 '제2의 씨름' 도전을 제안받았고, 결국엔 백두장사 최다인 20회를 기록할 수 있었다"며 "그 경험을 바탕으로 씨름 선수를 응원하고 나서도 교수, 해설위원, 홍보 대사 등 씨름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이 교수는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생각으로 용인대학교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늘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있다.

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구미시의 향후 변화가 기대된다"며 "저 역시 씨름의 세계 진출과 씨름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광 기자 kwang623@maeil.com

전정승 대표이사 아너소사이어티 대구 214호

부부 회원 부모님 이어 가입

않았다. 어려운 집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남몰래 찾아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도 했다.

전 대표이사는 이러한 부모님의 가르침에 보답하고자 2019년 2월 어머니를, 2021년 2월 엔 아버지를 대구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에 가입시켜 드렸다. 이를 통해 아버지 고(故) 전수종 응과 어머니 고 박영자 여사는 대구 첫 번째 고인(故人) 부부 아너소사이어티가 됐다.

여기서 전 대표이사 본인도 이번에 214호로 가입하며 부모님과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이 됐다.

전 대표이사는 "이웃을 도우시며 환하게 미



소 지으시던 부모님이 생각난다"며 "행편이 좋았던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니 많은 사람들이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가입 소감을 전했다.

윤정훈 기자 hoony@maeil.com

▶43년생 재료운

▶44년생 슬픔이 지나

▶45년생 매사를 깔끔

▶46년생 당신이 성취

▶47년생 자신의 생각

▶43년생 슬픈

▶44년생 기쁨이 찾아올 수

▶45년생 완벽하게 처리하

▶46년생 대기록을 세웠다

▶47년생 일정을 확정해

▶48년생 자신의 생각

▶49년생 주변에 다른

▶50년생 자신의 생각

▶51년생 자신의 생각

▶52년생 자신의 생각

▶53년생 자신의 생각

▶54년생 자신의 생각

▶55년생 자신의 생각

▶56년생 자신의 생각

▶57년생 자신의 생각

▶58년생 자신의 생각

▶59년생 자신의 생각

▶60년생 자신의 생각

▶61년생 자신의 생각

▶62년생 자신의 생각

▶63년생 자신의 생각

▶64년생 자신의 생각

▶65년생 자신의 생각

▶66년생 자신의 생각

▶67년생 자신의 생각

▶68년생 자신의 생각

▶69년생 자신의 생각

▶70년생 자신의 생각

▶71년생 자신의 생각

▶72년생 자신의 생각

▶73년생 자신의 생각

▶74년생 자신의 생각

▶75년생 자신의 생각

▶76년생 자신의 생각

▶77년생 자신의 생각

▶78년생 자신의 생각

▶79년생 자신의 생각

▶80년생 자신의 생각

▶81년생 자신의 생각

▶82년생 자신의 생각

▶83년생 자신의 생각

▶84년생 자신의 생각

▶85년생 자신의 생각

▶86년생 자신의 생각

▶87년생 자신의 생각

▶88년생 자신의 생각

▶89년생 자신의 생각

▶90년생 자신의 생각

▶91년생 자신의 생각

▶92년생 자신의 생각

▶93년생 자신의 생각

▶94년생 자신의 생각

▶95년생 자신의 생각

▶96년생 자신의 생각

▶97년생 자신의 생각

▶98년생 자신의 생각

▶99년생 자신의 생각

▶00년생 자신의 생각

▶01년생 자신의 생각

▶02년생 자신의 생각

▶03년생 자신의 생각

▶04년생 자신의 생각

▶05년생 자신의 생각

▶06년생 자신의 생각

▶07년생 자신의 생각

▶08년생 자신의 생각

▶09년생 자신의 생각

▶10년생 자신의 생각

▶11년생 자신의 생각

혁신을 이끌어갈 도전적인 질문을 가진 리더



KBS1 '신년 기획 최초의 질문' 오후 10시

KBS 1TV '신년 기획 최초의 질문'이 12일 오후 10시에 방송된다. 도전적인 질문으로 혁신을 이끌어갈 리더가 되는 방법을 살펴본다. 최자천 교수는 질문을 가진 리더를 길러내는 하버드대학에 주목한다. 다양한 사람들과 생각을 나누며 자신과 세상을 향해 질문을 던지며 목표를 찾아낸 리더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가슴 뛰는 질문이 없는 곳에 인재가 머물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정동 교수. 누구에게나 새로운 것을 꿈꾸는 기업가 정신이 있고, 리더가 도전적 목표를 제시할 때 구성원들의 잠재력 또한 최대

한 발휘될 수 있다고 말한다. 과연 우리 리더는 지금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가?

한편 자율주행차의 아버지로 불리는 세계적인 공학자 세바스찬 스런에게는 특별한 인사 원칙이 있다. 혁신적인 일을 할 때 리더가 모든 것을 다 알아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거침없이 질문하며 문제점을 찾아야 높은 수준의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말한다.

이신혜 기자 tvbox@maeil.com

cpbc
FM 100.5 MHz
김천가톨릭평화방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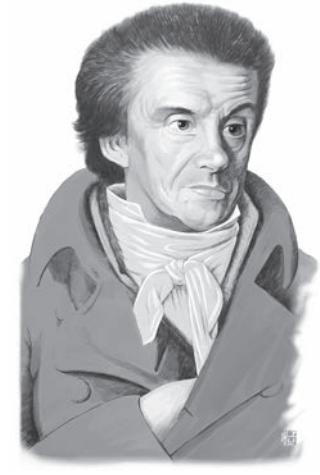
주님 안에서 기뻐하여라
오후 4시 5분
朝日新聞 뉴스
낮 12시

오늘의 역사

1746년 1월 12일

교육개혁가 페스탈로치 탄생

세계적인 교육개혁가 요한 하인리히 페스탈로치가 스위스 취리히에서 태어났다. 그는 루소의 교육론 '에밀'을 읽고 감동받아 어린이 교육에 일생을 바쳤다. 교육의 목적을 머리와 마음과 손의 조화로운 발달에 두고 노동을 통한 교육을 인간 도약의 근본 원칙으로 삼아, 올바른 사회로의 개혁에 이바지하는 일꾼 양성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의 교육론은 많은 국가에서 받아들여져 루소와 함께 신교육의 원천이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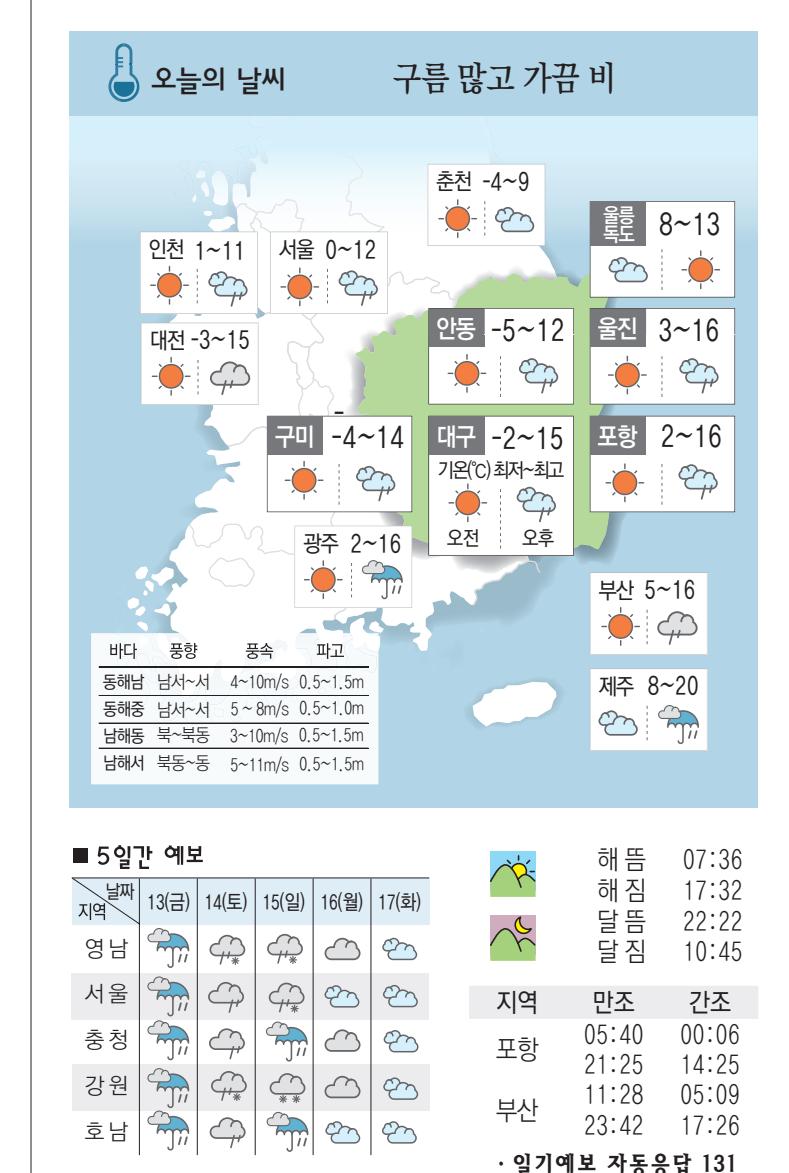


박상철 일러스트레이터 estlight@naver.com

TV 프로그램

| KBS1 | KBS2 | MBC | TBC/SBS | EBS1 |
|--|---|--|--|--|
| 5: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한국인의 밥상(재) | 5:00 해 불만한 아침 M&W 스페셜(재) 6:00 KBS 뉴스광장 7:50 인근드장 8:25 아침마당 9:30 KBS뉴스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00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재) 12:00 KBS 뉴스 12 | 5:00 포비든 앤리(재) 6:0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 5:00 네트워크 토큰(재) 6:00 MBC 뉴스투데이 7:20 대구 MBC 뉴스투데이 50 일월드라마(마녀의 게임)(재) | 5:00 월초보 영어 6:00 클래스 e(2) / 50 한국기행(재) 6:10 세계미디어(행사) 7:00 모닝와이드 3부 40 모닝와이드 3부 15 하프나인 친구들(종합) 45 하프나인 친구들(종합) 50 좋은 아침 9:55 SBS 10 뉴스 10:15 TBC 뉴스 30 열린TV 시청자세상 11:30 고향이 보인다 12:00 EBS 12 뉴스 / 20 민방 네트워크 NEWS 50 금토드라마(금화령)(재) |
| 1:00 KBS네트워크특집 별별다방 5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 1:00 영상발행 신(재) 30 수퍼맨이 물어온다(재) | 1:55 2시 뉴스 와전 3:55 기분 좋은 날(재) | 2:00 뉴스브리핑 4:00 템마 스페셜 5:00 SBS 오뉴스 30 TBC 대경뉴스광장 50 생방송 굿데이 | 10:10 한글의 둘레길(재) / 30 한국기행(재) 50 최고의 오디비결 11:20 세계미디어(행사) 12:00 EBS 뉴스 12 / 10 EBS 교육진단 1:00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50 명의(재) 2:45 한국의 둘레길(재) 3:05 나를 위한 매일 수업 35 구가면과 천사들 4:05 영어 스토리 타임 15 페파 피그 / 25 한글용사 아이(재) 40 당첨된 우편(재) |
| 2:00 KBS 뉴스 10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공청회 4:00 사사건건 5:00 KBS 뉴스 5 30 라이브 오늘 | 3:00 KBS 뉴스타임 10 두루뭉실 동계공항 2(재) 30 TV유치원 4:00 누가 누가 잘하나 5:00 일상방송 캐치 티나(평) 15 꼬마공룡 크양 30 놀친 예능 따라잡기 50 통합스쿨 ET | 4:55 5 MBC 뉴스 5:10 실화탐사대 스페셜 | 10:20 22~23 V-리그 여자부 흥국생명·현대건설 12:25 월권저축은행 PBA팀리그 2022~2023 15:25 월권저축은행 PBA팀리그 2022~2023 17:00 이스포츠 토너먼트 19:00 토론판스팅 토너먼트 21:00 월권저축은행 PBA팀리그 2022~2023 23:00 제1회 이지스카이CC 퀸즈 트로피 | 10:30 2022 크리운하태비 16강전 신민준·박지현 12:00 2022 크리운하태비 16강전 신민준·박지현 1:00 최강자(최자·최고) 2:45 공상기 10:45 공상기 11:35 우대현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55 클래스 e(1) 12:15 EBS 비즈니스 리뷰 30 지역채널(1)/35 지역채널(2) 40 나에 빠진 세계 |
| 6:00 6시 내고향 7:00 KBS 뉴스 7 대구경북 40 한국인의 밥상 8:30 일일연속극 (내 눈에 꽁꽁자) | 6:30 6시 내고향 7:50 일인드라마 (태풍의 신부) 8:30 세컨 하우스 | 6:05 생방송 오늘 저녁 7:05 생방송 연극복권 10 일일드라마 (여자의 게임) 40 MBC 뉴스데스크 | 6:50 생방송 투데이 7:50 SBS 8 뉴스 8:30 TBC 8 뉴스 | 5:00 월초보 영어 6:00 클래스 e(2) / 50 한국기행(재) 6:10 세계미디어(행사) 7:00 모닝와이드 3부 40 모닝와이드 3부 15 하프나인 친구들(종합) 45 하프나인 친구들(종합) 50 좋은 아침 9:55 SBS 10 뉴스 10:15 TBC 뉴스 30 열린TV 시청자세상 11:30 고향이 보인다 12:00 EBS 12 뉴스 / 20 민방 네트워크 NEWS 50 금토드라마(금화령)(재) |
| 9:00 KBS 뉴스 9 10:00 신년 기획 최초의 질문 2면 50 더 라이브 11:30 KBS 뉴스라인 12:10 예술의 전당(재) 1:00 국립오페라단 부지니오페라(라 보엠) 2:3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40 한국의 인류유산(재) 45 해 불만한 아침 M&W 스페셜 3:45 아침마당(재) | 9:50 국제제미상 수상기념 다보는(연묘)(재) 11:00 텔레플러스 12:05 아이 러브 스포츠 30 통합뉴스룸 ET(재) 1:00 사랑의 기족(재) 55 KBS 재난방송센터(재) | 9:00 예산추적프로젝트 빙번거 40 전국시대 스페셜 10:00 심야괴담회 30 통합뉴스룸 ET(재) 1:00 사랑의 기족(재) 55 KBS 재난방송센터(재) | 9:00 관계자 외 출입금지 10:30 고리에 고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12:00 굿데이 스페셜 1:00 최강자(최자·최고) | 10:30 2022 크리운하태비 16강전 신민준·박지현 12:00 2022 크리운하태비 16강전 신민준·박지현 1:00 최강자(최자·최고) 2:45 공상기 10:45 공상기 11:35 우대현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55 클래스 e(1) 12:15 EBS 비즈니스 리뷰 30 지역채널(1)/35 지역채널(2) 40 나에 빠진 세계 |

•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02-735-6511 • 스키아이라이프 1588-3002 • (주)이피지 02)569-5995
※지면판계상 모든 채널과 프로그램을 소개하지 못함을 양해 바랍니다.



케이블·위성TV

| KBS N 스포츠 | MBC 스포츠+ | SBS 끌프 | SBS 스포츠 | 비디오 TV |
|--|---|--|---|---|
| 11:00 날아갈수돌이3기 13:00 V리그 최고의 경기 16:00 V리그(여자부)흥국생명·현대건설 18:30 V리그(남자부)현대캐피탈·KB손해보험 21:30 EVERYDAY 스페셜V 24:00 V리그(남자부)현대캐피탈·KB손해보험 | 10:00 카카오월드 2022 8강 H. +왕밍랜드:프랑스 13:00 미들급 +안드레데:니콜슨 15:00 호주프로야구 +오플랜드:질롱 코리아 18:30 월권저축은행 PBA팀리그 2022~2023 21:30 월권저축은행 PBA팀리그 2022~2023 24:00 2020 도쿄올림픽 여자양궁 개인 H. | 10:10 임진환의 인생샷 13:00 미들급 +안드레데:니콜슨 15:00 호주프로야구 +오플랜드:질롱 코리아 18:30 월권저축은행 PBA팀리그 2022~2023 21:30 월권저축은행 PBA팀리그 2022~2023 24:00 제1회 이지스카이CC 퀸즈 트로피 | 10:10 22~23 V-리그 여자부 흥국생명·현대건설 12:25 월권저축은행 PBA팀리그 2022~2023 15:25 월권저축은행 PBA팀리그 2022~2023 17:00 이스포츠 토너먼트 19:20 임진환의 인생샷 22:30 제1회 이지스카이CC 퀸즈 트로피 | 10:30 22~23 V-리그 여자부 흥국생명·현대건설 12:25 월권저축은행 PBA팀리그 2022~2023 15:25 월권저축은행 PBA팀리그 2022~2023 17:00 이스포츠 토너먼트 19:20 임진환의 인생샷 22:30 제1회 이지스카이CC 퀸즈 트로피 |
| OCN | 스크린 | 씨네피 | SBS Biz | 매일경제 TV |
| 11:40 미나언즈 13:30 크레이지리치아시안 15:50 미싱! 그들이 있었다2 18:30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21:00 인질 23:00 협상 | 11:40 이장 13:35 디파더 15:35 이너프 17:55 빅뱅이론8 19:15 FBI1 21:15 NCIS14 | 11:35 CSI:9 13:35 NEW고스트버스터즈2 15:40 카운터파이터 17:45 밤의 여왕 20:00 미션스탈볼2 22:00 미션스탈볼3 | 11:25 백브리핑 시사기획 14:00 재테크 노하우 미니쇼 15:40 조선 정신과 의사 유세풍2 19:20 나는 솔로 20:20 미션스탈볼2 22:00 미션스탈볼3 | 10:00 증권광장 13:30 증시 오늘과 내일 15:40 황금전략 19:00 매거진 투데이 시즌2 20:00 스치면 상한가 1부 23:00 뉴스투나잇 |
| KBS 드라마 | MBC 드라마 | SBS Plus | tvN | 다스커버리 |
| 10:40 무엇이든 물어보살 13:20 살립하는 남자들2 16:00 신상출시 편스토랑 19:50 옥탑방의 문제아들 21:10 차트를 달리는 남자 23:30 무이든 물어보살 | 11:50 라디오스타 13:30 해피엔딩 17:10 어서와 한국같이하는 처음이자? 18:50 나 혼자 산다 22:30 라디오스타 24:10 앤씨우먼 다행이야 | 11:30 신발 벗고 풀심포맨 12:20 신발 벗고 풀심포맨 17:10 미운 우리 새끼 19:30 나는 솔로 22:20 당신의 결혼은 안녕하십니까 23:50 동상이몽 2 너는 내 운명 | 10:00 내 어깨를 봐 달걸 됐잖아 12:20 환한 빛과 그림자 15:40 조선 정신과 의사 유세풍2 19:20 한도조과 20:40 스キン 23:50 서울 체크인 | 11:20 전기의 할매 14:25 한동호 17:00 잠자 2 19:20 크리昂 퀴즈풀어파일 2 21:10 라디오 살리풀 in Seoul: 확장판 22:30 펫과 사전 |
| MBN | TV조선 | JTBC | 채널A | YTN |
| 10:00 생생 정보마당 12:40 일토란 스페셜 15:00 뉴스파이어 17:50 MBN 뉴스와이드 20:10 일요방 22:00 불티는 트로트맨 | 10:30 더 위대한 유산 13:00 보도부 학원 17:30 사사소이 이기야 정치다 19:00 일중동글 21:00 TV CHOSUN 뉴스9 22:00 미스터트롯 2 새로운 전설의 시작 | 11:40 카카오월드 PART 2 13:00 대행사 17:10 정치부 회의 19:50 JTBC 뉴스룸 20:50 한불리 22:30 사랑의 이해 | 10:30 신랑수업 스페셜 13:20 사랑은 처음이라 ver 1.5 15:50 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새끼 17:20 뉴스 TOP10 20:10 나는 물신이다 22:40 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새끼 | 11:40 뉴스N이슈 13:50 더뉴스 15:50 뉴스Q 19:00 뉴스가 있는 저녁 21:35 뉴스나이트 23:50 자정뉴스 |
| 토니버스 | JET재능TV | 챔프 | YTN 사이언스 | 내셔널지오그래픽 |
| 11:00 이상한 과자기게 전천당 14:00 아이엠스타 17:00 도티TV 19:00 미카란로니2 21:00 네모바지 스펜지밥 24:00 이누이샤 | 10:00 리틀하이로 제이 14:30 슈퍼파일리 인싸리언저 16:30 티티체리 19:00 이상한 과자기게 전천당 21:00 긴급 수상의 미녀 23:00 바쿠간 배를 바구기어 | 10:00 도라수니월드 PART 2 13:00 브레인 이발소 15:00 극장판 안녕 자두야 18:00 | | |

마스크도 패션이다 발렌키에서 만들면 다르다!

의약외품 | 식약처허가

KF94 마스크

입체구조로 쾌적하게,
장시간 착용에도 편안하게,
밀착구조로 안전하게,
다중필터 ——

미세먼지방역

MADE IN KOREA



대형 1매입

감염차단

부분 4중구조필터

고탄력밴드



100%
국내생산



화이트

블랙



발렌키 KF94 새부리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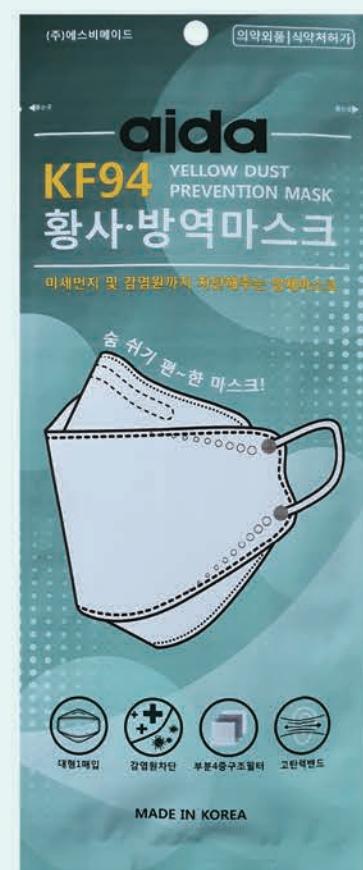
코와 입의 라인을 분리하여
편안함을 높여주는
새부리형 마스크!

KF94 정전필터

유해물질로 부터
완벽하게 보호한다!



(2D 마스크)



(3D 마스크)

2D / 3D / 덴탈마스크 / 아동용마스크

NAVER

발렌키마스크



상품상담전화 : 053-552-7088
상품주문휴대폰 : 010-7498-7088
상품주문팩스 : 053-555-7188

Balenkey
발 렌 키

주소, 현실을 넘어 디지털 세상으로

기고

구본근
행정안전부
지역기반정책관

바야흐로 작금의 시대는 넘쳐나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활용하여, 새로운 혁신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다. 이에 따라 새 정부에서도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을 위해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디지털 전환을 국정 운영의 우선 과제로 선정하였다.

디지털 전환의 핵심은 하루에도 수없이 만들어지는 다양한 데이터를 쉽게 이해하고, 서로 다른 성격의 데이터를 융합·분석하여 새로운 가치를 생성해 내는 일이다. 하지만 문제점이 있다. 데이터를 생성하는 주체가 다르다 보니, 데이터의 형식과 내용에 일관성이 없다는 거다. 이처럼 파편화된 데이터를 하나의 주체가 만든 것처럼 끊김 없이 연결해 줄 수는 없을까?

우리나라에서 개인을 식별하는 코드는 주민등록번호이다. 그렇다면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공간에 대한 식별 코드는 무엇일까? 바로 주소다. 이제 주소는 가상과 현실 세계를 연결하고, 파편화된 정보를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을 기준으로 연결하는 매개체로 주목받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6월, 2026년까지의 주소정책 방향을 담은 '제1차 주소 정보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소 정보 기반의 데이터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주소 정보로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상이 오면 어떤 일들이 가능해질까?

첫째, 공간 데이터 분석에 주소를 활용하면 보다 정밀하고 상세한 분석이 가능해진다. 상권 분석의 경우 구역 단위로만 이루어지던 것을 앞으로는 주소 기반 데이터로 분석하며, 골목마다 도로마다 상권을 분석할 수도 있고 건물 단위별로도 정확한 분석이 가능해진다. 상권 분석 관련 데이터를 수집할 때, 도로명, 도로구간,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더 나아가 사물 주소, 공간주소, 시간주소, 입체주소와 같이 고도화된 주소 단위로 데이터의 획득과 분석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둘째, 주소를 이용한 위치 기반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기존의 내비게이션 등에서 사용 중인 위치 정보는 대구 서구에 소재한 동일한 장소를 '중리진달래2차아파트'·'중리진달래아파트2차·'중리동진달래2차아파트'와 같이 정보 제공자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어 았기 때문에 데이터를 다른 분야에서 활용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주소는 도로명주소 부여 방법에 따라 동일한 위치 정보로 제공되며, 이를 사람과 기계가 모두 인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인간과 로봇이 갈 수 있는 모든 공간의 위치를 표현할 수 있도록 주소가 고도화되면 주소 기반의 서비스(ABS·Address Based Service)란 새로운 혁신 인프라가 만들어질 수 있다.

셋째,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혁신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모빌리티, 사회안전망 등의 다양한 공공 영역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최근 대구시 달서구에서는 해외 사례를 분석하여, 주소 정보를 중심으로 대중교통·자동차·공유자전거 및 킥보드 등의 이용 정보 데이터를 상호 연계할 수 있는 활용 모델을 마련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이 주소 정보를 기반으로 지역 내 다양한 서비스를 융합하거나 새로운 혁신 서비스의 발굴이 활성화될 것이다.

주소는 그동안 시대 변화에 걸맞게 진화해 국민의 삶을 보다 편리하게 변화시켜 왔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주소는 또 한 번 도약할 준비를 마쳤다. 모든 데이터가 주소로 연결되어 '주소로 안전하고 편리한 나라'가 하루빨리 구현되기를 기대한다.

김승동의 새論새評

서울미디어
대학원대학교
특임교수
(정치학 박사)

다음 달이면 러시아 우크라 침공 1년
오랜 전쟁에 밀바닥 보인 러국민들

최근엔 반전·푸틴 비판 여론도 확산
러, 이성 되찾고 침략 전쟁 중단해야

성탄절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이 지난해 2월 24일이니 거의 1년이 다 돼 간다. 우크라이나는 정교회 신자가 다수라 매년 1월 7일을 성탄절로 기념하는데 전쟁 이후 처음으로 지난 주말에 성탄절을 맞았다. 각별한 의미가 있었겠으나 성탄절 이브인 지난 6일 오후에도 키이우를 포함해 우크라이나 전역에

칼을 쳐서 보습으로, 창을 쳐서 낫을

등에 포격 피해가 이어졌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선제공격을 해 대응사격했다고 주장했다. 어쨌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교회 성탄절을 기념하자며 러시아군에 내린 36시간 휴전 명령이 무색해졌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사한 러시아 군인 부인들이 지난 4일 푸틴 대통령에게 대대적 동원령 발령을 주문했다고 한다. 이 미망인 단체는 또 징집 연령 남성들이 러시아를 떠나지 못하도록 국경을 폐쇄할 것도 요구했다. 이들은 "우리는 이렇게 요구할 충분한 도덕적 권리가 있다" "우리 남편들은 다른 남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죽었지만, 그들이 도망가면 누가 우리를 보호할 것인가?"라고 외쳤다. 이들은 또 "2차 대전 당시 스탈린이 군에 내린 '후퇴 금지 명령'과 유사한 지시를 내릴 것도 요구한다"고 했다고 한다. 주장의 요점은 '자기 남편이 죽었으니 남의 남편도 죽으라고 하는 것'이고, '자신들의 죽음이 두려워 남의 남편들과 아들을 총알받이와 방패로 삼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전쟁 미망인들의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인간 본성을 되돌아보게 한다. 전쟁이 원래 그렇지만 밀바닥이 드러난 인간 본성을 보니 전쟁도 무섭지만 인간이 더 무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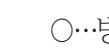
사실 놀랄 것도 없다. 인간은 원래 원죄를 가진 악한 존재다. 배가 고프면 자자

식도 잡아먹는 것이 인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성경(열왕기하 6장)에 나오는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이 에피소드는 솔로몬 사후 이스라엘이 망하고 타락해 가는 과정에서 사마리아에 먹을 것이 없자 인간들이 보여 준 한 단면이다. 대체로 세상의 거의 모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선 자기 목숨이라도 내주지만 타락하고 악하면 이런 막장을 살아가는 것도 인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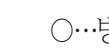
러시아 전쟁 미망인들도 자기 남편이 죽었

다고 해서 남의 남편과 자식들까지 죽도록 해야 할까? 그들이 두려움을 피하고 평안을 얻고자 한다면 전쟁을 그만두면 된다. 몇 뺨 안 되는 우크라이나 평화기를 꼭 빼앗고 압제해야 하나?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때문에 벌써 1천조 원 이상의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러시아도 상당한 피해를 입었는데 전쟁을 오래 끌면 끌수록 러시아의 피해도 더 늘어난다. 이 전쟁에서 푸틴이 승리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이긴 것이 아닐 것이다. 잃은 게 더 많을 것이다. 최근 러시아 내 반전 여론과

○…당국의 금리 인상 자체 권고로 두 달 전 연 5% 넘던 5대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3%대로 추락, 대출 금리는 그대로. 은행들, 유리하면 발빠르고 불리하면 질질 끌고…서민들은 속 터지고.

관풍루
觀風樓

○…방탄 국회 뒤에 숨어 '당당하게' 강조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검찰에선 묵묵부답. 네이버 문건 제시에 급당황하며 정진상에게 책임 전가. 과연 '표리부동'의 화신(化身).



○…모텔에서 동급생 옷 벗기고 때리는 장면을 SNS에 생중계했던 중학생들, 대학생이라 속여 모텔 들어갔고 방 안에선 술도 발견돼. 경찰에도 큰소리치며 난동 부렸다니 놀랄 대목이 더 있을지도.

© 高日新聞

The Maeil Shinmun

발행인·인쇄인 정철룡 편집인 이동관 논설주간 김해용 뉴스국장 김수용 신문국장 이춘수

대표전화

053)255-5001

대표팩스

053)255-8902

광고 신청·안내

080-711-2001

구독·배달 안내

080-711-2002

본사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 20 (계산동271-71)

우)41933

경북지부

054)855-1700

동부지역본부

054)276-0001

서부지역본부

054)453-3333

서울지사

02)733-0755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1946년 3월 1일 청간 1960년 7월 1일 등록 기-29호(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경수의 高日 희평

왜 그러나?? 너도 내 입장 돼 봐봐

외상후 스트레스?



© 高日新聞

The Maeil Shinmun

발행인·인쇄인 정철룡 편집인 이동관 논설주간 김해용 뉴스국장 김수용 신문국장 이춘수

매일신문

www.imaeil.com

물 맑고 공기 좋은
청정 농촌지역 고령!

청정 가야산 지류의 맑은 물과
낙동강변에서 우수한 기술을 바탕으로
고령의 우수 브랜드 상품들이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되고 있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 장터

고령몰 에서 다양한 농특산물을 구입하세요!

gogogoryeong

고령 옥외

고령군

햇살 그린

고령군 우수농산물 공동브랜드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 장터

고령몰 에서 다양한 농특산물을 구입하세요!

TK-부산-광주 신공항 연대

데스크 칼럼

이상준
사회부장

'중추공항' 적시한 TK신공항 특별법안, 가덕신공항 이상 의도 노골화' 'TK신공항 특별법 통과시키지 않겠다'…

새해 벽두부터 부산 지역 언론에 등장하고 있는 기사 제목들이다. 부산여론은 대구경북(TK)신공항에 결코 호의적이지 않다. TK신공항 특별법 통과가 부산의 가덕신공항 건설과 위상 강화에 악재라는 시각 때문이다.

TK신공항 특별법은 이제 단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월 매일신문 주최 신년 교례회에 참석해 2월 국회 통과 목표를 제시했다. 바로 다음 날 국토교통부는 대통령실 신년 업무계획 보고에서 상반기 내 TK신공항 특별법 제정과 사전타당성 조사 완료 계획을 밝혔다.

안타까운 현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부산 의원들이 TK신공항 특별법

을 '과도한 특혜'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문제 삼는 부분은 특별법 제1조의 '중남부권의 중추공항'이라는 문구다. "가덕신공항의 위상을 뛰어넘는 '과욕'"이라는 것이다. 제3조 3항 '중장거리 운항과 최대 중랑 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 건설이 포함된 공항·비행장 규모'라는 표현도 같은 맥락에서 반대하고 있다. TK신공항이 이를 근거로 3.5km로 예정된 가덕신공항보다 큰 3.8km 활주로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간을 2년 전으로 돌려보자. 지난 2021년 2월 국회를 통과한 가덕신공항 특별법이야말로 상식을 넘어서 이례적 법안이었다.

당시 국토부 2차관은 "입지 자체를 특별법에서 정한 사례는 굉장히 아래적"이라는 의견을 냈다. 조용친 민주당 의원은 "공항을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어느 방향으로, 얼마 길이로 만들지 아무도 모른다. 이를 결정할 사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한다는 것은 월 만들지를 모른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당시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게 "가덕도는 2016년 가장 부적합한 입지로 평가받았는데 각종 특혜를 몰아줘서 법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냐"고 질타했다.

그럼에도 당시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에는 수도권 일각 공

항 체제를 우려하는 비수도권의 연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지난해 당시 민주당 대표는 가덕신공항 특별법 통과에 앞서 "대구공항, 광주공항 이전 특별법에 대해서도 지혜를 모아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여기에 대구경북, 광주가 지지를 보냈다.

당시 가덕신공항 특별법과 비교하면 '중추공항' 3.8km 등 표현상의 문제는 부수적 사항에 불과하다. 비수도권 신공항의 근본적인 과제는 TK신공항과 부산 가덕신공항, 광주공항이 '경쟁'을 넘어 '상생' '연대' 관계로 새롭게 나아가는 것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산 가덕신공항도 열심히 해서 대구와 같이 영남권 양대 중추공항으로 추진하자"며 "대구와 부산이 상호 보완하고 협력해 수도권 집중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부산 가덕신공항도 남부권 중추공항으로 추진하고, 활주로 길이도 3.8km로 주진하자"고 덧붙였다.

비수도권 신공항 간 경쟁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그러나 서로 미워하고 싸우기만 하다간 제로섬 게임이 되기 쉽상이다. 안 그래도 '지방' 신공항이라고 하면 무조건 판지부터 걸고 보는 수도권 아닌가. 지금은 대구와 부산이 광주와 함께 상생과 연대를 통해 각자 자신의 신공항 실리를 쟁기는 것이 먼저다.

향 체제를 우려하는 비수도권의 연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지난해 5월 시내버스 노사는 기존 오후 11시 30분에 종료했던 차량 운행 시간을 이튿날 0시 20분까지 50분 늘리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부터 '막차 종점 운행'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감감무소식이다. 노사가 큰 틀에서 합의를 했지만, 준비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아 새해에도 운행 방식은 바뀌지 않았다.

대구시와 시내버스 노사가 '막차 종점 운행' 방안을 내놓은 것은 시민 불편을 덜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였다. 늦은 밤 시내버스를 탄 시민들이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내려야 하는 어이없는 관행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현재 대구 시내버스 129개 노선 가운데 93개 노선에서 막차가 종점까지 가지 않고 운행을 중단하고 있다.

대구시는 '막차 종점 운행'을 위해 지난 연말까지 버스 노선 안내 정보, 교통카드 결제 시스템이 자정 이후에도 정

사설 社說

택시비도 오르는데, 시내버스 '막차 종점 운행' 시급하다

대구 시내버스 노사가 합의한 '막차, 종점까지 운행'이 합의 후 8개월이 됐는데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5월 시내버스 노사는 기존 오후 11시 30분에 종료했던 차량 운행 시간을 이튿날 0시 20분까지 50분 늘리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부터 '막차 종점 운행'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감감무소식이다. 노사가 큰 틀에서 합의를 했지만, 준비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아 새해에도 운행 방식은 바뀌지 않았다.

시내버스는 시민의 밭이다. 대구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공익성이 우선돼야 한다. 올해 대구시의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임금 인상분과 연장근로수당까지 합하면 2천억 원을 유통 것으로 전망된다. 세금이 투입되는 준공영제를 지속하는 이유는 시민 편의를 위해서다. 16일부터 대구 택시요금이 오른다. 기본요금이 20% 이상 오르고, 할증 시점이 자정에서 오후 11시로 당겨진다. 심야에 이동이 많은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가중된다. '막차 종점 운행'이 더 시급해졌다.

상 작동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 또 버스 위치, 정류장 도착 시각 등을 관제하고 표시하는 BMS(버스운행관리시스템) 업데이트 작업도 거의 마무리했다. 하지만 해결 못 한 난제가 있다. 기존 노선의 배차 간격 및 막차 출발 시각 조정 등이다. 26개 버스회사 및 노조와 종점 연장 운행 대상을 확정해야 하는데,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이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얹혀 있기 때문이다.

시내버스는 시민의 밭이다. 대구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공익성이 우선돼야 한다. 올해 대구시의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임금 인상분과 연장근로수당까지 합하면 2천억 원을 유통 것으로 전망된다. 세금이 투입되는 준공영제를 지속하는 이유는 시민 편의를 위해서다. 16일부터 대구 택시요금이 오른다. 기본요금이 20% 이상 오르고, 할증 시점이 자정에서 오후 11시로 당겨진다. 심야에 이동이 많은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가중된다. '막차 종점 운행'이 더 시급해졌다.

"수성못 포기 못 해" 농어촌공사의 횡당한 법령 개정 시도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수성못 소유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부과 등의 부담을 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수성못을 비롯해 농업용 저수지로 조성됐지만 본래 기능을 상실한 농업기반시설 부지를 분리 과세 대상에 넣어 세액을 줄이자는 것이다. 대구시, 수성구 등 지자체와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법령 개정 시도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매일신문이 입수한 농어촌공사의 '지방세 법령 개정 추진안'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기능을 상실한 저수지 중 공원용, 호수 등으로 사용되는 담수호 부지를 종합 합산 과세에서 분리 과세 대상으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한편으로는 공원용 저수지를 비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한다. 공공재 성격이 있는 만큼 개정의 여지가 있다는 논리다.

대구시에 무상 양여하기는 쉽고, 세금은 적게 내겠다는 의도로 일한다. 오랜 기간 대구 시민의 쉼터 역할을 했고,

지금의 형태로 자리 잡는 데 시민들의 공로가 커졌음을 고려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비유하자면 자동차에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하니 '이건 자동차가 아니고, 기름으로 움직이는 이동 수단'이라는 식이다.

대구 시민들의 눈에는 횡당한 꼼수로 보인다. 수성못을 지금의 명소로 만든 일등 공신인 시민들을 상대로 쟁탈전을 벌여서야 쓰겠는가. 특히 공공재 성격이 있다는 논리로 세금 면탈에 초점을 맞춘 데서는 어안이벙해진다. 공공재 성격이 있는데 사용료를 요구하는 건 언어도단이다.

대구시는 농어촌공사의 법령 개정 시도를 묵과하지 말기 바란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정부 부처에 수성못 무상 양여의 당위성을 파력해야 한다. 농어촌공사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 지역 정치권도 문제 해결에 중지를 모아 나서야 한다. 공원용 저수지가 된 것에 오래된 수성못을 대구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여론을 균등으로 흘려선 안 될 것이다.

중국의 비자 발급 중단 보복…정부는 굽힘 없는 원칙 대응을

중국이 우리 정부의 방역 조치에 대응해 한국인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 데 대해 11일 우리 방역 당국이 "중국발 입국 방역 강화는 국민 건강·안전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지당한 발언이다.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 국가로부터 들어오는 입국자들에 대해 철저한 방역 대응을 하는 것은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이며 국제 규범과도 부합한다.

미국, 캐나다, 호주, 독일, 인도 등 세계 여러 나라들이 중국발 자국 입국에 대해 코로나 검사 의무 강화 및 입국 제한 등 조치를 취했는데 중국은 우리나라와 일본만 꼭 접어서 각각 단기 비자와 일반 비자의 발급 중단 대응을 했다. 똑같은 행동을 한 나라에 대해 중국의 관용이 다르게 나타난 것인데, 중국과 지정학적으로 가까운 두 나라만을 골라 감정적 보복 조치를 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우리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 코로나 검사 실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항공편 증편 중단 등의

대책을 취한 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다. 중국이 코로나 감염 통제 발표를 중단한 상황에서 새해 들어 중국인 입국자 가운데 5명 중 1명꼴로 코로나 확진 판정자가 나오는 판국 아닌가. 중국의 최인접 국가인 우리나라라는 자국민 보호에 나설 수밖에 없다. 우리 정부가 이런 조치를 취한 데에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가 충분히 있다.

상식적 대응을 한 나라에 대해 중국이 보복성 맞대응을 한 것은 심히 유감이다. 주변국을 깔보는 오만한 태도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럴수록 중국에 대한 우리 국민 및 세계인들의 이미지는 나빠지게 된다. 혹여나 윤석열 정부도 문재인 정부처럼 저자세를 취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건 중국 위정자들의 오산이다. 국제 질서에서 강대국 눈치를 너무 많이 보면 무시당하기 싫상이다. 다소간의 불편함과 마찰이 생기더라도 할 말은 하고 주권국으로서 당당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이것이 코로나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길이며 장기적 관점에서도 옳은 외교적 선택이다.



1949년 독일연방공화국(서독)과 독일민주공화국(동독)이 건국되면서 독일이 분단된 이래 동독에서 서독으로 탈출한 난민은 300만 명에 달한다. 여기에는 동독의 국가안보부(슈타지/Stasi)가 심은 간첩이 다수 들어 있었다. 이들은 서독에서 서독인들을 대거 동독 첩자로 포섭했다. 그 수는 무려 2만~3만 명에 이른다. 1990년 독일 통일 후 기밀 해제된 '슈타지 문서'가 확인해 준 사실이다.

이들의 서독 사회 침투는 전방위적이었다. 정계(政界)의 경우 유럽 의회 의원 8명과 유럽 위원회 의원 2명이 동독 첩자라고 슈타지 문서에 나와 있다. 이들의 수는 한때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을 정도였다. 사민당 원내총무 카를 베난트 의원도 그 일원이었다. 사민당의 빌리 브란트 총리의 수행보좌관으로 1급

국가 기밀에 접근할 수 있었던 권력 기음이 1974년 동독 간첩으로 확인된 것과 기민당의 헬무트 콜 총리의 측근들 역시 간첩들로 포진돼 있음을 특별히 드러낸다.

학계도 간첩들이 활개 쳤다. 북한을 북한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내재적 북한 간첩법'을 주장한

간첩 안 잡은 문 정권

송두율이 벤치마킹한 '내재적 동독 간첩법'의 창시자 페터 루츠 교수, 명망 있는 국제정치학자인 베를린 자유대학의 한스 야콥센 교수가 거물 간첩이었다.

이들 동독 간첩은 시민운동 단체와 언론, TV 등 대중 매체에도 침투해 동독을 응호하는 각종 이론을 개발하고 서독에 대한 반정부 투쟁을

주도했다. 이로 인해 동독 친화적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서독 법원의 간첩 사건 판결 건수는 1964년 200건에서 1970년 27건으로 급감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남한 내 북한 연계 지하조직이 제주, 경남 창원과 진주, 전북 전주 등 전국 각지에서 결성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사실로 확인이 되면 이번 간첩단 사건은 1992년 조선 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이후 최대 될 것이라고 한다. 그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간첩 수사 포기이다.

자유민주연구원 집계에 따르면 2011~2017년 26건이던 간첩 적발 건수는 문재인 때인 2017~2020년 3건으로 격감했다. 이마저도 박근혜 정부 때 수사 중이던 사건이라고 한다. 문재인 정권이 남한을 간첩이 활개 치던 1970~1980년대 서독 판박이로 만들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정경훈 논설위원 jghun316@maeilil.com

대구 섬 문화탐방 & 국내문화체험 지정여행사
50년 전통의 대구대표여행사

서라벌여행사

053)423-0011 www.surabul.co.kr

티케이|세계일주

053)424-5313 www.okkolon.com

국내/해외 할인항공권 판매

매주 목,금 대구↔제주 항공권 다양한 혜택

경력사원 항시체육

국내 베스트 상품

【특1급 라마다호텔】

고급형 노트/노옵션 제주 3일

449,000 부터

▶출발일: 매일출발

▶별도지불: 개인경비

【울릉크루즈】 울릉도

제묘년 해맞이 여행 3일

329,000 부터

▶출발일: 2/20~2/21

단회

【초특가】 제주 가파도 4일 199,000 부터

▶출발일: 월요일

▶별도지불: 개인경비

제주도 버스관광 상품 : 전성품 기사/기아드경비 포함 / 금요일 출발 및 연휴기간 요금 별도문의

【특선 국내여행】

22~23 알펜시아 리조트 스キー

(28인승 리무진) 50,000 부터

▶출발일: 매일출발

▶별도지불: 개인경비

제묘년 간절곶 해맞이 무박 2일

29,000 부터

▶출발일: 12/31(일)




디케어센터의원
**GRAND
OPEN**

건강한 나를 위한 건강검진기관 디케어센터의원 22년 11월 오픈!

- 검진 후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는 의료진의 진료
- 고객의 건강 데이터와 추적검사 일정을 관리
- 평생의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클리닉 상담과 교육시스템
- 검진 후 철저하고 지속적인 건강관리 및 질병예측 프로그램
-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협진시스템



상담 문의
053. 288. 3000

홈페이지
www.dcare.or.kr

방문
대구광역시 서구 와룡로 307
디센터 1976 2층

 디케어센터의원

나를 키우다
세상을 KIU다

나를 지키다
가족을 지키다

60
1963-2023

 경일대학교